신 약

현대인의성경

생명의말씀사

수정판 서문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책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나 표현 때문에 성경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 성경은 본래 노동자나 농민, 상인이 익히 사용하는 일상적인 말로 기록되었으나 시대와 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현대인의성경＞은 성경 원전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인들이 그것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썼다. 가능한 한 쉬운 말을 선택하고, 문장의 흐름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하여 현대인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일반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전문적인 기독교 용어도 될 수 있으면 피했고, 도량형의 단위도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대인의성경＞의 번역 원칙과 방침은 영어판 ＜리빙 바이블＞(Living Bible)을 따랐다.

＜현대인의성경＞을 완간한 것은 1986년이었다. 그 동안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게 되었다", "어렵게만 보이던 성경이 이제는 쉽게 이해된다"는 등의 말로 <현대인의성경>이 그들의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었음을 말했다. 그리고 일부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개인 성경 읽기 시간에 <현대인의성경>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현대인의성경>을 번역하는 동안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인의성경> 초판을 보다 현대에 맞도록 약간의 손질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 동안 한글 맞춤법이 개정되었고 또 미흡한 표현들이 드러남에 따라서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사용된 활자와 편집 상태도 현대인들이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바꾸어야 했다.

이번에 내놓는 <현대인의성경> 수정판이 독자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복을 누리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독자들의 솔직한 조언과 기도를 통해 <현대인의성경>이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차　례

신　약

성경 책명 약자표

신 약

약자	책명	약자	책명	약자	책명
마	마태복음	엡	에베소서	히	히브리서
막	마가복음	빌	빌립보서	약	야고보서
눅	누가복음	골	골로새서	벧전	베드로전서
요	요한복음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벧후	베드로후서
행	사도행전	살후	데살로니가후서	요일	요한일서
롬	로마서	딤전	디모데전서	요이	요한이서
고전	고린도전서	딤후	디모데후서	요삼	요한삼서
고후	고린도후서	딛	디도서	유	유다서
갈	갈라디아서	몬	빌레몬서	계	요한계시록

마태가 기록한 기쁜 소식 (마태복음)

◘ **저자** 마태. 알패오의 아들로 가버나움 세무원 출신.
◘ **연대** A. D. 65–70년경(예루살렘 파괴 직전) 기록.
◘ **목적** 첫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이심을 알려 준다. 둘째,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에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성을 깨우쳐 참 신앙에 이르도록 한다.
◘ **개요** 1장–4:11 : 왕의 출현. 4:12–11:1 : 왕의 선포와 권능. 11:2–16:12 : 왕을 거부하는 세태. 16:13–20:28 : 왕의 가르침과 훈련. 20:29–27장 : 왕의 수난과 죽음. 28장 : 왕의 부활과 대위임령.

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1]람을 낳았다.
4 람은 [2]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6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아비야는 [3]아사를 낳았다.
8 아사는 여호사밧을, 여호사밧은 요람을, 요람은 웃시야를 낳았다.
9 웃시야는 요담을, 요담은 아하스를,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므낫세는 [4]아몬을,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11 요시야는 바빌론으로 잡혀갈 무렵 [5]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12 바빌론에 잡혀간 후 여고냐는 [6]스알디엘을,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14 아소르는 사독을, 사독은 아킴을,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엘르아살은 맛단을, 맛단은 야곱을,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7]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17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모두 열네 대이며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열네 대이며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18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일은 이렇다: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사

[1] 헬 '아람' [2] 헬 '아미나답' [3] 헬 '아삽' [4] 헬 '아모스' [5] 또는 '여호야긴' [6] 헬 '살라디엘' [7] 아람어의 '메시아'와 같은 말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실이 알려졌다.

19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 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20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1]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3 [2]"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24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일러 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25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

2 예수님은 헤롯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때 동방에서 [3]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2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 헤롯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4 헤롯왕은 대제사장들과 [4]율법학자들을 다 모아 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소?" 하고 물었다.

5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예언서에 이와 같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6 [5]'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7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캐묻고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 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하였다.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

10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11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1] 원문에는 '주께서' [2] 사 7:14 [3] 헬 '마고스'(천문학, 의학, 자연 과학의 전문가) [4] 또는 '서기관들' [5] 미 5:2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12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딴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집트로 피난하였다가 돌아옴

13 박사들이 돌아간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서 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14 그래서 요셉은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5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1]"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6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람들을 보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두 살 아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
17 이 사건으로 예언자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18 [2]"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19 헤롯이 죽은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20 "아기의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으니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하였다.
21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22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곳에 가기가 겁이 났다. 그는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23 '나사렛' 이란 동네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3 그 무렵 [3]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2 "하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고 [4]외쳤다.
3 예언자 이사야는 일찍이 이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하였다. [5]"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4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 살았다.
5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모든 마을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와
6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6]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꾸짖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

[1] 호 11:1 [2] 렘 31:15 [3] 또는 '침례자' [4] 또는 '전파하였다' [5] 사 40:3 [6] 또는 '침례'

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1]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8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 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여라.

9 그리고 속으로나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11 나는 [2]너희를 회개시키려고 [3]물로 [4]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12 자기 타작 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

13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하며 사양하였다.

15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여라. [5]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16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7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님이 시험받으심

4 그러고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2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몹시 시장하셨다.

3 이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4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6]'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5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6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7]'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7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8]'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1]또는 '진노' [2]어떤 번역본에는 '회개한 사람에게' [3]또는 '물에서' [4]또는 '침례' [5]원문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6]신 8:3 [7]시 91:11, 12 [8]신 6:16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대답하셨다.

8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면서

9 예수님께 "네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10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1]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는 [2]'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쓰여 있다."

11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들었다.

예수님의 전도 시작

12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13 그러나 그분은 나사렛에 계시지 않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14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15 [3]"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의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야,

16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17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셨다.

네 제자를 부르심

18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다.

19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20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21 예수님은 거기서 좀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다.

22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를 배에 남겨 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23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24 예수님의 소문이 [4]시리아까지 퍼지자 사람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자들을 수없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25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산상 설교

5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왔다.

[1] '대적하는 자', '고소자', '중상자', '귀신의 왕', '원수' 등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2] 신 6:13 [3] 사 9:1, 2 [4] 또는 '온 시리아에'

마

2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3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6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1]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7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8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9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10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12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15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18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2]한 점이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9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실천하고 가르치면 하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해 두지만 너희 생활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3]모세의 법에는 [4]'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

[1]또는 '배부를 것임이요' [2]헬 '한 이오타'(헬라어 알파벳 중 제일 작은 문자) [3]원문에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4]출 20:13

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1]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2]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3]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다.
23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25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26 그렇게 되면 네가 [4]마지막 한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또 율법에는 [5]'간음하지 말아라' 고 쓰여 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29 오른눈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30 또 오른손이 너를 죄 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31 "또 율법에 [6]'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 라고 쓰여 있다.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간음하게 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
33 "또 옛 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고 한 말을 들어서 알 것이다.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35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다.
37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38 "또 [7]'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한 말을 듣지 않았느냐?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 대어라.

마

[1]아람어 '라가', '미련한', '어리석은' 이란 뜻. [2]헬 '수네드리온' (공회) [3]헬 '게엔나' [4]또는 '호리' [5]출 20:14, 신 5:18 [6]신 24:1 [7]출 21:24, 레 24:20, 신 19:21

40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41 누가 네게 억지로 오 리를 가자 하거든 십 리를 가 주어라.
42 네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꾸어 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43 “[1]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45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된 도리이다.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 주신다.
46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2]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자선에 대한 교훈

6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2 “네가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3 너는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너의 [3]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기도와 금식

5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6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7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8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10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

[1] 레 19:18 [2] 원문에는 ‘이방인들’ [3] 원문에는 ‘구제함이’

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11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1]죄를 용서해 주소서.
13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2]악에서 구해 주소서. [3](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16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는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17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18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너의 아버지에게만 보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19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먹고 녹슬어 못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가기도 한다.
20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그 곳은 좀먹거나 녹스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23 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만일 네 안에 있는 빛이 아주 사라져 버린다면 네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26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27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4]키를 [5]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28 그리고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

마

[1]또는 '빚을' [2]또는 '악한 자에게서' [3]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4]또는 '목숨을' [5]헬 '한 규빗' (약 45센티미터)

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 보지 못하였다.
30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 주시지 않겠느냐?
31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1]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7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2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당할 것이다.
3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4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5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6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7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8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9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영생의 길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

[1] 원문에는 '이방인들이'

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14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
15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
16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21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22 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23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25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26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27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28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내시자 군중들은 그 가르치심에 몹시 놀랐다.
29 왜냐하면 예수님이 [1]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심

8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2 마침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3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
4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1] 또는 '서기관들'

하고 말씀하셨다.

5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1]장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며

6 "주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7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 하시자

8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9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10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11 또 너희에게 말한다. 동서 사방에서 [2]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12 그러나 [3]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13 그러고서 예수님은 장교에게 "가거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의 하인이 나았다.

14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15 그 손을 만지시자 열병은 떠나고 그 여자는 일어나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

16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고쳐 주셨다.

17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4]"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각오

18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기 주위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

19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20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5]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21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였다.

22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6]영적으로 죽은 사람

[1] 원문에는 '백부장'(로마군 100명의 지휘관) [2] 또는 '많은 사람들이' [3] 또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4] 사 53:4 [5]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6] 원문에는 그냥 '죽은 사람들'

들이 치르게 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폭풍을 잔잔케 하심

23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시자 제자들도 뒤따랐다.
24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25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26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27 사람들은 놀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28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은 너무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29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한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30 마침 거기서 약간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
31 귀신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쫓으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에라도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32 예수님이 "좋다. 가거라" 하시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갑자기 돼지떼가 모두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33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마을에 들어가서 이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자
34 온 마을 사람들이 뛰어나와 예수님을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함

9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 그의 고향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2 그때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3 그러자 율법학자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4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째서 너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5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6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7 그러자 중풍병자는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8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9 예수님이 그 곳을 떠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10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세무원과 죄인들도 많이 와서 자리를 같이하였다.

11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

12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13 너희는 가서 [1]'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4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15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2]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 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16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더 많이 찢어지기 때문이다.

17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18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3]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9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시자 제자들도 뒤따랐다.

20 바로 그때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다.

21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2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그 여자를 보시고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시자 바로 그 순간에 병이 나았다.

23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 피리 부는 사람들과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보시고

24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

25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간 뒤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곧 일어났다.

[1] 호 6:6 [2] 또는 '혼인집 손님들이' [3] 또는 '관리'

26 이 소문이 그 지방에 쫙 퍼졌다.
27 예수님이 그 집을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28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9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하셨다.
30 그러자 소경들은 눈을 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단단히 주의시키셨다.
31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지방에 쫙 퍼뜨렸다.
32 그들이 떠나가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벙어리 한 사람을 데려왔다.
33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벙어리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고 외쳤다.
34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귀신의 왕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

35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쳐 주셨다.
36 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37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38 그러므로 너희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간청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열두 제자를 부르심

10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2 이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렇다:베드로라는 시몬, 시몬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3 빌립, 바돌로매, 도마, 세무원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4 [1]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사람 유다였다.

전도자의 각오

5 예수님은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6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거라.
7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웠다' 고 전하여라.
8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9 [2]돈은 일체 가지고 가지 말아라.

[1] 또는 '열심당원' [2] 원문에는 '금이나 은이나 동'

마

10 여행 가방이나 갈아 입을 옷이나 여분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11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1]너희를 기꺼이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너희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12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2]평안을 빌어 주어라.
13 만일 그 집이 너희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15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16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17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3]법정에 넘겨 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18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19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때에 너희가 할 말을 일러 주실 것이다.
20 이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21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22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23 어떤 마을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거든 다른 마을로 피하라.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너희가 이곳 저곳으로 피하며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다 다니기 전에 [4]내가 올 것이다.
24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25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종은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집 주인인 나를 [5]사탄이라고 불렀으니 [6]너희에게야 오죽하겠느냐?
26 그러나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27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밝은 데서 말하고 너희 귀에 조용히 들려 준 것을 옥상에서 큰 소리로 전파하라.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1] 또는 '합당한' [2] 또는 '인사하여라' [3] 헬 '수네드리온' (공회) [4]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5] 헬 '바알세불' [6] 원문에는 '그 집 사람들'

몸을 [1]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29 참새 두 마리가 [2]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30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31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32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4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35 나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36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식구가 될 것이다.
37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으며
38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역시 내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39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40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41 누구든지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며 의로운 사람을 영접하면 의로운 사람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42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3]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11 예수님은 이처럼 열두 제자에게 교훈하신 후에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그 곳을 떠나셨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2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3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게 하였다.
4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5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6 그리고 [4]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

[1] 헬 '게엔나' [2] 헬 '한 앗사리온'(소액의 동전 명칭) [3] 또는 '소자' [4] 또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 행복하다고 일러 주어라."

7 그들이 떠난 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마

9 그러면 너희가 어째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사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

10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 [1]'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11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2]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13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예언하였다.

14 너희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요한이야말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15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16–17 이 시대 사람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상여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자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렸다' 하더니

19 [3]내가 와서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세무원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4]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경고와 초청

20 예수님은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꾸짖으셨다.

21 "고라신아, 벳새다야,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삼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2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너희보다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5]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네게 베푼 그 엄청난 기적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오늘까지 소돔이 남아 있을 것이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25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1] 말 3:1 [2] 또는 '침례자' [3]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4] 또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5] 헬 '하데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26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27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30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안식일의 주인

12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2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4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1]차림빵을 그의 일행과 함께 먹지 않았느냐?
5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규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7 [2]'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8 [3]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9 예수님이 그 곳을 떠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10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11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졌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 올리지 않겠느냐?
12 사람은 양보다 더욱 귀하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13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네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손과 같이 되었다.
14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 버리려고 의논하였다.
15 예수님이 이 일을 아시고 그 곳을 떠

[1]또는 '진설병' [2]호 6:6 [3]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마

나시자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16 자기에 대한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시키셨다.
17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18 [1]"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2]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19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20 [3]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21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22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 주시자 눈먼 벙어리가 말도 하고 보게 되었다.
23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 "이분이 혹시 [4]다윗의 후손이 아닐까?" 하고 말하였다.
24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귀신의 왕 [5]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25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그 어떤 마을이나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한다.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미 서로 갈라져 싸우는 것이니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27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6]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29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털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털 수 있겠느냐?
30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 버리는 사람이다.
31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32 누구든지 [7]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욕하는 사람은 이 세대나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33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1] 사 42:1–4 [2] 또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3] 또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4] 어떤 번역본에는 '메시아' [5] 헬 '바알세불' [6] 원문에는 '너희 아들들' [7]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35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3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지껄인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 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37 네가 한 말에 따라서 네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기적을 요구함

38 그때 [1]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9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40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41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42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던 남방 여왕도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43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44 그래서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가 보니 그 집이 비고 깨끗이 소제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45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다른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살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46 예수님이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찾아왔다.
47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였다.
48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하시고
49 제자들을 가리키며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의 비유

13 그 날 예수님은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다.
2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므로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그들은 물가에 서 있었다.
3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1] 또는 '서기관'

들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4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5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으나
6 해가 돋자 뿌리를 박지 못한 싹은 타서 말라 버렸다.
7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았다.
8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9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10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11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12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13 저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나는 저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14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예언은 저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1]'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
15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16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18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뜻을 들어 보아라.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2]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 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20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21 [3]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22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3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1] 사 6:9, 10 [2] 원문에는 '악한 자' [3] 또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24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다.
25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밭에 [1]독보리를 덧뿌리고 갔다.
26 밀이 싹터서 자랄 때 독보리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27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보리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하고 물었다.
28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 대답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독보리를 뽑아 버릴까요?' 하고 다시 묻자
29 주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독보리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게 하겠다.' "
31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32 그것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나 나무처럼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인다."
33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어떤 여자가 [2]한 포대의 밀가루에 섞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34 예수님은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35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3]"내가 비유를 들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진 것을 말하겠다."
36 그 후 예수님이 군중과 헤어져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밭의 독보리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였다.
37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4]나 그리스도이며
38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앗은 하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독보리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39 독보리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 그러므로 독보리를 뽑아 불에 태우듯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41 내가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들은 죄 짓게 하는 모든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 나라에서 모두 추려내어
42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43 그때 의로운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

[1] 또는 '가라지' [2] 헬 '세 사톤' (약 22리터) [3] 시 78:2 [4]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44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45 "또 하늘 나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46 그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47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48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면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골라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49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50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51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52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하셨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53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곳을 떠나

54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는 그의 동생들이다.

56 그리고 그의 누이동생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서

57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집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58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

세례 요한의 죽음

14 그때 그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2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1]세례 요한이 분명하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3 헤롯이 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가둔 일이 있었다.

4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5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1] 또는 '침례자'

여기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두려워 하였다.

6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다.

7 그러자 헤롯은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녀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8 그래서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9 왕은 몹시 괴로웠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들 때문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명령하고

10 사람을 보내 갇혀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11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렸다.

예수님이 오천 명을 먹이심

13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14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1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이 곳은 벌판인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16 "갈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17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18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19 그러고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20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광주리나 거뒀으며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

22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23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었는데도 그 곳에 홀로 계셨다.

24 그러나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바람이 휘몰아치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25 [1]새벽 4시쯤 되어 예수님이 [2]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26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다.

[1] 원문에는 '밤 4경' (새벽 3-6시) [2] 갈릴리 호수를 말함.

27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28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29 예수님이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
30 그러나 그가 [1]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자 "주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31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32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다.
33 그때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다.
34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다.
35 그러자 그 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변 지역에 다 연락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36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며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15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2 "당신의 제자들은 왜 [2]조상들이 대대로 지켜 온 전통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하였다.
3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4 하나님께서는 [3]'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4]'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고 말씀하셨다.
5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6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
7 위선자들아, 바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8 [5]'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9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10 예수님은 군중들을 가까이 불러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고 말씀하셨다.
12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난 것을 아십니까?" 하고 묻자
13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늘

[1] 원문에는 '바람을' [2] 또는 '장로들의 유전' [3] 출 20:12, 신 5:16 [4] 출 21:17, 레 20:9 [5] 사 29:13

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러니
14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15 이때 베드로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자
16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17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8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심

21 예수님은 그 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22 그때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아와서 "주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23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 버리십시오" 하였다.
24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25 그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26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27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28 "[1]정말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29 예수님은 그 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를 따라 가시다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30 사람들이 앉은뱅이, 절뚝발이, 소경, 벙어리, 그 밖의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히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 주셨다.
31 벙어리가 말하고 절뚝발이가 성해지고 앉은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32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군중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구나. 저들을 굶겨서 그대로 보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다 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33 "이 벌판에서 이처럼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34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1] 원문에는 '여자야'

마

"일곱 개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있습니다."

35 예수님은 군중들을 땅에 앉히시고

36 빵 일곱 개와 그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37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나 거뒀으며

38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4,000명이었다.

39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후에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기적을 보여 달라

16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2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고 말하고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 버리셨다.

5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잊어버리고 빵을 가져가지 못했다.

6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자

7 제자들은 서로 의논하며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수군거렸다.

8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9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빵 다섯 개로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10 빵 일곱 개로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11 내가 빵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12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3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1]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4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은 [2]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5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16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2] 또는 '침례자'

17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1]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18 너는 [2]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3]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내가 하늘 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20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시키셨다.
21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4]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다.
22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23 그러나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으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24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5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27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28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내가 하늘 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 중의 예수님

17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2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희어졌다.
3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다.
4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 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5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1] 또는 '바요나' [2] '바위' 라는 뜻. [3] 헬 '하데스의 문' [4] 또는 '서기관들'

6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 땅에 납작 엎드렸다.
7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1]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셨다.
10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다면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묻자
11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1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엘리야가 벌써 왔어도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였다. 이와 같이 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13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2]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14 그들이 군중들에게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15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간질병에 걸려서 몹시 고생하며 자주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16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17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18 그러고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바로 그 순간에 아이가 나았다.
19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20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리로 옮겨 가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며 너희에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21 [3](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22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4]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23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다.
24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5]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

[1]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2] 또는 '침례자' [3] 많은 고대 사본에는 괄호 안의 구절이 없음. [4]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5] 헬 '2드라크마'(2데나리온 또는 반 세겔에 해당함. 이틀 동안의 품삯)

서 "당신들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바칩니까?" 하고 물었다.

25 그래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바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냐?"

26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1]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먼저 잡히는 고기의 입을 벌리면 [2]은화 한 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의 성전세로 주어라."

어린 아이같이 되라

18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다.

2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3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하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5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6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죄 짓게 하는 사람은 [3]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7 "죄 짓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는 죄 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8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 짓게 하면 잘라 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4]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나 불구자로 [5]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9 네 눈이 너를 죄 짓게 하면 빼어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눈으로 [6]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10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

11 [7]([8]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12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

[1] 또는 '그들의 오해를 사서는 안 되겠다' [2] 헬 '스타텔' (4드라크마, 또는 1세겔) [3] 원문에는 이 구절에 쓰인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 [4] 원문에는 '영원한 불' [5] 원문에는 '생명에' [6] 또는 '영생에' [7] 대부분의 사본에는 괄호 안의 구절이 없음. [8]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14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도 [1]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남을 용서하여라

15 "형제가 네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16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라.

17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2]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겨라.

18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3]처벌하면 하늘에서도 [4]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5]용서하면 하늘에서도 [6]용서할 것이다.

19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21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22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만 아니라 [7]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종들과 계산을 하려는 왕과 같다.

24 계산을 시작하자 [8]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왕 앞에 끌려왔다.

25 그 종에게는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왕은 종에게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것 전부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러자 종은 왕에게 엎드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27 그래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모두 면제해 주고 놓아 주었다.

28 "그러나 그 종은 나가 자기에게 [9]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을 내놔!' 하면서 재촉하였다.

29 그 동료는 엎드려 '조금만 참아 주게. 반드시 갚겠네' 하고 간청하였다.

30 그러나 그 종은 그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 버렸다.

31 다른 종들이 그가 하는 짓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파 왕에게 가서 모두 일러바쳤다.

32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네 이놈, 네가 간청하기에 모든 빚을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

33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1] 또는 '멸망하는 것을' [2] 원문에는 '이방인과 세리' [3] 원문에는 '매면' [4] 원문에는 '매일 것이요' [5] 원문에는 '풀면' [6] 원문에는 '풀리리라' [7] 또는 '일흔일곱 번씩이라도' [8]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10,000달란트는 6천억 원이 된다. [9]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100데나리온은 백만 원, 곧 일만 달란트의 60만분의 1이 된다.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34 그러고서 왕은 화를 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 두었다.

35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19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2 그때 많은 군중이 따르므로 예수님은 거기서도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결혼과 이혼

3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구실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4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5 [1]'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6 그렇게 되면 두 몸이 아니라 한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7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와 이혼하라' 고 했습니까?" 하고 그들이 묻자

8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9 [2]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10 제자들이 예수님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자

11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말대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

12 처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난 남자도 있고 [3]불구자가 되어서 결혼할 수 없는 남자도 있으며 하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13 그때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 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14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15 그러고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그 곳을 떠나셨다.

부자 청년

16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1] 창 2:24 [2] 고대 사본에는 9절 끝에 '또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가 더 있음. [3] 원문에는 '사람이 만든 고자'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17 "어째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18 "어느 계명입니까?" "[1]'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2]'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20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1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 버렸다.
23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24 내가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25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26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27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고 묻자
28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3]새 시대가 되어 [4]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29 또 나를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5]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6]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30 그러나 지금 앞서도 나중에 뒤떨어지고 지금은 뒤떨어져도 나중에 앞설 사람이 많을 것이다."

20

"하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주인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려고 나갔다.
2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3 [7]9시쯤 되어 다시 나가 보니 일거리가 없어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4 그래서 주인이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한 것만큼 삯을 주겠다' 하자 그들이 포도원에 갔다.
5 주인은 [8]12시와 오후 [9]3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

[1] 출 20:12-16, 신 5:16-20 [2] 레 19:18 [3] 원문에는 '그 세대에' [4]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5] 어떤 사본에는 '부모나' 다음에 '아내나'가 더 있음. [6] 많은 사본에 '백 배'로 되어 있음. [7] 헬 '제3시' [8] 헬 '제6시' [9] 헬 '제9시'

6 오후 [1]5시에도 나가 보니 여전히 일거리가 없어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섰느냐?' 하고 주인이 묻자
7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다.
8 "날이 저물자 주인은 포도원 감독에게 '일꾼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차례로 품삯을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9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기에
10 먼저 온 사람들은 좀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했으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다.
11 그래서 그들은 품삯을 받고 주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12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 줍니까?'
13 "그러나 주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내 너그러움이 네 비위에 거슬리느냐?'
16 "이와 같이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뒤진 사람이 앞설 것이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

17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18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2]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19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20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22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곧 마시게 될 [3]고난의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23 "너희가 정말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사람들의 것이다."
24 듣고 있던 열 제자가 두 형제를 보고 화를 내자
25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1] 헬 '제11시' [2]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3] 원문에는 그냥 '잔'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26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27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28 [1]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2]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29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30 그런데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31 군중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32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왜 그러느냐?" 하고 물으시자
33 그들은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4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눈을 만지시자 그들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루살렘으로 가심

21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기슭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2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 줄 것이다."
4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5 [3]"시온 사람들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6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7 나귀와 그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펴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
8 많은 군중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기도 했다.
9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다윗의 후손에게 [4]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10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내가 떠들썩하며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11 그러자 군중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2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매

[1]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2] 또는 '몸값' [3] 슥 9:9 [4]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찬양의 외침이다.

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13 그리고 그들에게 "[1]'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14 성전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뚝발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다.
15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과 성전에서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16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소?"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다. 너희는 [2]'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완전하게 하셨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고
17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에 가셔서 밤을 보내셨다.
18 다음날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다.
19 마침 길가에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으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시자 나무가 곧 말라 버렸다.
20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갑자기 말라 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21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내가 그 무화과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산을 향하여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유대인의 올무

23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하고 따져 물었다.
24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25 요한의 [3]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4]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26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두렵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27 "우리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1] 사 56:7 [2] 시 8:2 [3] 또는 '침례' [4] 원문에는 '하늘에서'

마

28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먼저 맏아들에게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였으나
29 그는 [1]'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다.
30 그가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같은 말을 했는데 그는 [2]'싫습니다' 하고 거절하였으나 뒤에 뉘우치고 갔다.
31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느냐?" 그들이 "둘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세무원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32 요한이 와서 [3]올바른 길을 가르쳤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고 세무원과 창녀들은 믿었다. 그리고 너희는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33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틀을 놓고 망대를 세운 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34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35 그러자 소작인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36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37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38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 버리고 그가 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서로 말하며
39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40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악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42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4]'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 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5]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인

[1] 어떤 사본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그러나 그는 뒤에 뉘우치고 갔다'로 되어 있음. [2] 어떤 사본에는 '예, 가겠습니다……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다'로 되어 있음. [3] 또는 '의의 도' [4] 시 118:22, 23 [5] 또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줄 알고

46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서 잡지 못하였다.

천국이란?

22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

3 왕은 종들을 시켜 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다.

4 왕은 또 다른 종들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내 '살진 소를 잡아 모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잔치에 오십시오' 하라고 하였다.

5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6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 버렸다.

7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 버렸다.

8 그러고 나서 왕은 종들에게 말하였다.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9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하여라.'

10 "그래서 종들이 나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만나는 대로 데려오자 잔치 자리가 가득 찼다.

11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 '그대는 어째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하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13 그때 왕은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다.

14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15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한 후에

16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 물어 보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17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18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한 생각을 아시고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19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내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님께 [2]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20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21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1] 원문에는 '가이사에게' [2]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22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문이 막힌 채 가 버렸다.
23 바로 그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24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5 우리 이웃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그 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었습니다.
26 그러나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에서 일곱째까지 모두 그렇게 되었으며
27 끝내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8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29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30 부활하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다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31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32 [1]'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33 그러자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감탄하였다.
34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말을 듣고 다 함께 모였다.
35 그들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36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37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2]'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8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39 그 다음은 [3]'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계명이다.
40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41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후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43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44 [4]'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고 하지 않았느냐?
45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

[1]출 3:6 [2]신 6:5 [3]레 19:18 [4]시 110:1

의 후손이 되겠느냐?"

46 그러자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그 날부터 예수님께 묻는 사람도 없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

23 그때 예수님이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 "[1]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2]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3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4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으며

5 또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차는 작은 [3]성구함을 크게 하고 옷 술을 길게 달고 다닌다.

6 그들은 잔치 자리의 특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7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4]선생이라고 불러 주는 것을 좋아한다.

8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9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 곧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10 또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다.

11 너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하늘 나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14 [5](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15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16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17 어리석은 소경들아, 금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마

[1] 또는 '서기관들' [2] 원문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3] 또는 '경문을 넓게 하며' [4] 헬 '랍비' [5] 어떤 사본에는 괄호 안의 구절이 없다.

마

18 또 너희는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19 이 소경들아, 제물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20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21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거기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2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1]근채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십일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24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2]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25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3]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26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는 먼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27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29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로운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우며
30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하니
31 결국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32 이제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워라.
33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1] 약재, 양념에 쓰이는 미나리과의 1년생 초본(커민). [2] 또는 '각다귀' [3] 또는 '강탈과'

35 그래서 죄 없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사람들의 모든 피에 대한 형벌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36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바로 이 세대가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38 이제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39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너희가 [1]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언

24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하자
2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3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4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2]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6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7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8 그러나 이 모든 것은 [3]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9 “그 때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며 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0 또 많은 사람들이 [4]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11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12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4 이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15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5]멸망케 하는

마

[1] 시 118:26 [2] 또는 ‘메시아’ [3] 원문에는 ‘해산의 고통’ [4] 또는 ‘시험에 빠져’ [5] 단 9:27, 11:31, 12:11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16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17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18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19 그때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것이다.
20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21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고난이 그때 있을 것이다.
22 만일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23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24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25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둔다.
26 사람들이 너희에게 '[1]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27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 [2]나도 그렇게 올 것이다.
28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29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떨어지고 [3]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30 그 때에 내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1 내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4]내가 문 밖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4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35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6 그러나 내가 오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5]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37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38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1] 원문에는 '그가' [2]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3] 또는 '하늘의 권능들이' [4] 또는 '그 때가' [5] 일부 사본에는 '아들'이란 말이 빠져 있다.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 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40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 둘 것이며
41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 둘 것이다.
42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43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 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 있다가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44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45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냐?
46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47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48 그러나 그 종이 악하여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49 함께 있는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50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51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위선자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천국 비유

25 "그때 하늘 나라는 마치 저마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2 열 처녀 중에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4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 두었다.
5 그러나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6 그런데 한밤중에 '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7 그때 처녀들은 다 일어나 저마다 등을 손질했다.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너희 기름을 좀 주겠니?' 하자
9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 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도 모자랄 거야.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지 그러니?'
10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11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마

12 그러나 신랑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13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14 "또 하늘 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15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1]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16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고
17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18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2]돈을 묻어 두었다.
19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였다.
22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제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였다.
24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25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 속에 묻어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26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27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28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9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30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31 "[3]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

[1]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5달란트는 3억 원, 2달란트는 1억 2천만 원, 1달란트는 6천만 원 [2] 원문에는 '은' [3]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께 와서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32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 놓듯 사람들을 갈라 놓아
33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34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35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36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고 말할 것이다.
37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38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39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 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40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41 "그런 다음 그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42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43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고 말할 것이다.
44 그러면 그들도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45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46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배신

26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2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다. [1]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박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1]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 모여
4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5 그러나 그들은 "군중들이 난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6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7 한 여자가 예수님께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8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시오?
9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 하였다.
10 그러자 예수님은 [1]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11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12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13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세상 어디든지 이 [2]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14 그때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15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 주면 얼마나 주겠소?" 하고 묻자 그들은 은화 30개를 세어 주었다.
16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 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17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잡수실 [3]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물었다.
18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자기 때가 가까우므로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여라."
19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 주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20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21 음식을 잡수시면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2 제자들이 매우 슬퍼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자
23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24 [4]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25 그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1] 원문에는 그냥 '아시고' [2] 또는 '기쁜 소식' [3]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유대인의 기념일. [4]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선생님, 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26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28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29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30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감람산으로 갔다.
31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1]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2]'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32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33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자
34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다.
35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의 기도

36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38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39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40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42 예수님은 두 번째 가셔서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후
43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은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1]또는 '나 때문에 실족할 것이다' [2]슥 13:7

마

44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두고 세 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5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1]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때가 왔으니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46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
47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같이 왔다.
48 유다는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테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 둔 후
49 곧 예수님께 나아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50 예수님이 유다에게 "친구야, [2]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하시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51 그때 예수님의 곁에 섰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52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53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12개 [3]여단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 보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54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5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칠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56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 버렸다.
57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가자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
58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가서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려고 경비병들 틈에 끼어 앉았다.
59 대제사장들과 [4]유대인 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잡으려고 하였다.
60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와서
61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고 증언하였다.
62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네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1] 또는 '이제는 자고 쉬라' [2] 또는 '네가 여기 어떻게 왔느냐?' [3] 헬 '레기온' (1레기온은 6,000명으로 편성) [4] 헬 '수네드리온' (공회)

물었다.

63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다.

64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해 두지만 앞으로 [1]내가 [2]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65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66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모두 외쳤다.

67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뺨을 때리면서

68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다.

베드로가 부인함

69 한편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지요?" 하였다.

70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였다.

71 베드로가 정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72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며 딱 잡아떼었다.

73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말씨를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하자

74 베드로는 [3]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였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75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재판과 처형

27 이른 아침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하였다.

2 그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3 그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 것을 보고 뉘우쳐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 주며

4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으니 정말 큰 죄를 지었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소?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5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6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주워 "이 돈

[1]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2] 또는 '권능의' [3] 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은 피 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는 없다" 하고
7 의논한 후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8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른다.
9 이렇게 해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1]"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의 몸값으로 정한 은화 30개를 받아
10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다."
11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렇다" 하시고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말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다.
13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어도
14 예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자 그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15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
16 그때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17 빌라도는 모인 군중들에게 "여러분, 누구를 놓아 줄까요?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하고 물었다.
18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 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20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구하라 하였다.
21 그때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 주었으면 좋겠소?" "바라바를 놓아 주시오."
22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쩌란 말이오?" 그들은 모두 대답하였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23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묻자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24 빌라도는 아무 효과도 없는 공연한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폭동까지 일어날 것 같아서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소.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오" 하였다.
25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2]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하고 외쳤다.
26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 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1] 슥 11:12, 13 [2] 원문에는 '그의 피를'

못박게 내어주었다.

27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 안에 있는 군본부로 끌고 가서 온 부대원을 모으고

28 예수님의 옷을 벗긴 다음 자주색 옷을 입혔다.

29 그리고서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30 그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때리기도 했다.

31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뒤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32 그들은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33 그들이 '해골터'로 알려진 골고다에 와서

34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며 마시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다.

35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제비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눠 가진 후

36 거기 앉아 지키고 있었다.

37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다.

38 그때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박혔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39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40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조롱하였다.

41 대제사장들도 [1]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42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43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제 구원하실 테지" 하였고

44 함께 못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였다.

죽음과 장사

45 낮 [2]12시부터 오후 [3]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46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4]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47 거기 서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였다.

48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재빨리 달려가 [5]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 둬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1] 또는 '서기관' [2] 헬 '제6시' [3] 헬 '제9시' [4] 어떤 사본에는 '엘로이 엘로이' [5] 해면 동물의 섬유 조직(스폰지)

두고 봅시다" 하였다.
50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51 그때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52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53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 무덤에서 나와 [1]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54 예수님을 지키던 [2]장교와 사병들은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였다.
55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56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3]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가 있었다.
57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찾아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58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자 빌라도는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59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모시 천으로 싸서
60 바위를 쪼아 내어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아 놓고 갔다.
61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62 이튿날, 곧 [4]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63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 있을 때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64 그러니 3일까지는 그 무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전보다 이 후의 일이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65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경계병이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지키시오" 하자
66 그들은 가서 무덤을 단단히 막아 돌에 봉인하고 경계병을 배치하여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였다.

예수님의 부활

28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살펴보려고 갔다.
2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3 천사의 모양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4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 기절하고 말았다.
5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

[1] 원문에는 '거룩한 성' [2] 원문에는 '백부장'(로마군 100명의 지휘관) [3] 또는 '요세' [4] 원문에는 '예비일 다음날'로 되어 있는데 이 예비일은 그 해에 유대인의 '안식일 예비일'과 '유월절의 저녁'이 겹친 금요일을 말한다. 그래서 금요일 다음날인 토요일은 안식일이다.

다. "무서워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양인데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7 너희는 속히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뵙도록 하세요' 하고 일러 주어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8 그래서 그 여자들은 두려우면서도 기쁨에 넘쳐 무덤을 급히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다.

9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자

10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셨다.

11 여자들이 떠난 뒤 경계병 중 몇 사람이 시내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보고하였다.

12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13 말하였다. "당신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 갔다' 고 말하시오.

14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잘 달래서 당신들에게 걱정을 끼치지는 않겠소."

15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6 열한 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러 주신 산에 올라가

17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18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1]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1] 또는 '침례'

마

마가가 기록한 기쁜 소식 (마가복음)

◘ **저자** 마가. 베드로의 사랑받는 제자요 동역자이며,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에 참가한 복음의 조력자.
◘ **연대** A. D. 65–70년경(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이후) 기록.
◘ **목적**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알려 준다. 둘째, 로마 황제 네로 치하에서 고난당하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고난과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소망을 준다.
◘ **개요** 1장–2:12 : 종의 출현. 2:13–8:26 : 종의 사역과 고난. 8:27–10장 : 종의 가르침. 11–15장 : 종의 거부당함과 수난. 16장 : 종의 부활.

막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2 [1]예언서에는 [2]"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3 [3]"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고 쓰여 있다.

세례 요한

4 이 말씀대로 [4]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5]세례를 전파하였다.
5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모두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몸을 구푸려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9 그 무렵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10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리시는 것을 보셨다.
11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12 그러고 나서 즉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님이 거기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지내시자 천사들이 시중들었다.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15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을 부르심

16 예수님은 갈릴리 [6]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1] 어떤 사본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2] 말 3:1 [3] 사 40:3 [4] 또는 '침례자' [5] 또는 '침례' [6] 또는 '호숫가'

17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자
18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19 예수님은 좀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20 즉시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 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21 그들 일행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곧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22 그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으므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심

23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24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하고 외쳤다.
25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자
26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27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더러운 귀신들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군!" 하며 서로 이야기하였다.
28 그래서 곧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널리 퍼졌다.
29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30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31 예수님은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즉시 열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32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33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도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그래서 예수님은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35 이른 새벽 예수님은 일어나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
36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시몬과 그 일행은
37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8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하시고
39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

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40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41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42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
43 예수님은 곧 그를 보내시며 엄하게 타일렀다.
44 "너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45 그러나 그는 나가서 이 일을 마구 퍼뜨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외딴 곳에 가 계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다.

2 며칠 후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2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꽉 차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3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
4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분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내렸다.
5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6 그러자 거기 앉아 있던 몇몇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7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8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침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10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11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12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침구를 걷어 가지고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놀라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13 예수님이 다시 [1]바닷가로 나가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라와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다.
14 그런 다음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15 예수님은 [2]레위의 초대를 받고 그

[1]갈릴리 호숫가를 말함. [2]암시됨.

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도 자리를 같이하였다.

16 이것을 본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

17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늘에서 온 사람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19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가 없다.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 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21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기운 것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많이 찢어진다.

22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23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함께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24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며 트집을 잡았다.

25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때 한 일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26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1]차림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27 그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28 그러므로 [2]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3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2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지켜 보고 있었다.

3 예수님은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고

4 지켜 보는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1] 또는 '진설병' [2]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5 예수님은 노여운 얼굴로 둘러보시고 그들의 고집스런 마음을 슬퍼하시며 병자에게 "네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오그라든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6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급히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만나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7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다시 가시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
8 또 유대, 예루살렘, 이두매,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몰려왔다.
9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10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마구 밀어닥쳤다.
11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12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다.

열두 제자를 뽑으심

13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으셨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14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따로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내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며
15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
16 예수님이 뽑아 세운 이 열두 제자는 이렇다: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시몬,
17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받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18 안드레,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1]가나안 사람 시몬,
19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사람 유다였다.
20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 일행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21 한편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찾아 나섰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2]율법학자들은 "그에게 [3]사탄이 붙었다" 하며 또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23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1] 또는 '열심당원' [2] 또는 '서기관들' [3] 헬 '바알세불'

24 한 나라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25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26 그래서 사탄의 나라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는 법이다.
27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털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그 집을 털 수가 없다.
28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29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는 영원히 남는다."
30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31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부르자
32 둘러앉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하시고
34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비유

4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자 군중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바닷가에 그대로 있었다.
2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3 "잘 들어라. 한 농부가 들에 나가
4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5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으나
6 해가 돋자 뿌리를 박지 못한 그 싹은 타서 말라 버렸다.
7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았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8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9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10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이 비유의 뜻을 묻자
11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12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3 그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

다. "너희는 이 비유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14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15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16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17 [1]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18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은 듣지만
19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20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21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22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23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24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2]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25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6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27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진 씨는 움이 돋고 자라서
28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와 마침내 여문 알곡이 달린다.
29 곡식이 다 익어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낫으로 그것을 거둬들인다."
30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며 어떻게 설명할까?
31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이 땅에 심길 때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32 심긴 후에는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서 큰 가지를 늘어뜨린다. 그래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
33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많은 비유를 들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르치셨다.
34 그러나 비유가 아니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따로 설명해 주셨다.
35 그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

[1] 또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2] 또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씀하셨다.
36 그래서 제자들은 군중을 남겨 두고 예수님이 타신 배로 함께 떠났고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37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38 그러나 예수님은 배의 뒷 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39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멎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40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1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돼지와 귀신

5 예수님의 일행은 [1]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2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3 그는 공동 묘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 둘 수가 없고 쇠사슬마저 소용이 없었다.
4 그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였으나 그것들을 끊고 부수어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 내지 못하였다.
5 그는 밤낮 공동 묘지와 산 속을 돌아다니며 소리지르고 돌로 제 몸을 해치곤 하였다.
6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와 절하며 큰 소리로
7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8 이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9 예수님이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2]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리고 그는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11 마침 그 곳 산기슭에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
12 귀신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 그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13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
14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이 일을 전하자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15 그들은 전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

[1] 갈릴리 호수를 말함. [2] 헬 '레기온' (1레기온은 6,000명으로 편성)

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16 그 일을 지켜 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자
17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18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같이 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19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과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가족에게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20 그가 곧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데가볼리 지방에 알리자 듣는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소녀를 다시 살리심

21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오셨다. 많은 군중들이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22 그때 야이로라는 [1]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23 "제 어린 딸이 죽어 갑니다.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24 예수님이 그를 따라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며 서로 밀쳤다.
25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26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느라고 무척 고생하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였으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었다.
27 마침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 틈에 끼어 가다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28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29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피가 멎었고 그녀는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30 예수님은 곧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물으셨다.
31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군중이 이렇게 서로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만졌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32 그러나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예수님이 둘러보시자
33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말하였다.
34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35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 하였다.
36 예수님은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1] 또는 '회당 관리'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다.

37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38 그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갔다. 웅성거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울며 몹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39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 "어째서 소란스럽게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40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 소녀의 부모와 데리고 간 제자들과 함께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셨다.

41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는데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었다.

42 그러자 열두 살 된 그 소녀는 곧 일어나 걸어다녔다. 이것을 지켜 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43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단단히 주의시키신 후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자선에 대한 교훈

6 예수님이 그 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2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저 사람의 이런 지혜와 [1]놀라운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3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사람의 누이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4 예수님은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5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 수가 없어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

6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셨다.

7 그리고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8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여행하는 데 필요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식량이나 가방이나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9 신발만 신고 여분의 옷도 껴입지 말아라."

10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떠날 때까지 너희는 한집에서 머물러라.

11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곳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그들에 대한 증거를

[1]또는 '기적들'

삼아라."

12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도하며

13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 주었다.

요한의 죽음

14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마침내 헤롯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사람들은 "죽은 [1]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가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고 말하였다.

15 어떤 사람은 그를 엘리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의 예언자와 같은 분이라고 하였으나

16 헤롯은 듣고 "내가 목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다.

17 헤롯은 전에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로 요한을 잡아 가둔 일이 있었다.

18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19-20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두려워하며 보호하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즐겨 듣곤 하였다.

21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2]고위 군 지휘관들과 갈릴리의 귀빈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22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춰서 헤롯과 참석한 손님들을 즐겁게 하자 왕은 소녀에게 "네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 보아라.

23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약속하였다.

24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고 묻자 그녀는 "[3]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하고 대답하였다.

25 그래서 소녀는 급히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지금 곧 제게 주십시오" 하였다.

26 왕은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자기가 한 약속과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들 때문에 소녀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27 왕이 즉시 사형 집행인을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하자 그는 감옥에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28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었으며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29 요한의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였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심

30 한편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였다.

31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딴 곳으로 같이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식사할 겨를

[1] 또는 '침례자' [2] 원문에는 '천부장'(로마군 1,000명의 지휘관) [3] 또는 '침례자'

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32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33 그러나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육로로 달려가 그 곳에 먼저 도착하였다.
34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35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이 곳은 벌판인 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36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37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가서 [1]200데나리온이나 들여 빵을 사다가 먹이란 말씀입니까?"
38 "너희가 가진 빵이 몇 개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니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다.
39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떼지어 풀밭에 앉히라고 지시하시자
40 그들은 100명씩, 50명씩 모여 앉았다.
41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였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42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43 남은 빵과 물고기 조각을 열두 광주리나 거뒀으며
44 먹은 사람은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
45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새다로 건너가게 하셨다.
46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
47 날은 이미 저물었고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며 예수님은 혼자 육지에 계셨다.
48 바람이 휘몰아치므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쓰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2]새벽 4시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가 그대로 지나가시려 하셨다.
49-50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모두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그들에게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시면서
51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곧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다.
52 이것은 그들이 빵에 대한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

막

[1]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200데나리온은 200만 원이 된다. [2] 원문에는 '밤 4경' (새벽 3-6시)

졌기 때문이었다.
53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54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고
55 온 지방으로 뛰어다니며 병자들을 자리에 누인 채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데려왔다.
56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르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1]길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며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전통보다 더 귀한 것

7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다가
2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
3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래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에 따라 먼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고
4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을 씻는 등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았다.)
5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물었다.
6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2]'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7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8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내세우고 있다."
9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10 모세는 [3]'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4]'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고 하였다.
11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12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13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
14 예수님은 군중들을 다시 불러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15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6 [5](없음)
17 예수님이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18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

[1] 원문에는 '시장' [2] 사 29:13 [3] 출 20:12, 신 5:16 [4] 출 21:17, 레 20:9 [5] 후대 사본에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가 있음.

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19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
20 그러고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셨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21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22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 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23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수로베니게 여자

24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1]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셨으나 곧 알려지고 말았다.
25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26 그녀는 [2]수로베니게 태생의 그리스 사람인데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27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28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29 "네 말이 옳다.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이미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30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고 어린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31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오셨다.
32 그때 사람들이 귀먹은 반벙어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33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또 손가락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다.
34 그러고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한숨을 쉬시며 "에바다!" 하고 외치셨다. 이것은 "열려라"는 뜻이었다.
35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제대로 말을 하게 되었다.
36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소문을 널리 퍼뜨렸다.
37 사람들은 다 놀라 "참 굉장한 일이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다니!" 하고 감탄하였다.

8

그 무렵 또 다른 군중이 많이 모여들었으나 먹을 것이 없으므로

[1] 어떤 사본에는 '시돈'이 생략되어 있다. [2] 시리아의 속영이었던 옛 페니키아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구나.
3 이들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 만일 굶겨 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4 "이런 벌판에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5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일곱 개 있습니다."
6 예수님은 군중들을 땅에 앉히시고 빵 일곱 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셨다.
7 그들에게는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도 받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8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나 거뒀으며
9 먹은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10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왜 기적만 찾느냐

11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였다.
12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왜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세대에 그런 기적은 보여 주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3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14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15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16 제자들은 "우리에게 빵이 없어 그러시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17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처럼 둔하냐?
18 너희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렇게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19 내가 빵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나 거뒀느냐?" 그때 제자들이 "열두 광주리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다.
20 "또 빵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나 거뒀느냐?" "일곱 광주리입니다."
21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22 예수님의 일행이 벳새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간청하였다.
23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

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으며 "뭐가 좀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24 그러자 소경은 두리번거리다가 "예, 사람이 보이긴 합니다만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5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가 눈이 열려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26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시키셨다.

주님은 그리스도

27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가시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28 제자들은 "[1]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9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0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시키셨다.
31 예수님은 [2]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3]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32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럴 수 없다고 말렸다.
33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고 꾸짖으셨다.
34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불러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35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4]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3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37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5]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

9 그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1] 또는 '침례자' [2]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3] 또는 '서기관들' [4] 또는 '기쁜 소식' [5]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2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3 그 옷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다.
4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5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6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이었다.
7 이때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8 제자들이 즉시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님과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9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다.
10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명심하며 "도대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서로 토론하다가
11 예수님께 "왜 율법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12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쓰여 있느냐?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성경대로 엘리야가 벌써 왔으나 예언된 대로 사람들이 그에게 갖은 학대를 하였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심

14 그들이 돌아와 보니 남아 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15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크게 놀라며 모두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16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자
17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18 귀신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 데서나 넘어져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온 몸이 뻣뻣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9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20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자 아이가 땅에 엎어져 뒹굴며 거품을 내기 시작했다.
21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22 귀신이 자주 아이를 불과 물 속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23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24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였다.
25 예수님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벙어리와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호통을 치셨다.
26 그러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켜 놓고 나갔고 아이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말하였다.
27 그러나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
28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29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귀신은 [1]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하고 대답하셨다.
30 예수님의 일행은 그 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셨다.
31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32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33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는 도중에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으나
34 그들은 누가 가장 위대하냐 하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35 예수님은 앉으신 후 열두 제자를 불러 놓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36 그리고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1]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2]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38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말하자
39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곧바로 나를 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41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죄 짓게 하는 사람은 [1]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43 네 손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의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구자로 [2]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44 (없음)
45 네 발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46 (없음)
47 네 눈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48 [3]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9 "[4]제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모든 사람은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50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소금의 우정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결혼과 이혼

10 예수님이 그 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과 같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2 이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3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4 "이혼 증서를 써 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5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법을 정한 것이다.
6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7 그래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8 두 사람이 한몸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

[1] 원문에는 이 구절에 쓰인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 [2] 원문에는 '생명에' [3] 어떤 사본에는 48절과 같은 문구가 44절과 46절에도 있다. [4] 또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10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묻자

11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1]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본처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며

12 또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13 그때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 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14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15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6 그러고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17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8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19 너는 [2]'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20 그러자 그는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였다.

21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 버렸다.

23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하고 말씀하셨다.

24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다.

25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26 그러자 제자들은 더욱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27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1] 또는 '버리고' [2] 출 20:12-16, 신 5:16-20

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28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자
29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와 [1]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30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백 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31 그러나 현재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지금 뒤떨어졌다가도 앞서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죽음을 예고하심

32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자 제자들이 놀라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은 다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불러 자기가 앞으로 당할 일을 이렇게 일러 주셨다.
33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2]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34 이방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5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였다.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36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37 "우리를 [3]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38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셔야 할 [4]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할 [5]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39 "예,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40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사람들의 것이다."
41 듣고 있던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자
42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43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44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6]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7]죄

[1] 또는 '기쁜 소식' [2]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3] 원문에는 '주의 영광 중에서' [4] 원문에는 그냥 '잔' [5] 또는 '침례' [6]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7] 또는 '몸값'

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46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들렀다가 군중들과 함께 그 곳을 나갈 때였다.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48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49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소경에게 "잘 됐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였다.

50 그러자 소경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

51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선생님, 눈,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소경이 대답하였다.

52 그래서 예수님이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루살렘 도착

1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 기슭,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며

2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 줄 것이다."

4 그래서 그들이 가서 문 밖 길거리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풀자

5 거기 섰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오?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물었다.

6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들이 허락하였다.

7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었다. 예수님이 나귀에 올라타시자

8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하고 들에서 푸른 나뭇가지를 꺾어다 길에 깔기도 하였다.

9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1]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10 앞으로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11 그 길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날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다.

13 약간 떨어진 곳에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

막

1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찬양의 외침이다.

을 보시고 예수님은 혹시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가셨으나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어서 잎사귀뿐이었다.
14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사람이 네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 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15 예루살렘에 이르시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16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17 그들에게 "[1]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18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19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
20 다음날 아침 그들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21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하자
22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23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26 [2](그러나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27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성전 뜰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와서
28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하고 따져 물었다.
29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30 요한의 [3]세례가 [4]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1] 사 56:7 [2] 어떤 사본에는 괄호 안의 구절이 없음. [3] 또는 '침례' [4] 원문에는 '하늘에서'

말해 보아라."
31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32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두렵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33 "우리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포도원 비유

12 그리고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틀을 놓을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운 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2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3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
4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갖은 모욕을 하였다.
5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여 버렸다.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6 주인에게는 이제 보낼 사람이 하나 밖에 없었는데 그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7 소작인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 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며
8 그를 잡아죽인 다음 포도원 밖에 내어버렸다.
9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10 너희는 [1]'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11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12 대제사장들과 [2]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렸다.

원수의 올무

13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14 물어 보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3]로마 황제에게 세금

[1] 시 118:22, 23 [2] 또는 '서기관들' [3] 원문에는 '가이사에게'

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15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1]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16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17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혀 버렸다.

18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19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 어느 곳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21 그리고 둘째가 형수와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그랬으며

22 일곱이 모두 그렇게 자식 없이 죽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3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24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25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26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2]'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27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28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29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3]'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주이시다.

30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1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4]'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32 그러자 그 율법학자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33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5]뜻을 다하

[1]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2] 출 3:6 [3] 신 6:4, 5 [4] 레 19:18 [5] 또는 '지혜'

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1]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모든 제물과 그 밖의 여러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4 예수님은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네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후부터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35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36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2]'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였다.

37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때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38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39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의 특석을 좋아한다.

40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3]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41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저마다 많은 돈을 넣는데

42 한 가난한 과부는 [4]렙돈 두 푼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43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44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미래에 대한 예언

13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굉장한 돌이지요!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하였다.

2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이 건물을 보고 웅장하다고 하느냐? 그러나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물었다.

4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5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1] 또는 '모든 번제물과' [2] 시 110:1 [3] 또는 '외식으로' [4] 1고드란트는 2렙돈, 곧 1데나리온의 1/64.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므로 만일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이 과부가 헌금한 돈은 한 고드란트, 즉 156원 정도가 된다.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6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7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8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9 "주의하여라. 너희는 [1]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맞을 것이다. 그리고 나 때문에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0 먼저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11 너희는 끌려가 조사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일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12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13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4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2]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15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며

16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17 그때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것이다.

18 너희는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19 그 때는 고난의 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고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0 만일 [3]하나님이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 주셨다.

21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22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23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둔다.

24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25 별들이 떨어지고 [4]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26 그때 사람들은 [5]내가 구름을 타고

[1] 헬 '수네드리온' (공회) [2] 또는 '서지 못할 곳에' [3] 원문에는 '주' [4] 또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5]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천사들을 보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내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28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1]내가 문 밖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내가 오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33 "정신 차리고 [2]깨어 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모른다.

34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35 그러므로 언제나 정신 차리고 있어라. 집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36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37 내가 너희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깨어 있어라!"

배신과 체포

14 이틀이 지나면 [3]유월절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죽일 방법을 의논하다가

2 "군중들이 난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3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다. 한 여자가 아주 값진 [4]나아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4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5 이 향유를 팔면 [5]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 하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다.

6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7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8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9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세상 어디든지 [6]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1] 또는 '그 때가' [2] 어떤 사본에는 '깨어서 기도하라' [3]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유대인의 기념일. [4] 감송향.
[5]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이 향유 값은 300만 원이 된다. [6] 또는 '기쁜 소식'

기억에 남을 것이다."

10 그때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제안하자

11 그들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 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12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다. 그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물었다.

13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14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라.

15 그러면 잘 준비된 이층 넓은 방으로 안내할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도록 하여라."

16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17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함께 그 집으로 가서

18 음식을 잡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19 제자들이 슬퍼하며 저마다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자

20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21 [1]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22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3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자 모두 그 잔을 돌려 가며 마셨다.

24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25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26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감람산으로 갔다.

27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2]'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28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29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1]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2] 슥 13:7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자
30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다.
31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다.
32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하시고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34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셨다.
35 그러고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빌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36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37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38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39 예수님이 다시 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0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몸둘 바를 몰랐다.
41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1]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때가 왔다.
42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
43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같이 왔다.
44 유다는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테니 그를 단단히 붙잡아 가시오" 하고 미리 암호를 짜 둔 후
45 곧 예수님께 나아와 "선생님"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46 그러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47 그때 예수님의 곁에 섰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48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1]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있으면서 가르칠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50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 버렸다.
51 그리고 한 청년은 베 홑이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잡히자
52 두른 것을 팽개치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베드로의 부인

53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자 다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였다.
54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가서 경비병들 틈에 끼어 불을 쬐고 있었다.
55 대제사장들과 [1]유대인 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전혀 찾지 못하였다.
56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말도 서로 맞지 않았다.
57–58 그때 몇 사람이 일어나 "저 사람이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이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다.
59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60 이때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네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61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네가 [2]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다시 물었다.
62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3]내가 [4]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63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64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65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마구 치며 [5]"예언자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고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넘겨 받더니 뺨을 쳤다.
66 한편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67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한패지요?" 하였다.
68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오!" 하고 부인하며 현관으로 나갔다. [6]그러자 닭이 울었다.
69 그 여종이 다시 베드로를 보고 곁

[1] 헬 '수네드리온' (공회) [2] 또는 '찬송받을 자의 아들' [3]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4] 또는 '권능자의' [5] 원문에는 '예언하라' [6]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에 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하였으나
70 베드로는 이번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었다.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하자
71 베드로는 [1]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정말 모릅니다" 하였다.
72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

재판과 처형

15 이른 아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2]율법학자들이 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한 후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겼다.
2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3 대제사장들이 갖가지 죄목을 붙여 예수님을 고소하자
4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사람들이 저토록 여러 가지로 너를 고소하는데 왜 한마디 변명도 없는가?" 하고 물었다.
5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않으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다.
6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
7 마침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로 갇혀 있는 폭도들 중에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다.
8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하라고 요구하자
9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 주기를 원하시오?" 하고 물었다.
10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 준 것을 알고 이렇게 물은 것이다.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충동하여 오히려 바라바를 요구하게 하였다.
12 그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오?"
13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14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묻자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15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바라바를 놓아 주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때린 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주었다.
16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 안에 있는 군본부로 끌고 가서 온 부대원을 모으고
17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

막

[1] 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2] 또는 '서기관들'

18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19 또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엎드려 절도 하였다.
20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후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그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군인들은 그를 보고 강제로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22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해골터'로 알려진 골고다로 가서
23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예수님께 드렸으나 받지 않으셨다.
24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눠 가졌다.
25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때는 오전 [1]9시경이었다.
26 예수님의 죄명이 적힌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27 그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박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매달았다.
28 [2](없음)
29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30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조롱하였다.
31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32 이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였고 함께 못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였다.
33 낮 [3]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이더니 무려 3시간 동안 계속 되었다.
34 오후 3시에 예수님은 "[4]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었다.
35 곁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잖아!" 하고 말하였다.
36 그때 한 사람이 달려가 [5]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다가 예수님의 입에 대며 "엘리야가 와서 내려 주나 보자" 하였다.
37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자
38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39 그러자 지켜 섰던 [6]장교는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였다.

[1] 헬 '제3시' [2] 어떤 사본에는 "'그가 범죄자처럼 되었다'라는 성경이 이루어졌다"가 있음. [3] 헬 '제6시' [4] 마 27:46에는 '엘리, 엘리' [5] 해면 동물의 섬유 조직(스폰지) [6] 원문에는 '백부장'(로마군 100명의 지휘관)

40 그리고 여자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41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42 그 날은 [1]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다. 그래서 날이 저물자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다. 그는 덕망 높은 의회 의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44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미심쩍어서 장교를 불러
45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었다.
46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린 후 준비한 고운 모시 천으로 싸서 바위를 쪼아 내어 만든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다.
47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 둔 곳을 지켜 보고 있었다.

주님이 부활하심

16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료를 사 두었다.
2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3 "무덤 입구를 막아 둔 돌을 누가 굴려 줄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4 그러나 가서 보니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5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지 않겠는가! 여자들이 그를 보고 놀라자
6 그 청년이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 모양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자리이다.
7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알려 주어라."
8 여자들은 무서워 떨며 정신 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으나 겁에 질려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9 [2]안식일 다음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10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했으나
11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12 그 후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이 소식을

[1] 또는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 [2] 가장 믿을 만한 두 고대 사본에는 9-20절이 없다.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도 믿지 않았다.

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셨다.

15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16 믿고 [1]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17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2]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18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19 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20 [3]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누가가 기록한 기쁜 소식 (누가복음)

- **저자** 누가. 의사 출신으로 바울의 절친한 동역자. 사도들의 전도 기록의 저자이기도 하다.
- **연대** A. D. 60–62년경(사도들의 전도 기록보다 앞선 시기인 바울의 제1차 로마 투옥 당시) 기록.
- **목적**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알려 준다. 둘째,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를 위시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전해 준다.
- **개요** 1장–4:13 : 인자의 탄생과 어린 시절. 4:14–9:50 : 인자의 세례, 시험당함, 갈릴리 사역. 9:51–19:27 : 인자의 배척당함. 19:28–23장 : 인자의 수난과 죽음. 24장 : 인자의 부활.

1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4]예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전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3 나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또는 '침례' [2] 또는 '새 방언' [3] 몇몇 사본과 고대 역본에는 9절과 10절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 말이 20절 끝에 첨가되어 있다. "그 여자들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부탁받은 모든 것을 간단하게 전해 주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영원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셨다." [4] 원문에는 '로고스'(말씀)

4 그래서 내가 각하께서 이미 들으신 일들이 사실임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드립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남

5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 아비야 반에 사가랴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다.
6 이들 부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으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빈틈없이 지켰다.
7 그러나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몸이어서 그들에게는 아기가 없었고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많았다.
8 사가랴가 자기 반의 차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였다.
9 제사장직의 관습대로 제비를 뽑은 결과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10 그리고 그가 분향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11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쪽에 서자
12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다.
13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고 불러라.
14 너도 기쁘고 즐겁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15 그 아기는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1]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16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 그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2]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의 지혜를 갖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18 사가랴가 천사에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19 천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리라고 나를 보내셨다.
20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1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전 안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22 사가랴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하지 못하므로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사람들에게 손짓만 하고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다가
23 그의 직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집

눅

[1] 어떤 역본에는 '태어나자마자' [2] 말 4:6

으로 돌아갔다.

24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하여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25 "이처럼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나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하였다.

마리아에게 아들을 약속함

26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27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28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처녀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였다.

29 마리아는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30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31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32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33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35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네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여섯 달이나 되었다.

37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38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떠나갔다.

39 그 후에 마리아는 유대 산골 사가랴가 사는 마을로 급히 가서

40 엘리사벳을 방문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가 뛰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42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네 태중의 [1]아기도 복받은 분이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44 네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다.

45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46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1] 원문에는 '열매'

47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48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이라.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49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그의 이름 거룩하여라!
50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손 대대로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51 그가 권능의 팔을 펴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52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지만
낮고 천한 사람들은 높여 주셨네.
53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네.
54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자비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그를 도우셨으니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었네."
56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세례 요한의 출생

57 엘리사벳은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다.
59 아기가 난 지 8일 만에 [1]할례식이 베풀어졌다. 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사가랴로 부르려고 하였다.
60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아니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61 사람들이 "친척 중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하며
62 사가랴에게 손짓으로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63 사가랴가 필기 도구를 달라고 하여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64 바로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65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고 또 이 소문이 온 유대 산골에 쫙 퍼졌다.
66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모두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는데 이것은 주의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하였기 때문이었다.
67 아기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예언하였다.
68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2]죄에서 건져 주셨고
69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3]구원의 주를 일으키셨으니

눅

[1] 포피를 자르는 의식. [2] 또는 '속량하시며' [3] 원문에는 '구원의 뿔'

70 오래 전에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1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라.
72 그가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73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엄숙하게 맹세하심으로
74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 내고
75 우리가 주 앞에서
일평생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76 "아가야,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주님보다 미리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77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얻는
구원의 길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78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된 것이니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를 찾아와
79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추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리라."
80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마음이 굳세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예수님의 탄생

2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 이 인구 조사는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3 그래서 사람들은 본적지에 등록하려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4 요셉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마을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5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본적지에 등록하러 갈 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중이었는데 6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 날이 찼다. 7 여관에는 사람이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8 바로 그 부근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9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10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11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1]그리스도 주님이시다.

[1]아람어의 '메시아'와 같은 말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12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갓난아기를 볼 것이다."
13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14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 주신 일을 보자" 하며
16 달려가 보니 갓난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있었다.
17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18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의 말에 놀라는 표정이었으나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하였다.
20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21 아기가 난 지 8일 만인 [1]할례식 날 천사가 전에 일러 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22 모세의 법대로 아기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23–24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2]"첫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려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3]"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25–26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뵈올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27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자 마침 부모가 정결 의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28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29 "주권자이신 주님,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놓아 주셔서 내가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 내 눈으로 직접 본 주님의 이 구원은
31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으로
32 이방인들에게는 [4]주님의 뜻을 보여 주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된 것입니다."
33 그 부모는 아기에 대한 말을 듣고 신기하게 여겼다.
34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

[1] 포피를 자르는 의식. [2] 출 13:2, 12 [3] 레 12:8 [4] 원문에는 '계시를 위한 빛'

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35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36 또 안나라는 나이 많은 예언자가 있었다. 그녀는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었는데 결혼하여 7년 동안 살다가

37 과부가 되었다. 그로부터 그녀는 [1]여든 네 살이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38 마침 이 시간에 그녀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2]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나사렛 귀환

39 아기의 부모는 율법에 따라 모든 의식을 마치고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40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나 튼튼해지고 지혜가 넘쳤다.

41 해마다 [3]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42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전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43 명절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부모는 이것도 모르고

44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보았다.

45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46 그들은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으며

47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의 총명함과 대답하는 말에 감탄하였다.

48 그리고 그의 부모도 그를 보고 놀랐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무척이나 애썼단다" 하자

49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50 그러나 부모는 그 말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51 그러고서 예수님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52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요한의 전도 시작

3 로마의 티베리우스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가 되던 해에 본디오 빌

[1] 이것은 '과부 된 지 84년'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2] 원문에는 '예루살렘의 구속' [3]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유대인의 기념일.

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은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지방의 왕으로 있었으며
2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바로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들려왔다.
3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1]세례를 전파하였다.
4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다. [2]"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5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해지며
6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7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3]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8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 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그리고 속으로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9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10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1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갖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12 세무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13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하였다.
14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하고 대답하였다.
15 백성들은 [4]메시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혹시 요한이 그가 아닌가 하고 모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6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곧 오시는데 나는 그 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17 자기 타작 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1]또는 '침례' [2]사 40:3-5 [3]또는 '진노' [4]또는 '그리스도'

키질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18 그 외에도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19 그러나 헤롯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과 그 밖에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도

20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둬 버렸다.

21 모든 사람들이 [1]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22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님의 족보

23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신 때는 30세쯤 되셨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2]헬리,

24 헬리의 아버지는 맛닷, 맛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얀나, 얀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다.

25 요셉의 아버지는 맛다디아, 맛다디아의 아버지는 아모스, 아모스의 아버지는 나훔, 나훔의 아버지는 [3]에슬리, 에슬리의 아버지는 낙개였다.

26 낙개의 아버지는 마앗, 마앗의 아버지는 맛다디아, 맛다디아의 아버지는 서머인, 서머인의 아버지는 요섹, 요섹의 아버지는 요다였다.

27 요다의 아버지는 요아난, 요아난의 아버지는 레사, 레사의 아버지는 스룹바벨,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4]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네리였다.

28 네리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앗디, 앗디의 아버지는 고삼, 고삼의 아버지는 엘마담, 엘마담의 아버지는 에르였다.

29 에르의 아버지는 예수, 예수의 아버지는 엘리에서, 엘리에서의 아버지는 요림, 요림의 아버지는 맛닷, 맛닷의 아버지는 레위였다.

30 레위의 아버지는 시므온, 시므온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요남, 요남의 아버지는 엘리아김이었다.

31 엘리아김의 아버지는 멜레아, 멜레아의 아버지는 멘나, 멘나의 아버지는 맛다다, 맛다다의 아버지는 나단,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이었다.

32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5]살몬,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이었다.

33 나손의 아버지는 암미나답, [6]암미나답의 아버지는 람, 람의 아버지는 헤스론,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였다.

34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

[1] 또는 ‘침례’ [2] 또는 ‘엘리’ [3] 또는 ‘헤슬리’ [4] 헬 ‘살라디엘’ [5] 또는 ‘살라’ [6] 어떤 사본에는 ‘암미나답의 아버지는 아드민, 아드민의 아버지는 아르니’로 되어 있는 등 여러 사본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었다.
35 나홀의 아버지는 스룩, 스룩의 아버지는 [1]르우, 르우의 아버지는 벨렉, 벨렉의 아버지는 [2]에벨, 에벨의 아버지는 [3]셀라였다.
36 셀라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아르박삿, 아르박삿의 아버지는 셈, 셈의 아버지는 노아,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다.
37 라멕의 아버지는 므두셀라, 므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버지는 가이난이었다.
38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시험받으심

4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2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그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몹시 시장하셨다.
3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4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4]'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쓰여 있다."
5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면서
6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7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8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5]'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고 쓰여 있다."
9 또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10 성경에는 [6]'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11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12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7]'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고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13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8]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나갔다.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심

14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 소문이 사방

[1] 헬 '라가우' [2] 또는 '헤버' [3] 헬 '살라' [4] 신 8:3 [5] 신 6:13 [6] 시 91:11, 12 [7] 신 6:16 [8] 원문에는 '적절한 시기까지 그를 떠나갔다'

에 퍼졌다.
15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16 예수님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17 이사야의 예언서를 받아 이렇게 쓰인 곳을 찾아 읽으셨다.
18 [1]"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2]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3]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 주며
19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0 예수님이 그 책을 덮어 회당 직원에게 되돌려 주고 앉으시자 그 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예수님에게로 쏠렸다.
21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22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다.
23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는 속담을 들어 너희가 들은 일, 곧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이 곳 고향에서도 해 보라고 나에게 말할 것이다.
24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25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나라에 큰 흉년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거기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26 하나님께서는 오직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27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28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29 일어나 예수님을 산 위에 세워진 그 마을 밖 벼랑까지 끌고 가서 던져 버리려고 하였다.
30 그러나 예수님은 의연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 버리셨다.
31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자
32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33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34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1] 사 61:1, 2 [2] 원문에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3] 대부분의 번역본에는 이 말이 빠져 있다.

눅

하고 외쳤다.

35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자 귀신이 사람들 앞에 그를 내동댕이치고 나가 버렸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36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권위와 능력으로 명령하니 귀신들이 당장 쫓겨 나가는군!" 하며 수군거렸다.

37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일대에 널리 퍼졌다.

38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39 예수님이 여자를 굽어보시며 열병을 꾸짖으시자 곧 열이 내리고 시몬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40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

41 그리고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외치며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님이 [1]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42 날이 밝자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 외딴 곳으로 가셨다. 한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자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43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44 그리고서 예수님은 계속 [2]유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제자들을 부르심

5 예수님이 [3]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려왔다.

2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3 그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게 하시고 앉아서 군중을 가르치셨다.

4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하시자

5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 보겠습니다" 하고

6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7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 달라고 손짓하였다. 그들이 와서 함께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8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1]곧 '메시아' [2]어떤 사본에는 '갈릴리' [3]곧 '갈릴리 바닷가'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 하였다.

9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10 또 그의 동업자들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자

11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병을 고치심

12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계실 때였다. 온 몸에 문둥병이 번진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13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

14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15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다.

16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17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1]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셨다.

18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인 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19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뚫어 병자를 침대째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20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21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수군거렸다.

22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23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24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네 침구를 걷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25 그러자 그는 즉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침구를 걷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26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나님을 찬양

[1] 또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하면서도 두렵다는 듯이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다!" 하고 감탄하였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심

27 그 후에 예수님이 나가시다가 세관에 레위라는 세무원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28 그는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29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자 많은 세무원들과 그 밖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30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1]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은 세무원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따졌다.

31 예수님은 [2]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32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33 그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34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35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 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36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찢어 낸 천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37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38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39 묵은 포도주를 마셔 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주인

6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

2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째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시오?" 하고 따져 물었다.

3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4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차림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1] 또는 '서기관들' [2] 암시됨(마 9:12, 막 2:17 참조).

않았느냐?"

5 그러고서 예수님은 "[1]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6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7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는가를 지켜 보고 있었다.

8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불구자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자 그가 앞으로 나왔다.

9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 물어 보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10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네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오그라든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11 그러나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없애 버릴 방법을 의논하였다.

열두 제자를 뽑으심

12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13 날이 밝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그 중에 열둘을 뽑아 [2]사도라고 부르셨다.

14 이 열두 사도는 베드로라고도 한 시몬, 시몬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15 마태,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 당원 시몬,

16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사람 유다였다.

17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는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바닷가 두로와 시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8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와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9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분을 만지려고 하였다.

20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21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22 사람들이 [3]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모욕하며 너희 이름을 더럽힐 때 너희는 행복하다.

23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와 같이 학대하였다.

24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를 이미

[1]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2] '보냄을 받았다'는 뜻. [3]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다 받았다.

25 지금 배부르게 먹고 지내는 자들아, 불행하게도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불행하게도 너희는 슬퍼하며 울 것이다.

26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칭찬하였다.

27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28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29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 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30 네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하지 말아라.

31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32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33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34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 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되돌려 받을 줄 알면 빌려 준다.

35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36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37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죄인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38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39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40 학생이 선생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으나 완전히 다 배우고 나면 그 때에는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41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42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43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44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45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46 "너희가 나를 보고 [1]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47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48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쳐도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49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런 집은 곧 무너져 크게 파괴되고 만다."

두 가지 놀라운 기적

7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2 그때 어떤 [2]장교의 신임받는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3 장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셔서 그의 종을 좀 고쳐 달라고 간청하였다.
4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도 합니다.
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6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장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7 그래서 감히 나가 뵈올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8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9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갸륵하게 여기시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10 장교가 보낸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나아 있었다.
11 [3]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따라갔다.

[1] 암시됨. [2] 원문에는 '백부장' (로마군 100명의 지휘관) [3] 어떤 사본에는 '이튿날'

12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
13 주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셨다.
14 그리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다. 그때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15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 주셨다.
16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17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부근에 널리 퍼졌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18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요한에게 말하자
19 요한은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게 하였다.
20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1]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21 그때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다가
22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23 그리고 [2]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 주어라."
24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26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사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
27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는 [3]'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28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눅

[1] 또는 '침례자' [2] 또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3] 말 3:1

29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세무원들까지도 이미 요한의 [1]세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요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30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31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이 시대 사람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무엇과 같을까?
32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상여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33 [2]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가 '그는 귀신 들렸다' 하더니
34 [3]내가 와서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세무원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하고 말한다.
35 그러나 [4]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용서받은 여자

36 한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을 때
37 그 마을에 사는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38 예수님의 뒷발치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러고서 그 여자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거기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39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은 이것을 보고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쯤은 알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40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41 "돈놀이하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5]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42 둘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돈놀이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43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하시고
44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45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않았으나 이

[1] 또는 '침례' [2] 또는 '침례자' [3]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4] 또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5]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만일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500데나리온은 500만 원, 50데나리온은 50만 원이 된다.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췄다.
46 너는 내 머리에 아무 기름도 발라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47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48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49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남의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50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이야기

8 그 후에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열두 제자도 동행하였다.
2 또 악한 귀신들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들 중에는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3 헤롯왕의 재산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다.
4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모여들어 마침내 큰 군중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5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그리고
6 어떤 씨는 [1]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나왔으나 물기가 없어 말라 버렸다.
7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 그 기운을 막았다.
8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9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10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11 "이 비유의 뜻은 이렇다: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2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가리킨다.
13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

눅

1 원문에는 '바위'

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14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 [1]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15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16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두거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17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고 드러나기 마련이다.

18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9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나 군중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20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였다.

21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폭풍을 잔잔케 하심

22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는데

23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잠이 드셨다. 그때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24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자 폭풍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다.

25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을 보고 명령해도 복종하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26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였다.

27 예수님은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그 도시에 사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았고 집을 뛰쳐나와 공동 묘지에서 살았다.

28 그가 예수님을 보자 소리지르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29 그것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귀신이 자주 그를

[1] 또는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

사로잡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고 지키는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30 예수님이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1]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31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께 제발 [2]무저갱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32 마침 그 곳 산에는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 귀신들은 돼지떼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34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것을 보고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이 일을 말하자
35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36 그 일을 지켜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자
37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되돌아가려고 배를 타셨다.
38 그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를 돌려 보내시며
39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곧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온 마을에 알렸다.

다시 살리심

40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영접하였다.
41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42 이것은 열두 살쯤 되는 그의 외딸이 죽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군중들이 마구 밀쳤다.
43 그때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3](그녀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하느라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였으나) 그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4 그 여자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흐르던 피가 즉시 멎었다.
45 이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물으시자 모두 모른다고 하였고 [4]베드로는 "주님, 사람들

[1] 헬 '레기온' (1레기온은 6,000명으로 편성) [2] 헬 '아뷔소스' (밑 없는 깊은 구렁) [3] 어떤 사본에는 괄호 안의 구절이 없음.
[4] 어떤 사본에는 '베드로와 및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46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으니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47 그 여자는 더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 그러고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진 이유와 어떻게 해서 즉시 낫게 되었는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48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1]낫게 하였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49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였다.
50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51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소녀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52 사람들은 모두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자
53 사람들은 소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54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고 외치셨다.
55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영이 돌아와 그녀는 즉시 일어났다.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56 소녀의 부모는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9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불러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2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3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식량이나 돈이나 여분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5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그들에 대한 증거를 삼아라."
6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 주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7 한편 헤롯왕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이것은 죽은 요한이 다시

[1] 원문에는 '구원하였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8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옛 예언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9 그러나 헤롯은 "내가 분명히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렇다면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
10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새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11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떠난 것을 알고 뒤따라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맞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병자들도 고쳐 주셨다.
12 날이 저물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 숙소도 찾고 음식도 사 먹게 하십시오. 여기는 벌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13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자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인데 먹을 것을 사 오지 않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하였다.
14 모인 군중은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약 50명씩 떼지어 앉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15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여 사람들이 모두 앉았다.
16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였다.
17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광주리나 거뒀다.
18 어느 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19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1]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0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2]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시키시고
22 이어서 "[3]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4]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4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

눅

[1]또는 '침례자' [2]곧 '메시아' [3]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4]또는 '서기관들'

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1]자기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2]나도 내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27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

28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지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29 그런데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의 옷이 희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30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하였다.
32 그때 졸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 보니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다.
33 두 사람이 떠나려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다.
34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에 휩싸여 무서워하고 있는데
35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36 그 음성이 그친 후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그 때에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심

37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38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봐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39 귀신이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은 그에게 발작을 일으켜 거품을 내게 하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서야 겨우 떠나갑니다.
40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했으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41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보고 참아야 하겠느냐?" 하시고 [3]그 사람에게 "네 아들을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42 아이가 오고 있는 동안에도 귀신은 그를 거꾸러뜨려 발작을 일으켜 놓

[1] 또는 '자기를' [2]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3] 암시됨.

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낫게 하신 후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 주시자
43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 감탄하였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4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1]나는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45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이 숨겨져서 제자들은 깨닫기는커녕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46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47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고
48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49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말하자
50 예수님이 그에게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51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52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은 가다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로 들어갔다.
53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54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2]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 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으나
55 [3]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56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57 그들이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58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59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였다.
60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4]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61 또 다른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하자

눅

[1]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2] 어떤 사본에는 이 말 앞에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이 더 있다. [3] 어떤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이 더 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정신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다. 나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 [4] 원문에는 그냥 '죽은 사람들'

62 예수님은 그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치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전도자의 각오

10 그 후 주님은 [1]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둘씩 짝지어서 자기가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시며

2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하여라.

3 자, 출발하여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4 너희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말며 [2]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 주어라.

6 만일 [3]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7 너희는 한집에 머물면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는 이집 저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8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차려 주는 음식을 먹고

9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하라.

10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외쳐라.

11 '우리는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까지 떨어 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4]심판 날에는 소돔이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13 "고라신아, 벳새다야,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삼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14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15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5]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16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며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17 72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18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1] 어떤 사본에는 '70인' [2] 원문에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3] 원문에는 '평안의 아들' [4] 원문에는 '저 날'
[5] 헬 '하데스'

19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젠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여라."
21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22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23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1]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 싶어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선한 사마리아인

25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26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27 그는 "[2]'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3]'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8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나
29 그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30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 두고 가 버렸다.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32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33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34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다.

[1] 원문에는 '눈' [2] 신 6:5 [3] 레 19:18

35 이튿날 그는 두 [1]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소' 하고 부탁하였다.
36 그러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그때 율법학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38 예수님의 일행이 [2]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였다.
39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하자
41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42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기도

11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다 마치시자 한 제자가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2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3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4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6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으나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하고 말하면
7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는 없네' 하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

[1]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2] 또는 '길 갈 때에'

요한 것을 줄 것이다.
9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10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11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12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13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4 하루는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은 나가고 벙어리 되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으나
15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의 왕 [1]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고
16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7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18 너희는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서로 싸워 갈라진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19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2]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20 그러나 내가 [3]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21 강한 사람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22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달려들면 그가 믿고 있던 무기와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다.
23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 버리는 사람이다.
24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25 가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소제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26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다른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살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27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가운데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기른 분은 참 행복합니다!" 하고 외쳤다.
28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

[1] 헬 '바알세불' [2] 원문에는 '너희 아들들' [3] 원문에는 '하나님의 손가락'

다" 하고 말씀하셨다.

29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30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기적을 본 것처럼 [1]나도 이 세대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보일 것이다.

31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던 남방 여왕도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32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33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밀실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 두지 않고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4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고 네 눈이 나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35 그러니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아라.

36 너의 온 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위선자

37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한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는데

38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39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2]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40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았느냐?

41 [3]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42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 그러나 십일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43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44 너희는 [4]평평한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다니면서도 무덤인 줄 모른다."

45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46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1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2 또는 '강탈과' 3 또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4 또는 '보이지 않는 무덤'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47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48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사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행한 일을 인정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49 그래서 [1]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핍박할 것이다.'
50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당한 모든 예언자들의 피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1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까지 이 세대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52 너희 율법학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53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시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54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잡아갈 구실을 찾으려고 노리기 시작했다.

군중을 가르치심

12 그 사이에 서로 밟힐 만큼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인 위선을 주의하라.
2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3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도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속삭인 말도 옥상에서 큰 소리로 전파될 것이다.
4 나의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5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이겠다. 그분은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6 참새 다섯 마리가 [2]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7 참으로 그분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8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3]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9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

눅

[1] 원문에는 '하나님의 지혜' –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내가 말한다' 라고 할 수도 있다(마 23:34 참조). [2] 헬 '앗사리온 둘' (앗사리온은 소액의 동전 명칭) [3]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10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11 너희가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도 무슨 말로 어떻게 변명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12 그 시간에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13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더러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였다.
14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하시고
15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16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17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18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두겠다' 하였고
19 또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다.
20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 둔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21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22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23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24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25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1]키를 [2]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26 이처럼 사소한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까지 걱정하느냐?
27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 보지 못하였다.
28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 주시는데

[1] 또는 '목숨을' [2] 헬 '한 규빗' (약 45센티미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 주시지 않겠느냐?
29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30 이런 것들은 모두 [1]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31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32 "작은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33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것이다. 그 곳은 도둑이 가까이하는 일도 없고 좀먹는 일도 없다.
34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35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 놓고 깨어 있어라.
36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하라.
37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시중들 것이다.
38 주인이 [2]밤중이나 [3]새벽에 와서도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39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4]내가 올 것이다."
41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4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 관리인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냐?
43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44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45 그러나 그 종이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46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47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

[1] 또는 '세상 백성들이' [2] 원문에는 '2경'(밤 9-12시) [3] 원문에는 '3경'(밤 1-3시) [4]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지만
48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49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50 그러나 나는 [1]고난의 [2]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51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52 이제부터 한 집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분쟁할 것이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다툴 것이며
53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워 갈라질 것이다."
54 그런 다음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면 그대로 된다.
55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덥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된다.
56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57 "너희는 어째서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58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59 그렇게 되면 네가 [3]마지막 한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천국 문은 좁다

13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하였다.
2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3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5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6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두고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7 그래서 그가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째 왔으나 얻은

[1] 원문에는 '받을 세례가 있다' [2] 또는 '침례' [3] 또는 '호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이 무화과나무를 잘라 버려라. 왜 땅만 못 쓰게 하느냐?' 하자

8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1]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9 이듬해라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 버리시지요.'"

10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11 그때 그 곳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불구의 몸이 된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허리가 꼬부라져 전혀 펴지 못하였다.

12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 "여자야, 네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하시고

13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여자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14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군중들에게 "일하는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마시오" 하였다.

15 그때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6 그렇다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라도 매인 것에서 풀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자

17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18 그러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다 비유하면 될까?

19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것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20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 비유할까?

21 이것은 어떤 여자가 [2]한 포대의 밀가루에 섞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22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시면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23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2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5 집 주인이 일단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말할 것이다.

26 그때 너희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1] 원문에는 '금년에도' [2] 헬 '세 사톤' (약 22리터)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 마을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나
27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말할 것이다.
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너희만 밖에 쫓겨난 것을 보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29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30 그러나 지금은 뒤떨어져도 나중에 앞서고 지금 앞섰다가도 나중에 뒤떨어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31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였다.
32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그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다가 사흘이 되면 [1]일을 모두 마칠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33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계속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35 이제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너희가 [2]'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14 안식일에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려고 저명한 어느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 보았다.
2 그때 예수님 앞에는 [3]몸이 잔뜩 부어 오른 수종증 환자가 한 사람 있었다.
3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고 물어도
4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5 그들에게 "너희 [4]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해 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6 그러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특석에 앉지 말라

7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특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8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특석에 앉지 말아라.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1] 또는 '목적지에 이를 것이다' [2] 시 118:26 [3] 또는 '고창병' [4] 어떤 사본에는 '나귀'

9 주인이 네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할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너는 창피만 당하고 끝자리로 밀려날 것이다.
10 너는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모든 손님들 앞에서 체면이 설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2 그러고서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을 초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초대하여 네가 베푼 것을 도로 갚아 버릴지도 모른다.
13 너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절뚝발이와 소경들을 초대하여라.
14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이때 잔치석에 함께 앉아 있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하자
16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17 잔치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전하게 하였으나
18 그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하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 봐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19 또 한 사람은 '소 다섯 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20 다른 한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주인이 화가 잔뜩 나서 그 종에게 '너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를 모두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22 종이 주인에게 [1]돌아와 '주인님, 말씀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23 주인은 그에게 '너는 큰 길과 [2]시내 변두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하고 말하였다.
24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먼저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25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26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3]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

눅

[1] 암시됨. [2] 또는 '산울 가' [3] 원문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돈을 가졌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29 만일 기초 공사만 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
30 '이 사람이 시작만 해 놓고 끝내지 못했군' 하고 비웃을 것이다.
31 또 어느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병력 10,000명으로 2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왕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32 만일 당해 낼 수 없으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33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4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35 그것은 흙이나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내어버린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찾고 기뻐함

15 많은 세무원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2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다" 하고 투덜댔다.
3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4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은 양을 [1]찾아다니지 않겠느냐?
5 그러다가 찾으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6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잃은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7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아흔아홉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8 "또 어떤 여자에게 열 [2]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 가지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9 그러다가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10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11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12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

[1] 원문에는 이 말 앞에 '찾을 때까지'가 더 있다. [2] 1드라크마는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열 드라크마는 10만 원이 된다.

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 버렸다.
14 가진 것은 다 써 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15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붙여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17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18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 드려야지: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19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20 그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1]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2](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22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
25 "한편 밭에 나갔던 큰 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27 이때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8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으나
29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30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 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까

[1] 또는 '목을 안고' [2] 몇몇 초기 사본에만 이 말이 있다. [3] 원문에는 '당신의 아버지'

지 잡으셨습니다.'
31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32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눅

후한 회계

16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 관리인 하나가 있었다. 주인은 그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2 그를 불러 물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맡길 수 없으니 지금까지 네가 맡아 하던 일을 다 정리하라.'
3 그러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고…….
4 옳지,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반갑게 맞아 주겠지.'
5 그리고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먼저 온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6 그가 '감람기름 [1]100말입니다' 하자 그 재산 관리인은 그에게 '어서 앉아 이 증서에 5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7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 하고 묻자 그는 '밀 [2]100섬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재산 관리인은 그에게 '당신의 이 증서에 다 8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8 주인은 옳지 못한 이 재산 관리인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이것은 [3]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4]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10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11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 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늘의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1] 헬 '100바트' (1바트는 약 22리터) [2] 헬 '100고르' (1고르는 10바트) [3] 원문에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시대에 있어서는' [4] 원문에는 '불의의 재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14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자

15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곧잘 옳은 체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16 율법과 예언자들의 [1]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17 그러나 율법의 작은 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18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

부자와 나사로

19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2]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스럽게 살았다.

20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부스럼투성이의 거지가 누워 있었다.

21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려 하자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22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23 부자가 [3]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24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25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 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26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7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 주십시오.

28 내 형제가 다섯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29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30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눅

[1] 원문에는 ‘시대’라는 말이 없다. [2] 원문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3] 헬 ‘하데스’

여,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31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17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세상에는 죄 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2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도 죄 짓게 하면 [2]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4 그가 하루 일곱 번이나 네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믿음과 감사

5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자
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7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8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네가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9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11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12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문둥병자 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13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14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15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16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이때 예수님은 "열 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시고

[1] 암시됨. [2] 원문에는 이 구절에 쓰인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

19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준비하고 기다려라

20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1]안에 있기 때문이다."
22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2]단 하루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올 것이다.
23 또 사람들이 너희에게 [3]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거나 좇아다니지 말아라.
24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저편까지 비치듯이 [4]내가 오는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25 그러나 나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26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27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자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28 또 내가 올 때에는 롯의 시대와도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파종하고 집을 지었지만
29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30 내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럴 것이다.
31 그 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32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33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자기 생명을 [5]버리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34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그 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 둘 것이며
35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 둘 것이다.
36 [6](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 둘 것이다.)"
37 그때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자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항상 기도하라

1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눅

[1] 또는 '가운데' [2] 원문에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3] 암시됨(마 24:23). [4]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5] 원문에는 '잃는' [6] 어떤 사본에는 괄호 안의 말이 없다.

2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3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 달라고 애원하였다.
4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5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6 그러고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7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 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9 또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10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무원이었다.
11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12 나는 일 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십일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나
13 세무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14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무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5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 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16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17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18 한 [1]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9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왜

[1] 또는 '관원'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20 너는 [1]'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21 그러자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였다.
22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3 그러나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24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25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26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27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28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자
29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30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31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2]내게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32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 뱉고
33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4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35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다.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36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37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고 말해 주었다.
38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39 앞서 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눅

[1] 출 20:12-16, 신 5:16-20 [2] 원문에는 '인자에게'

40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을 데려오라고 하셨다. 소경이 가까이 왔을 때
41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주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42 그래서 예수님이 "오냐,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43 그가 곧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함

19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2 마침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며 부자였다.
3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키가 작은 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4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1]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5 예수님이 그 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6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7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다니" 하며 모두 수군거렸다.
8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9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10 [2]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열 므나의 비유

11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들어
12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13 그래서 그는 열 명의 종을 불러 한 [3]므나씩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하였다.
14 그러나 그의 백성은 그를 미워하여 대표단을 뒤따라 보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15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긴 종들이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그들을

[1] 암시됨. [2]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3] 1므나는 100데나리온, 곧 100일 동안의 품삯.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1므나는 100만 원이 된다.

불렀다.
16 그러자 첫번째 종이 와서 '주인님, 저는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7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네게 열 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하였다.
18 두 번째 종은 와서 '주인님, 저는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9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네게 다섯 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하였다.
20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므나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서 잘 간수하였습니다.
21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1]남의 것을 빼앗아 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십니다.'
22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한다. 너는 내가 남의 것이나 빼앗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24 그러고서 주인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25 그러자 사람들이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열 므나가 있습니다' 하였다.
26 그래서 주인이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7 그리고 너희는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루살렘 도착

28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29 감람산 기슭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며
30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풀어서 이리 끌고 오너라.
31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이 쓰십니다' 하여라."
32 그들이 가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다.
33 그래서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하고 물었다.
34 제자들은 "주님이 쓰십니다" 하고
35 그 나귀를 끌고 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다.
36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폈다.

눅

[1] 또는 '두지 않은 것을'

37 예수님이 감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하고 외쳤다.

39 그러자 군중 가운데 끼어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하였다.

40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41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시면서

42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43 네 원수들이 너를 향해 둑을 쌓고 사방으로 너를 포위하여

44 너와 네 자녀들을 [1]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 두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2]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전에서 된 일

45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46 "[3]'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47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48 그러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20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4]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2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였다.

3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물어 보겠다.

4 요한의 [5]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5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6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7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8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또는 '땅에 메어 치며' [2]또는 '권고받는 날' [3]사 56:7 [4]또는 '서기관' [5]또는 '침례'

9 그러고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에 가 있었다.
10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를 때려서 그냥 돌려보냈다.
11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하고서 그냥 돌려보냈다.
12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 종도 상처를 입혀 쫓아내 버렸다.
13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지. 아마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14 소작인들은 그를 보자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 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한 후
15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 그가 돌아와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자
17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1]'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
18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19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두려워 잡지 못하였다.
20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세심하게 지켜 보다가 첩자들을 보내 의로운 체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는 말에서 구실을 찾아 그를 총독의 권한에 넘기려고 하였다.
21 첩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옳은 것을 말하고 가르치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 우리가 [2]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23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24 "[3]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너라. 이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하고 되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25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26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는커녕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1] 시 118:22 [2] 원문에는 '가이사에게' [3]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28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30-31 둘째와 셋째도 형수와 살았으며 일곱 이 다 그렇게 하여 자식 없이 죽었고
32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33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34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35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1]하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36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37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 기사에서 주를 [2]'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하였다.
38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39 그때 율법학자 몇 사람이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자
40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41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42 다윗이 시편에서 직접 [3]'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43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였다.
44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45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46 "너희는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의 특석을 좋아한다.
47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4]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1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2 가난한 과부가 [5]렙돈 두 푼을 넣는 것을 보시고
3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4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

[1] 또는 '저 세상' [2] 출 3:6 [3] 시 110:1 [4] 또는 '외식으로' [5] 1렙돈은 1데나리온의 1/128이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므로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이 과부가 헌금한 돈은 156원 정도가 된다.

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미래에 대한 예고

5 몇몇 제자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고 감탄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내릴 날이 올 것이다."

7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8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때가 가까웠다' 하고 떠들어대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9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당장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10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11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12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괴롭히고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며 너희는 나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13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부터 변명할 말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15 내가 너희 대적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16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 너희를 [1]고발하여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게 할 것이며

17 또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가 인내하면 [2]너희 자신을 구할 것이다.

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21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곳을 떠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22 이 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다.

23 그때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 큰 고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3]형벌이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24 그들은 칼날에 죽음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

[1] 원문에는 '넘겨 주어' [2] 또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3] 또는 '진노'

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25 "그리고 해와 달과 별에 [1]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땅에서는 성난 바다와 파도 소리에 놀라 민족들이 불안에 떨 것이다.
26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니 이것은 [2]천체가 뒤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27 그때 사람들이 [3]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8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
29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와 그 밖의 모든 나무를 보아라.
30 새 순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31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32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33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4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에 그 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덮칠 것이다.
35 그 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36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라."
37 예수님은 매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서 지내곤 하셨다.
38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모여들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22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4]명절인 [5]유월절이 다가왔다.
2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아무 탈없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하고 있었다.
3 그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4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방법을 의논하자
5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6 그래서 유다는 그들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 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7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무교절이 되었는데 이 날은 유월절에 쓸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다.
8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

[1] 또는 '징조가 있겠고' [2] 또는 '하늘의 권능들이' [3]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4] 또는 '무교절' [5]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유대인의 기념일.

며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하셨다.
9 그들이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묻자
10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11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라.
12 그러면 잘 준비된 이층 넓은 방으로 안내할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도록 하라."
13 제자들이 가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최후의 만찬

14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15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무척 원하였다.
16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1]유월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17 그리고서 예수님은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어 마셔라.
18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19 예수님은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20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21 그러나 나를 파는 사람의 손이 내 손과 함께 식탁 위에 있다.
22 [2]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23 그러자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이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고 서로 물었다.
24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다.
25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은인'이라고 부른다.
26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3]나은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하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27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지위가 높으냐? 식탁에 앉아 먹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

눅

[1] 원문에는 그냥 '유월절이' [2] 원문에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3] 또는 '큰 자'

희 가운데 있다.
28 너희가 항상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내가 당한 시험을 함께 받았으므로
29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주어
30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31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32 그러나 네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33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
34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5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6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지갑이나 가방이 있는 사람은 가지고 다니고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37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1]'그가 범죄자처럼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내게 관한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38 그때 제자들이 "주님,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체포되심

39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40 예수님은 그 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42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43 그러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다.
44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45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46 "왜 잠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7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한 떼의 군중이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48 예수님은 그에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2]나를 파느냐?" 하고 말

[1] 사 53:12 [2]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씀하셨다.
49 함께 있던 제자들은 되어가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칼로 쳐 버릴까요?" 하고 물었다.
50 그러고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51 그러나 예수님은 [1]"그만두어라. 이만하면 됐다"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 고쳐 주셨다.
52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53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이며 [2]어두움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함

54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자 베드로도 멀찍이 뒤따라갔다.
55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있을 때 베드로는 그들 틈에 끼어 앉았다.
56 그때 여종 하나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이 사람도 그와 한패예요" 하였다.
57 그러나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를 모른다" 하고 딱 잡아떼었다.
58 조금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요?"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하고 말하였다.
59 한 시간쯤 지난 뒤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하자
60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다.
61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62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63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며
64 눈을 가리고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65 예수님께 갖은 모욕을 다 하였다.
66 날이 밝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3]의회를 열어 예수님을 의원들 앞에 세우고
67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하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며
68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69 그러나 이제부터는 [4]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70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1] 또는 '이것까지 허용하여라' [2] 원문에는 '어두움의 권세로다' [3] 헬 '수네드리온'(공회) [4] 원문에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71 그러자 그들은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1]이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을 다 들었다" 하고 외쳤다.

재판과 선고

23 그들이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2 이렇게 고소하였다. "[2]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3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4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군중을 향하여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소" 하였으나

5 그들은 억지를 부리며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이 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에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외쳐댔다.

6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오?" 하고 물어 본 뒤

7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지역에 속한 것을 알고 그에게 보냈는데 그때 마침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8 헤롯은 오래 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 보고 싶기도 했고 또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9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으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0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거기 서서 악착같이 예수님을 고소하자

11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후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 날 서로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

13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소집하고

14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직접 조사해 보았으나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를 찾지 못하였소.

15 헤롯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우리에게 되돌려보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죽을 짓을 한 일이 없소.

16 그러므로 매질하여 놓아 주겠소."

17 [3](없음)

18 그러자 군중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그 사람은 죽이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석방해 주시오!" 하고 외쳤다.

19 바라바는 성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로 갇혀 있는 죄수였다.

20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고 싶어서 군중들에게 다시 말했으나

21 그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십자

[1] 원문에는 '그가' [2] 또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3] 어떤 사본에는 17절로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가 있음.

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22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말하였다.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으므로 매질이나 해서 놓아 주겠소."
23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하자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다.
24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할 것을 선언하였다.
25 그리고 그는 그들이 요구한 사람, 곧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넘겨 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26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27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다.
28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29 앞으로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아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들이 행복하다' 하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30 그때 사람들이 높은 산을 향해 [1]'우리 위에 무너져라' 할 것이며 낮은 산을 향해 '우리를 덮어라' 할 것이다.
31 [2]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유대인들이야 무슨 일인들 당하지 않겠느냐?"

처형

32 다른 두 죄수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
33 그들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3]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두 죄수도 못박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매달았다.
34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자
35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4]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비웃으며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게 하라" 하였다.
36 그리고 군인들도 다가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 포도주를 주면서
37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하였다.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1] 호 10:8 [2] 원문에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3] 원문에는 '그들', 곧 예수님을 끌고 간 군중들을 암시하고 있다. [4] 또는 '관원들'

39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으나
40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였다.
42 그러고서 그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자
43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44 낮 [1]12시쯤 되어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이더니 오후 [2]3시까지 계속되었다.
45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다.
46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47 이 광경을 지켜 보고 있던 [3]장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분이었구나!" 하였고
48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49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서 이 일을 지켜 보았다.
50 의회 의원 가운데 착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51 그는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따르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52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53 그 시체를 내려 고운 모시 천으로 싸서 바위를 쪼아 내어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54 그 날은 [4]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는데 안식일이 곧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55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거기까지 와서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모셔 두었는가를 봐 두고
56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다시 살아나심

24 [5]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가 보니
2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
3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4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다.
5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1] 헬 '제6시' [2] 헬 '제9시' [3] 원문에는 '백부장' (로마군 100명의 지휘관) [4] 원문에는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5] '그 주간의 첫날'

"왜 살아 계시는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7 '[1]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고 하시지 않았느냐?"
8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9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열한 제자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10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알렸으나
11 그들은 이 말이 허튼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
12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허리를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모시 천만 놓여 있어서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13 바로 그 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11킬로미터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14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17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춰 섰다.
18 그때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계십니까?" 하였다.
19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이나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20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3]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22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24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도 무덤에 가 보고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25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

1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2 헬 '60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85미터) 3 또는 '관원들'

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시고
27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28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시자
29 그들이 강력하게 권하며 "저녁때가 되어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따라 들어갔다.
30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자
31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으셨다.
32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하고 서로 말하였다.
33 그러고서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34 주님이 정말 살아나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35 그래서 두 제자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36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1]"다들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시자
37 그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38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2]놀라며 의심하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자,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40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으나
41 그들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42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다.
43 예수님은 그 생선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44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시고
45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1] 원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되어 있는 이 인사말은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다. [2] 또는 '근심하며'

47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48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49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1]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2]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라."
50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근처로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51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시자
52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벅찬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53 계속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요한이 기록한 기쁜 소식 (요한복음)

- **저자** 요한.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수난 및 부활의 목격자인 사도.
- **연대** A. D. 70–95년경(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기 전) 기록.
- **목적**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육신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또한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전한다.
- **개요** 1:1–18 :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 1:19–4장 : 하나님 아들의 증거. 5–12장 : 하나님 아들의 사역과 배척당함. 13–17장 : 하나님 아들의 교훈. 18–21장 : 하나님 아들의 수난과 부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

1 [3]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2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4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5 이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두움이 이 빛을 [4]깨닫지 못하였다.
6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7 그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8 그는 빛이 아니었으며 다만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것뿐이었다.
9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1] 원문에는 '성령' 이란 말이 없고 그냥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으로 되어 있다. [2]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성에' [3] 원문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4] 또는 '이기지 못하였다'

10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11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12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14 [1]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세례 요한의 증언

15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외치며 증거하였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위대한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가 바로 이분이시다."
16 우리는 모두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다.
17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18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안에 계시는 [2]외아들이 그분을 알리셨다.
19 한번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어 보게 하였다.
20 그래서 요한이 조금도 숨기지 않고 "나는 [3]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하자 그들은 다시 물었다.
21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럼 [4]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요?" "나는 예언자도 아니다."
22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23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5]'주의 길을 곧게 하라' 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24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자들이
25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6]세례를 주시오?" 하고 물었다.
26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서 계신다.
27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하고 대답하였다.
28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29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1] 원문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2] 또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3] 아람어의 '메시아'와 같은 말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4] 원문에는 '그 예언자' [5] 사 40:3 [6] 또는 '침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30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위대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31 나도 이분을 몰랐으나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려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다."
32 그러고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였다. "나는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전에는 이분을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아라' 하고 일러 주셨다.
34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선택하심

35 이튿날 요한이 그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36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였다.
37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38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1]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고 되물었다.
39 그때 예수님은 "[2]따라오너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때는 오후 [3]4시쯤이었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41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형, 우리가 [4]메시아(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어!" 하고 말한 후에
42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43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벳새다 사람이었다.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셨어" 하고 말하자
46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였다. 그래서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였다.
47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요

[1] 헬 '랍비' [2] 또는 '와 보라' [3] 헬 '제10시쯤' [4]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라는 뜻.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48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49 그때 나다나엘이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선언하였다.
50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말한 것 때문에 네가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하시고
51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1]내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가나의 결혼 잔치

2 [2]이틀 후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갔다.
3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자
4 예수님은 "[3]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5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러 주었다.
6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돌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물 두세 [4]통 드는 크기였다.
7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시자 그들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
8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제 떠다가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자 하인들은 그대로 하였다.
9 잔치 책임자는 [5]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랐으나 그 것을 떠 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러
10 "흔히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었군요" 하였다.
11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12 그 후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무셨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심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14 예수님은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1]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2] 원문에는 '사흘 되던 날에' [3] 원문에는 '여자여' [4] 헬 '메트레테스'(1메트레테스는 약 39리터) [5] 또는 '포도주가 된 물'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
16 그러고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당장 치우고 앞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17 그러자 제자들은 [1]"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2]내 속에서 불타오릅니다"라고 쓰인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18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오" 하였다.
19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20 그러자 그들은 "46년이나 걸려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3일 안에 세우겠다는 말이오?" 하고 따져 물었다.
21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것이었다.
22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23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24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며
25 사람의 속 뜻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3]설명을 들으실 필요도 없었다.

한밤의 방문객

3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4]의회 의원이었다.
2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5]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4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5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6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7 너는 다시 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8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요

[1] 시 69:9 [2] 원문에는 '나를 삼키리라' [3] 원문에는 '증거' [4] 또는 '관원' [5] 또는 '위에서부터'

9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0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11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내가 세상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1]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15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6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17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18 그를 믿는 사람은 [2]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19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20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21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온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22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3]세례를 주셨다.
23 요한도 물이 많은 살렘 부근의 애논에서 세례를 주자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
24 이 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25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의식에 대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26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가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분, 곧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27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4]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28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이다.
29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1]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2] 또는 '정죄' [3] 또는 '침례' [4] 원문에는 '하늘에서'

신랑의 친구가 곁에 섰다가 그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고 있다.
30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31 "위에서 오시는 분은 그 무엇보다도 높은 분이시다. 땅에서 나는 사람은 땅에 속하여 세상 일을 말하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그 무엇보다도 높은 분이시다.
32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33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1]인정하였다.
34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35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다.
36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만 아들을 [2]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3]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

우물가의 여인

4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2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
3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해 가셨는데
4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5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르시게 되었다. 이 마을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고
6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 예수님은 여행에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낮 [4]12시경이었다.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8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다.
9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0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5]선생님,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씀입니까?
12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야

[1] 원문에는 '인쳤느니라' [2] 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 [3] 원문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4] 헬 '제6시' [5] 또는 '주여'

곱보다도 위대하십니까?"
13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15 "선생님,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16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17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18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 네 남편이 아니고 보면 너는 바른 말을 한 것이다."
19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1]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1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 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22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23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25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26 그러자 예수님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이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28 그 여자가 물통을 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29 "다들 와서 좀 보세요! 나의 과거를 죄다 말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자
30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31 한편 제자들이 "선생님,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자
32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33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의아스럽게 생각하였다.
34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

[1]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그리심산을 가리킨다. [2] 또는 '당신들 유대인들'

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35 너희는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1]눈을 떠서 들판을 바라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36 이미 추수하는 사람이 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사람과 거둬들이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7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사실이다.
38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라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고 있다."
39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죄다 말씀하셨다고 증거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40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곳에 머물러 달라고 하므로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다.
41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42 그들은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분이야말로 정말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오" 하였다.
43 이틀 후에 예수님은 그 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44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직접 말씀하셨다.
45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그 곳 사람들은 그분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이것은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46 예수님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셨다. 그 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47 그 신하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와서 다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48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너희가 기적과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49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50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거라. 네 아들은 살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
51 그는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52 병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다. 그러자 종들은 어제 오후 [2]1시경에 열

요

[1] 원문에는 '눈을 들어' [2] 헬 '제7시'

이 떨어졌다고 대답하였다.

53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네 아들은 살았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54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

생명은 안식일보다 더 귀함

요

5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2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그 둘레에는 행각 다섯 채가 서 있었다.

3 이 행각에는 많은 환자, 소경, 절뚝발이,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즐비하게 누워 [1](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4 그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곤 하는데 물을 휘저어 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았다.)

5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다.

6 예수님은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자 병이 벌써 오래 된 줄 아시고 그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7 그러자 그 환자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8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시자

9 그는 곧 병이 나아 자리를 거둬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10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당신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오" 하였다.

11 그가 "나를 고쳐 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던데요" 하자

12 "도대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요?" 하고 그들이 물었다.

13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 주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도 이미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었다.

14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자

16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17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므로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18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더

[1] 어떤 사본에는 괄호 안의 구절이 없다.

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19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은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이다.
20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 주신다. 그렇다. 아버지는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들에게 보여 주셔서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하실 것이다.
21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22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겨
23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도록 하셨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24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간 것이다.
25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26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갖게 하셨다.
27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1]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28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말아라. 죽은 사람들이 모두 아들의 음성을 듣고
29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30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그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31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그것은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다.
32 그러나 나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나는 그분의 증거가 참된 것으로 안다.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2]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34 하지만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5 요한은 타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빛 가운데서 잠시 기뻐하려고 하였다.
36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

요

[1]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2]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37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직접 나를 증거하셨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며
38 또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도 못한다. 이것은 그분이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39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40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4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43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도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기꺼이 맞아들일 것이다.
44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1]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를 고소할 사람은 너희가 희망을 걸고 있는 모세이다.
46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47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온 빵

6 그 후 예수님은 디베랴 [2]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3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
5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6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7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3]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8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1] 원문에는 '영광' [2] 또는 '호수' [3]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200데나리온은 200만 원이 된다.

9 "여기에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10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아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는 약 5,000명쯤 되었다.
11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 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12 사람들이 모두 실컷 먹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13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둬 보니 보리빵 다섯 개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14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외쳤다.
15 예수님은 그들이 강제로 자기를 잡아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16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바닷가로 내려가
17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았다.
18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19 제자들이 배를 저어 [1]4–5킬로미터쯤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배로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하자
20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21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곳에 다다랐다.
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남아 있던 군중들은 한 척밖에 없던 배로 예수님은 타시지 않고 제자들만 타고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23 그러나 디베랴에서 다른 배가 몇 척 왔는데 상륙 장소는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군중들이 빵을 먹던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24 군중들은 거기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25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물었다. "선생님, 언제 이 곳에 오셨습니까?"
26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27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이 [2]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인정한다는 도

[1] 헬 '약 25–30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85미터) [2]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장을 나에게 찍어 주셨다."

28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29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30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보여 줄 만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31 [1]'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그들을 먹였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32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하늘의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33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다."

34 "주님, 그런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35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6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39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40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41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42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하였다.

43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오는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45 예언서에는 [2]'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온다.

46 이것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47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

[1] 출 16:4, 느 9:15, 시 78:24 [2] 사 54:13

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48 나는 생명의 빵이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50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52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53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1]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54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그것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58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59 이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60 이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이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61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62 만일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 [2]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3]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64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며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65 그리고서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이미 말하였다."
66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67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

[1]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2] 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3] 원문에는 '영이요 생명이라'

으시자

68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69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70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 열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하고 말씀하셨다.

71 이것은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는 비록 열두 제자 중 하나였으나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었다.

목마른 자를 부르심

7 그 후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만 다니시고 유대 지방에는 다니고 싶어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2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3 예수님의 [1]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4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5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6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7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어도 나는 미워한다. 이것은 내가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8 너희는 어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올라가지는 않겠다."

9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10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셨으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가셨다.

11 명절이 되자 [2]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찾아다녔다.

12 그리고 군중들 가운데서 숙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어떤 사람은 "그는 좋은 사람이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는 백성을 속이고 있어" 하였다.

13 그러나 [3]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터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14 명절 기간이 거의 절반쯤 지났을 때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15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하고

[1] 또는 '형제들' [2] 원문에는 '유대인들이' [3] 원문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말하며 신기하게 여겼다.
16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18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 이 말에 군중들이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21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안식일에 한 가지 기적을 행했다고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1]할례를 주었다는 이유로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 옛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지만)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고 있다.
23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사람이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완전하게 고쳐 주었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24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표준으로 판단하라."
25 그때 어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당국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26 이 사람이 터놓고 말해도 그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니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27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난 곳을 알고 있지 않은가?"
28 그때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따로 계신다. 그분은 참되신 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29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30 그 말을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한 사람도 그분에게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1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행하신 것만큼 많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겠는가?"
32 바리새파 사람들은 군중들이 예수

[1]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들의 포피를 자르던 유대인의 의식.

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33 그때 예수님은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

34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5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건가?

36 우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또 그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갈 수도 없다니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37 [1]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2]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40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분이야말로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고

41 또 "이분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42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냐?"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43 이와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44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잡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5 성전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다.

46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47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였다. "너희도 꼬임에 빠졌느냐?

48 유대 당국자들과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었느냐?

49 율법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50 그때 그 곳에 있던 한 바리새파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찾아간 일이 있던 니고데모가

51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고 그가 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하자

52 그들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오?

[1] 원문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2] 원문에는 '배에서'

성경을 찾아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 어디 있소?" 하고 쏘아붙였다.

53 [1]그러고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간음한 여자가 용서받음

8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2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3 [2]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5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6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7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일어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계속 쓰셨다.

9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3]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둘씩 모두 가 버리고 예수님과 거기에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

10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하고 물으시자

11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12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13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하오" 하였다.

14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한다고 해도 내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15 너희는 [4]사람의 표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16 내가 만일 판단하더라도 내 판단이 옳은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는 참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요

[1] 여러 사본에는 7:53–8:11까지의 말이 없다. [2] 또는 '서기관들' [3]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말이 빠져 있다. [4] 또는 '육체를 따라'

18 내가 나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거해 주신다."
19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20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나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21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떠나간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22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하니 이 사람이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하자
23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24 그래서 내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나를 [1]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25 그때 그들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누군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26 내가 너희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시므로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 세상에 말한다."
27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28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가 [2]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3]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9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하신다.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셨다."
30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함

31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32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3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34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1] 또는 '그' [2] 원문에는 '인자를 든 후에' [3] 또는 '그'

35 종은 주인 집에서 영구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37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38 나는 내 [1]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39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하지 않느냐?
40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41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오."
42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이 곳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43 왜 너희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44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45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46 너희 중에 내게서 죄를 찾아낼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47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8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자
49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도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50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51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52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꾸하였다. "이제 보니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소. 아브라함도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의 말을 지

요

[1] 원문에는 '아버지와 함께'

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53 그렇다면 당신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단 말이오?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54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 아버지이시다.
55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생각에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57 이때 유대인들이 "당신은 아직 쉰 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하고 묻자
58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59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나면서 소경 된 사람을 고치심

9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셨다.
2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3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4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6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7 그에게 "실로암(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못에 가서 씻어라" 하셨다. 그래서 소경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
8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하자
9 어떤 사람은 "그래, 바로 그 거지야"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거지와 닮은 사람이야"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11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12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13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

게 데리고 갔다.
14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
15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자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시기에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은 아니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자
17 그들은 소경 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그는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8 유대인들은 그가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러
19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당신 아들이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20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21 어떻게 해서 지금 눈을 뜨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아이도 다 컸으니 직접 물어 보십시오.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 그 때는 이미 [1]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23 "이 아이도 다 컸으니 직접 물어 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24 그들은 소경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말하였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알고 있다."
25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소경이었던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이것입니다."
26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으며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27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28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을 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29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30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31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의 말은 들으시는 것으로

요

[1] 원문에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32 세상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33 이분이 만일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34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그를 쫓아내 버렸다.

35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 물었다. “네가 [1]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36 “선생님, 누가 그분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37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38 그러자 그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39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소경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40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오?” 하고 묻자

41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선한 목자

10 [2]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문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2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이다.

3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4 양떼를 다 불러낸 후에 목자가 앞서 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5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피해서 달아난다.”

6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7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8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므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꼴을 얻을 것이다.

10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1] 어떤 사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2] 암시됨.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1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12 삯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 버린다.
13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삯꾼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14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15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16 또 내게는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다.
18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 갈 자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가질 권한도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1]특권이다."
19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 의견이 엇갈렸다.
20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는데 어째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소?" 하였고
21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오.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소?" 하였다.

분명히 말해 주시오

22 예루살렘에 [2]수전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23 예수님은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24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3]궁금하게 할 셈이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였다.
25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했어도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26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27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28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29 그들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므로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31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다.
32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4]아

요

[1] 원문에는 '계명' [2] 주전 168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제우스의 제단을 쌓아 성전을 더럽혔는데 주전 164년 기슬르월(태양력 11-12월) 25일에 마카비가의 유다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여 헌당한 일을 기념하는 8일 동안의 절기. [3] 또는 '초조하게' [4] 또는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버지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너희에게 많이 했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33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오. 당신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인 체한단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요

34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1]'나는 너희가 신들이라고 말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35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으니 성경 말씀은 없앨 수 없다.

36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했다고 해서 어떻게 너희가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37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아라.

38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만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39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셨다.

40 예수님은 요한이 처음 [2]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41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요한이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어" 하고 말했으며

42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나사로의 죽음

11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사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있었다.

2 그는 마리아의 오빠였으며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여자였다.

3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4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5 예수님은 두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6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7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1] 시 82:6 [2] 또는 '침례'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자
9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낮은 열두 시간이 아니냐? 누구든지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10 밤에 다니면 그 사람에게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11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하고 말씀하셨다.
12 그때 제자들이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13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저 잠들어 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14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15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16 그때 [1]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17 예수님이 그 곳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4일이나 되었다.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3킬로미터 조금 못 되는 가까운 곳이었다.
19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20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을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21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22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압니다."
23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25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26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27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3]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28 이 말을 하고서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으신다" 하고 일러 주었다.
29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갔다.
30 예수님은 아직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
31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울려고 무덤으로 가는

[1] '쌍둥이' 라는 뜻. [2] 헬 '약 15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85미터) [3] 또는 '메시아'

줄 알고 뒤따라 나갔다.

32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말하였다.

33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34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자

35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때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모양이오" 하였고

37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하였다.

나사로를 살리심

38 예수님은 다시 탄식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39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날 것입니다" 하였다.

40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1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둘러선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43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크게 외치시자

44 죽었던 그가 손발이 베에 묶인 채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싸여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46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였다.

47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48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이오."

49 그러자 그들 중의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모르시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시오?"

51 가야바는 이 말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위해,

52 그리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

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53 그 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54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 가까이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

55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명절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미리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56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성전에 서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이 명절에 오시지 않을까요?" 하고 서로 물었다.

57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름

12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가셨다.

2 그 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손님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3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1]나아드 향유 약 [2]300그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리자 온 집 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

4 그러나 제자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5 "왜 이 향유를 [3]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하였다.

6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궤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 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7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8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9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온 것이다.

10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웠다.

11 이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떠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

군중이 예수님을 환영함

12 이튿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4]호산나! 주의

[1] 감송향. [2] 헬 '한 리트라'(327그램) [3]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이 향유 값은 300만 원이 된다. [4]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찬양의 외침이다.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에게 찬양을!" 하고 외쳤다.
14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15 [1]"시온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6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며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7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증거하였다.
18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19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것 보시오. 세상이 모두 저 사람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렸소" 하고 서로 말하였다.
20 명절에 예배드리러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21 그들은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22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여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였다.
23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2]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24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27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피하게 해 주소서. 그러나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습니다.
28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29 그러자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천둥 소리라고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30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31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1] 슥 9:9 [2]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하겠다.”
33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34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선생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란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묻자
35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두움이 덮치기 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
37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베푸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38 그래서 [1]“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라고 한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39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40 [2]“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41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였다.
42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아낼까 두려워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다.
43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이다.
44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45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47 누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한 바로 그 말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49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
50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일러 주신 그대로이다.”

요

[1] 사 53:1 [2] 사 6:10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

13 유월절 전날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2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이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넣었다.
3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4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6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 주시렵니까?"
7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8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9 "주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10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므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도 이와 같이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11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12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느냐?
13 너희는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14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15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16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을 수 없다.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18 나는 이 말을 너희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너희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1]'내 빵을 먹는 사람이 [2]나를 배반하였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19 내가 이 일을 미리 너희에게 일러 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0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자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1] 시 41:9 [2] 또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분을 영접하는 자이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21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몹시 괴로워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너희 중의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2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몰라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다.
23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예수님 품에 기대 누웠는데
24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물어보라고 하였다.
25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품에 기댄 채로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26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27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28 그러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왜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29 그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명절에 쓸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만 생각하였다.
30 유다는 빵 조각을 받자 즉시 밖으로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다.
31 유다가 나간 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1]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32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나에게 자기 영광을 곧 주실 것이다.
33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만 더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34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6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37 그때 베드로가 "주님,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하고 큰소리 쳤다.
38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1]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14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4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5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였다.
6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다."
8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자
9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느냐?
10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12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약속된 성령님

15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1]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17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18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 두지

[1] 또는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않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19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21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22 그때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면서도 어째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23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1]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24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26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27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28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29 내가 이 일을 미리 너희에게 말해 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0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접근해 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는 [2]내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31 세상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참 포도나무

15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2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요

[1] 원문에는 '우리가' [2] 또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4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5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7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1]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 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11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12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13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이다.
15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17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20 너희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21 그들은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다는

[1] 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유로 너희를 그처럼 괴롭힐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기 때문이다.

22 내가 그들에게 와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23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24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지만 이제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아버지를 미워한다.

25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1]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26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호자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시겠지만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증거해야 한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16 "너희가 [2]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2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사실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3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것이다.

4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미리 해 두는 것은 그런 때가 오면 너희가 내 경고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5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도 너희는 내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않고

6 오히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슬픔에 잠겨 있다.

7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3]보호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8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9 '죄에 대하여' 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10 '의에 대하여' 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11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

[1] 시 35:19, 69:4 [2] 또는 '실족지 않게' [3] 또는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14 그분은 [1]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 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17 그러자 제자 중의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또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18 더욱이 '조금 있으면' 이란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19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고자 하는 뜻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20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슬픔은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21 해산할 날이 가까워진 여자는 겪어야 할 진통 때문에 근심한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고통을 잊게 된다.
22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는 너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3 그 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2]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24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25 "지금까지는 내가 비유로 말했으나 때가 되면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겠다.
26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7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를 사랑하신다.
28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29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으시니

[1] 또는 '내 것을 가지고' [2] 또는 '묻지 않을 것이다'

30 이제 우리는 더 묻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31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제는 믿느냐?
32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나를 혼자 버려 둘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벌써 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므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33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

17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2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3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4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5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6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7 지금은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을 확실히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9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0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도 다 내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11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으니 이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13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 나의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1]악한 자에게서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19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20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1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22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3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24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25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으며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26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심

18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2]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2 거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어서 그분을 팔아 넘기려는 유다도 알고 있었다.

3 유다가 한 떼의 로마 군인들과 그

[1] 곧 '마귀' [2] 또는 '시내'

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 곳에 왔는데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4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오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5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6 그들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뒷걸음을 치다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7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8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9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10 이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11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12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1]지휘관과 유대인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묶어서
13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으며
14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살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조언해 준 사람이었다.
15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뒤따랐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그 집 안뜰까지 들어갔으나
16 베드로는 혼자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그 제자는 다시 나와 문지기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17 이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오?" 하고 묻자 "나는 아니오" 하고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18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우고 둘러서서 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19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묻자
20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터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내가 언제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고 비밀리에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1] 원문에는 '천부장' (로마군 1,000명의 지휘관)

21 어째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은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22 그러자 곁에 섰던 한 경비병이 예수님의 뺨을 치며 "대제사장에게 대답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하였다.
23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잘못한 증거를 대라. 그렇지 않고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어째서 네가 나를 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24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오?" 하고 물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오" 하고 딱 잡아떼었다.
26 이때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종의 친척 되는 대제사장의 다른 종이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도 아니라고 우길 셈이오?" 하였다.
27 베드로가 다시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자 곧 닭이 울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28 이른 아침 [1]유대인 지도자들은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29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시오?" 하고 물었다.
30 그러자 그들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1 그때 빌라도가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하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2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33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 "그것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35 "너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36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37 "그렇다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그렇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났으

[1] 원문에는 '그들은'

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1]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38 그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39 유월절이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는데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 주기를 원하시오?"

40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19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하였다.

2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3 예수님께 바싹 다가서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4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여러분은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을 알게 될 것이오" 하였다.

5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은 채로 나오시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오!" 하였다.

6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빌라도는 "당신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소" 하고 대답하였다.

7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마땅히 처형되어야 합니다" 하고 우겨댔다.

8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9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10 빌라도가 "나에게 말하지 않을 셈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 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였다.

11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2]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12 그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 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을 놓아 주면 로마 황제의 [3]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13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넓적한 돌이 깔린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는

요

[1] 또는 '진리에 속한' [2] 원문에는 '위에서' [3] 원문에는 '친구'

데 넓적한 돌이 깔린 그 곳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였다.
14 그 날은 유월절 [1]전날이었으며 때는 [2]정오쯤 되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의 왕이 여기 있소" 하자
15 그들은 큰 소리로 "죽여 버리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며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란 말이오?" 하자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

십자가에 달리심

17 그들의 손에 넘어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가셨다(히브리 말로 해골터는 '골고다'이다).
18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양쪽에 각각 하나씩 못박았다.
19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20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죄패를 읽었는데 그 죄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21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하였으나
22 빌라도는 쓸 것을 다 썼다고 대답하였다.
23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 네 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24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3]"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25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26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27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28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29 마침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4]해면을 적셔 그것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1] 또는 '예비일' [2] 헬 '제6시' [3] 시 22:18 [4] 해면 동물의 섬유 조직(스폰지)

갖다 대었다.
30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31 그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다음날은 [1]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고 하였다.
32 그러므로 군인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33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34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35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고 증거한다.
36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2]"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다.
37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3]"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다."
38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다.
39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4]33킬로그램 정도 가지고 왔다.
40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모시 천으로 쌌다.
41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 하나가 있었다.
42 그 날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모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20 [5]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다.
2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였다.
3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떠났다.
4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으나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다.
5 그는 구푸려 모시 천만 있는 것을

[1] 또는 '큰 날이므로' [2] 시 34:20 [3] 슥 12:10 [4] 헬 '100리트라' (1리트라는 327그램) [5] 또는 '그 주간의 첫날'

보고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모시 천이 놓여 있었고
7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모시 천과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9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10 집으로 돌아갔다.
11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지 않겠는가!
13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4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으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
15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였다.
16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는 돌아서며 [1]"선생님!" 하였다.
17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도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18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며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일러 주었다.
19 그 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2]"다들 잘 있었느냐?" 하셨다.
20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21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22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

[1] 히 '랍오니' [2] 원문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의심 많은 도마

24 열두 제자 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26 8일 후에 제자들은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고 거기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때도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28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9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0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31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해변의 아침 식사

21 그 후 예수님은 [1]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렇다: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밖의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3 그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나서자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나 그 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4 날이 밝아 올 무렵,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5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2]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7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

[1] 갈릴리 호수(또는 바다)의 별명 [2] 또는 ‘너희에게 음식이 좀 있느냐?’

요

하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 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다.
8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다. 그들이 나갔던 곳은 육지에서 [1]100미터도 안 되는 곳이었다.
9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준비되어 있었다.
10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아 온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11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놓고 보니 그물에는 큼직큼직한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이와 같이 고기가 많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3 예수님은 빵을 집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14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
15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2]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16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17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3]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시므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18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 둔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4]네 옷을 차려 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네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네 옷을 입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19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였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20 베드로가 돌아다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

[1] 헬 '200규빗' (1규빗은 45센티미터) [2] 어떤 사본에는 '요나' [3]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을 베드로는 일관하여 헬라어 '필레오' 를 쓰고 있으나 예수님은 처음 2회에 걸쳐 '아가파오' 를 쓰고 세 번째는 베드로와 같이 '필레오' 를 사용하셨다. [4] 또는 '띠 띠고'

다. 그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 누워 "주님,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제자였다.
21 베드로는 그를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22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23 이 말씀 때문에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퍼졌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24 이 일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것임을 안다.
25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밖에도 많이 있으나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곳이 없을 것이다.

행

사도들의 전도 기록 (사도행전)

- **저자** 누가.
- **연대** A. D. 63년경(누가가 기록한 기쁜 소식 기록 이후, 바울이 로마에 머물던 당시) 기록.
- **목적** 첫째,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성장 과정을 소개한다. 둘째, 당시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를 위시한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
- **개요** 1–2장 : 교회의 탄생. 3–7장 : 교회의 성장. 8–12장 : 박해와 교회의 확장. 13장–21:16 :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21:17–28장 : 바울의 로마 여행과 고난.

1 나의 친구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기록한 책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선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날까지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기록하였다.
3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죽으신 후 40일 동안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살아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승천

4 예수님은 사도들과 [1]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5 요한은 물로 [2]세례를 주었으나 너

[1] 또는 '식사하시면서' [2] 또는 '침례'

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6 그 후 [1]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자

7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8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9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자 구름에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10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였다.

11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12 그 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13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머물던 이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매,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15 그러던 어느 날 믿는 형제들이 120명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16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래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하신 성경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17 그는 본래 우리 가운데 한몫 끼어 우리 일의 일부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18 이 사람은 죄악의 값으로 밭을 사고 거기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 나왔습니다.

19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이 일을 알고 그 밭을 [2]‘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20 “시편에는 [3]‘그의 집이 폐허가 되어 그 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4]‘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22 그러므로 요한이 [5]세례를 베풀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줄곧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1] 또는 ‘저희가 모였을 때에’ [2] 아람어 ‘아겔다마’ [3] 시 69:25 [4] 시 109:8 [5] 또는 ‘침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3 그러자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하나는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었고 다른 하나는 맛디아였다.

24 그러고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군지 보여 주셔서

25 유다 대신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소서. 그는 이것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26 그런 다음 제비를 뽑자 맛디아가 당첨되었다. 그래서 그는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오순절

2 [1]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2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3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4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2]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5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다.

6 하늘에서 난 바람 같은 이 소리를 듣고 몰려든 군중들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7 그들은 모두 놀라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8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리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9 우리 중에는 바대,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10 브루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일대에서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온

11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으며 또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우리 말로 듣고 있지 않는가!"

12 그들은 모두 놀라고 당황하여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서로 물었다.

13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잔뜩 술에 취했군!" 하며 제자들을 조롱하였다.

14 그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5 지금 시각은 아침 [3]9시밖에 되지 않

행

[1] 오순절은 유월절의 안식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인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칠칠절이라고 불렀다. [2] 또는 '다른 방언으로' [3] 헬 '제3시'

앗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16 이 일에 대해서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7 [1]'하나님이 말씀하신다: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18 그 때에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19 또 내가 하늘에서는 이상한 일과 땅에서는 징조를 보여 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다.

20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21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22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베푸셔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23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는데 여러분이 [2]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2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5 다윗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3]'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26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우며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살 것이다.

27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28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 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29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도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30 다윗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1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내다보고 그분은 [4]무덤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체도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2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33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

[1] 욜 2:28-32 [2] 원문에는 '법 없는 자들' [3] 시 16:8-11 [4] 헬 '하데스'(음부)

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34-35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1]'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36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37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였다.

38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3]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39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40 이 밖에도 베드로는 많은 말로 증거하며 그들에게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41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 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

42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4]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43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44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45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46 그들은 한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47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고침

3 어느 날 오후 [5]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2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사람들은 그를 매일 그 곳에 데려다 두었다.

3 그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자

4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아라!" 하였다.

5 앉은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줄 알고 바라보았으나

6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

행

[1] 시 110:1 [2] 또는 '침례' [3] 또는 '성령의 선물을' [4] 또는 '떡을 떼며' [5] 헬 '제9시'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7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8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9 사람들은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10 본래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모두 그에게 일어난 일에 놀라 어리둥절하였다.
11 사람들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모두 달려갔다.
12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1]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 주기로 했는데도 여러분이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14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여
15 생명의 [2]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16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17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한 줄로 압니다.
18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20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21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래 전에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3]새롭게 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22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4]'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1] 또는 '경건' [2] 또는 '창조자' [3] 또는 '회복하실 때까지' [4] 신 18:15, 18, 19

23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당할 것입니다.'
24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그의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25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네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종을 택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여러분을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됨

4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왔다.
2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고 크게 분개하여
3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때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은 그 두 사도를 다음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4 그러나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 제자의 수가 약 5,000명 정도로 늘어났다.
5 이튿날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6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참석하였다.
7 그들은 두 사도를 한가운데 세우고 물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8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9 우리가 오늘 불구자에게 베푼 선한 일과 그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로 심문을 받는다면
10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앉은뱅이였던 이 사람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11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12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13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14 고침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

행

[1] 창 22:18, 26:4

었다.
15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의회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고 서로 의논하였다.
16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들이 주목할 만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소.
17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 둡시다."
18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19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 그래서 의회에서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단단히 주의만 주고 놓아 주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
22 이 기적으로 고침을 받은 앉은뱅이는 40세가 넘은 사람이었다.

교회가 기도하고 찬송함

23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 나와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24 그러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권자이신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25 주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6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구나.'
27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 성에 모여서
28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을 했습니다.
29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30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31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 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재물에 대한 두 가지 태도

32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1] 시 2:1, 2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33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34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팔아 그 돈을
35 사도들에게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36 그때 사도들이 바나바(번역하면 '위로의 아들')라고 부른 키프러스 태생의 레위 사람 요셉도
37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5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고 땅을 팔아 그 돈에서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
3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당신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소?
4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오."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죽자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6 그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7 세 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8 베드로가 그녀에게 "땅을 판 돈이 모두 이것뿐이오?" 하고 묻자 그녀는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9 그래서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시오? 당신의 남편을 묻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번에는 당신을 메고 나갈 것이오."
10 그러자 즉시 그 여자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었다.
11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12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13 그 밖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였다.
14 그리고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가자
15 사람들은 심지어 환자들을 업고 길거리로 나와서 간이 침대나 자리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으며
16 또 예루살렘 부근 사람들도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도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다시 잡힘

17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몹시 시기하여
18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
19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20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여라."
21 그래서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은 다음 사도들을 끌어내오라고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다.
22 그러나 [1]성전 경비병들은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렇게 보고하였다.
23 "우리가 가 보니 감옥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섰는데 문을 열고 보니 감방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4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몹시 당황하였다.
25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 주었다.
26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27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의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심문하였다.
28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29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30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31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2]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32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 증인이십니다."
33 이 말을 듣자 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34 그때 율법학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파 사람이며 의회 의원인 가말리엘이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내보낸 후
35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고 이 사람

[1]또는 '관속들' [2]또는 '인도자'

들을 처리하십시오.
36 전에 드다가 나타나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떠들어대자 약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37 그 후에 인구 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 사람들을 꾀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죽고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38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이들의 계획이나 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무너질 것이고
39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40 의회는 가말리엘이 권하는 말을 받아들여 사도들을 불러다가 매질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놓아 주었다.
41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42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일곱 사람을 뽑음

6 이 때에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1]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2 그래서 열두 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모으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3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 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4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5 모든 신자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6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7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

스데반의 체포

8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이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였다.
9 그러나 [2]'자유인'이라는 사람들의 회당과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1] 곧 '아람어' [2] 헬 '리버디노' (이들은 처음에 종이었으나 후에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다.)

각 회당에서 반대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10 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 내지 못하자
11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하였다.
12 그리고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잡아서 의회로 끌고 갔다.
13 그러자 그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계속하여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며
14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관습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15 그때 [1]의회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유심히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7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냐?" 하고 묻자
2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3 [2]'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4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은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직 자녀가 없었는데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7 또 [3]'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 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 그러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할례의 계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했으며 후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우리 열두 조상을 낳았습니다.
9 그런데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10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 내셨고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어 이집트 왕 바로의 신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온 나라와 그의 궁전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11 그 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들어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우

[1] 헬 '수네드리온' (공회) [2] 창 12:1 [3] 창 15:14 [4]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들의 포피를 자르던 유대인의 의식.

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12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그의 아들들, 곧 우리 조상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13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렸으며 바로도 그들이 요셉의 가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4 요셉은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75명의 친척들을 모두 이집트로 오라고 했습니다.
15 그래서 야곱과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가서 [1]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16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사 두었던 묘지에 묻혔습니다.
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8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19 그는 우리 민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갓난 아기들이 살아 남지 못하도록 모두 내어버리게 했습니다.
20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를 집에 숨겨 두고 키우다가
21 [2]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내어다 버리자 바로의 딸이 주워다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22 그때부터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23 마흔 살이 되어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24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우러 갔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죽이고 그의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25 모세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동족들을 구해 내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줄 알았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26 이튿날 모세는 두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여보시오, 동족끼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말렸습니다.
27 그러자 싸움을 걸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3]'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28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오?' 하고 대들었습니다.
29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도망쳐 나와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30 그 곳에 온 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31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신기해서

행

[1]암시됨. [2]암시됨. [3]출 2:14

좀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자
32 [1]'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떨며 감히 쳐다보지 못하자
33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34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탄식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35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하면서 배척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가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36 그는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었으며 이집트와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37 바로 이 모세는 [3]'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입니다.
38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천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39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며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40 그들은 아론에게 [4]'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41 그러고서 그들은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42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도록 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서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5]'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나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렸느냐?
43 너희는 몰록의 천막과 [6]레판 신의 별과 그들을 섬기려고 만든 우상의 형상을 메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겨 버릴 것이다.'
44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성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양식대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45 우리 조상들은 그 성막을 물려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할 때 [7]여호수

[1] 출 3:6 [2] 출 3:5, 7, 8, 10 [3] 신 18:15 [4] 출 32:1, 23 [5] 암 5:25-27 [6] 다른 사본에는 '롬판', '렘판'으로도 되어 있음. [7] 헬 '예수'

아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으며 그 성막은 다윗 때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46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곱의 [1]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게 해 달라고 구하였으나

47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48 그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사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49 [2] '주께서 말씀하신다: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어느 곳이 내 안식처가 되겠느냐?

50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51 "[3]고집을 피우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여, 여러분도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52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53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 준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54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55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4]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다!"

57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58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 두었다.

59 그들이 계속 돌질을 하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60 그러고서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친 후 숨을 거두었다.

8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였다. 그리고 그 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갔고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

2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3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1] 어떤 사본에는 '집' [2] 사 66:1, 2 [3] 원문에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4]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4 흩어진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5 빌립이 [1]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6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7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아
8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9 그 도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전부터 마술을 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떠들어댔다.
10 그래서 모든 계층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 사람은 [2]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11 그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12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모두 믿고 남녀가 다 [3]세례를 받았다.
13 그리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줄곧 따라다니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14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15 두 사도는 그리로 가서 새로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16 이것은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단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4]세례만 받았기 때문이었다.
17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18 시몬은 그 광경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19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20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21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아무 상관도 없고 얻을 것도 없소.
22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에 품은 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혹시 주님께서 당신의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23 내가 보기에 당신은 [5]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24 그러자 시몬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25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

[1]또는 '사마리아성' [2]원문에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3]또는 '침례' [4]또는 '침례' [5]또는 '악독이 가득하며'

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도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26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향하여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그는 가다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1]고관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28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29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30 빌립은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다.

31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곁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32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2]"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33 그가 굴욕을 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아 세상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3]누가 그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34 그 고관이 빌립에게 "이 말은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35 그러자 빌립은 그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36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고관이 "여기 물이 있는데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37 [4](빌립이 그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8 그는 마차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함께 물로 내려가 빌립에게 [5]세례를 받았다.

39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셔서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나 그 고관은 기뻐하면서 계속 길을 갔다.

40 그러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사울의 개종

9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1] 또는 '큰 권세가 있는 내시' [2] 사 53:7, 8 [3] 또는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4] 어떤 사본에는 괄호 안의 구절이 없다. [5] 또는 '침례'

위해서였다.
3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쳐 왔다.
4 그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5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7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8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9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10 이때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1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곧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12 그는 [1]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 주는 것을 보았다."
13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몹시 괴롭혔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14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갈 권리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이리로 왔습니다."
15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16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17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하였다. "사울 형제,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18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2]세례를 받은 후
19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20 그리고서 그는 곧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21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놀라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3]예수 믿는 사

[1] 어떤 사본에는 '환상 가운데'란 말이 없다. [2] 또는 '침례' [3] 또는 '이 이름 부르는 사람'

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아니오?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오?”

22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23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으나

24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켰지만

25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26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27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으며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한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28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29 사울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30 믿는 형제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냈다.

31 이렇게 해서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장해 갔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두 가지 큰 기적

32 이때 베드로는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33 거기서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드러누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34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하자 그는 즉시 일어났다.

35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애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주님께로 돌아왔다.

36 한편 욥바에는 다비다(그리스 말로는 [1]도르가)라는 여신도가 있었는데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였다.

37 이 무렵 그 여자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이층에 안치하였다.

38 욥바에서 멀지 않은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 속히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39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갔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이층방으로 안내하였다. 과부들은 모두 베드로의 주

1 ‘사슴’이라는 뜻.

변에 둘러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 있을 때 만들어 둔 속옷과 겉옷을 보여 주었다.

40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러고서 그가 시체를 향해 "다비다 부인, 일어나시오!" 하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41 베드로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 주었다.

42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욥바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43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남

10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한 [1]장교였다.

2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3 어느 날 오후 [2]3시쯤 되어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똑똑히 보았다. 천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고넬료야" 하고 부르자

4 그는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예,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구제하는 일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

5 지금 너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6 그는 바닷가에 있는 피혁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7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두 종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

8 모든 일을 설명해 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9 이튿날 낮 [3]12시쯤 되어 그들이 욥바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10 그는 몹시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11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가 매여져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12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다.

13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14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15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는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다.

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보자기 같은 그 물건은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17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1] 원문에는 '백부장' (로마군 100명의 지휘관) [2] 헬 '제9시' [3] 헬 '제6시'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 소리쳐 부르며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느냐고 물었다.
19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20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21 그래서 베드로는 내려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22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선생님을 집에 모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함

23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 하룻밤을 쉬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자 욥바의 신자 몇 사람도 따라 나섰다.
24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25 마침 베드로가 들어가자 고넬료는 그를 맞으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26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오" 하였다.
27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28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거나 찾아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게 보여 주셨습니다.
29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을 때 내가 사양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30 그러자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4일 전 이맘때에 나는 집에서 오후 [2]3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
31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하는 일을 기억하셨다.
32 그러니 너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피혁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33 그래서 내가 곧 선생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와 주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

[1] 어떤 사본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다. [2] 헬 '제9시'

행

으려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34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35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36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37 여러분은 요한이 [1]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 전역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39 우리는 예수님이 [2]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40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1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 곧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42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43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모든 예언자들도 증거했습니다.”

44 아직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45 베드로와 함께 온 [3]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4]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46 이것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는

47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48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만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베드로의 전도 보고

11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2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3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면서요?” 하고 따졌다.

[1] 또는 ‘침례’ [2] 또는 ‘유대인의 땅’ [3] 원문에는 ‘할례받은 신자들’ [4] 또는 ‘성령의 선물을’

4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5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가 매여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6 그 속을 자세히 보니 땅의 네 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7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8 그러나 나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입에 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9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는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0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11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보낸 세 사람이 내가 머물러 있는 집에 왔습니다.
12 마침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여섯 형제들과 함께 나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13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14 그가 너와 네 온 가족이 구원받을 말씀을 일러 줄 것이다'라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15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16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1]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7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18 그들은 이 말을 듣고 [2]의심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였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19 스데반의 일로 생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러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20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키프러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3]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21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22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23 바나바는 가서 [4]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

[1] 또는 '침례' [2] 또는 '잠잠하여' [3] 어떤 사본에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 [4]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24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25 그런 다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꼬박 일 년 동안 그 곳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27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28 그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온 세계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마침 글라우디오황제 때에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다.
29 그 곳 신자들은 각자 힘 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30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1]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

베드로가 잡혔다가 놓임

12 그때 [2]헤롯왕이 교회의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잡아
2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3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다. 마침 그 때는 [3]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 기간이었다.
4 헤롯은 베드로를 유월절이 지난 후 사람들 앞에 끌어낼 생각으로 그를 잡아 가두고는 군인 열여섯 사람을 4인조로 나눠 지키게 하였다.
5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6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매여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7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 안이 환해졌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떨어져 나갔다.
8 천사가 "허리띠를 매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므로 베드로는 그대로 하였다. 그리고 천사는 다시 그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9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오긴 했으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10 그들이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가지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그 문을 나와 한 거리를 걸어갈 때 갑자기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다.
11 그제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어

[1] 원문에는 그냥 '장로들'로 되어 있다. [2] 곧 '아그립바 1세' [3] 또는 '무교절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12 그래서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다.
14 그녀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다고 외쳤다.
15 그러나 사람들은 로데를 보고 "네가 미쳤구나!" 하였다.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그의 천사겠지" 하고 [1]믿지 않았다.
16 한편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문을 열어 보니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17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일을 알리게 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
18 날이 밝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군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19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경비병들을 직접 심문하고서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내려가 거기서 지냈다.
20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대단한 미움을 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떼를 지어 그를 만나러 갔다. 그들은 먼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찾아가 미리 사귀어 놓고 왕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21 그러자 왕은 정한 날에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22 그때 사람들은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23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치자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
24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지고 새 신자도 많이 늘었다.
25 바나바와 사울은 [2]안디옥 교회가 보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13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3]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인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2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1] 암시됨. [2] 또는 '부조의 일을 마치고' [3] 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3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다.

키프러스에서

4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키프러스로 건너갔다.
5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마가라는 요한이 그들의 일을 도왔다.
6 그들은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 마술사이며 거짓 예언자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
7 그는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친구였으며 서기오 바울은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었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였으나
8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는 그들을 대적하며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였다.
9 그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마술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10 이렇게 말하였다.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야,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짓을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11 이제 너는 주님의 벌을 받아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었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12 이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크게 놀라 믿게 되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13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건너갔다. 거기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14 나머지 사람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갔다. 안식일이 되어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15 율법과 예언서의 낭독이 있은 후에 [1]회당 책임자들이 사람을 시켜 청중에게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였다.
16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조용히 들어 달라는 손짓을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사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7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으며 큰 능력으로 그들을 거기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18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2]그들을 돌봐 주셨으며
19 가나안 일곱 민족을 멸망시키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셨는데
20 그 기간이 약 45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주시다가
21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

[1]또는 '회당장들' [2]어떤 사본에는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워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22 그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23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24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2]세례를 전파했습니다.
25 그리고 그는 자기 일을 다 마칠 무렵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고 했습니다.
26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7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죄인으로 단정함으로써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던 예언자들의 말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28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29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행한 후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시체를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30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31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들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2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3]'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34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4]'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과
35 또 다른 시편에 [5]'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36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죽어 그의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고 말았습니다.
37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38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여러

행

[1] 시 89:20, 삼상 13:14 [2] 또는 '침례' [3] 시 2:7 [4] 사 55:3 [5] 시 16:10

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39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40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41 [1]'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42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43 집회가 끝나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44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45 유대인들은 군중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방해하며 모욕하였다.
46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47 주께서도 우리에게 [2]'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구원을 베풀도록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48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3]선택된 사람은 모두 믿었다.
49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그 지방 전체에 퍼져나갔다.
50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고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51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으며
52 안디옥 신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고니온에서

14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였다.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으나
2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
3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그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

[1]합 1:5 [2]사 49:6 [3]또는 '작정된'

다. 주께서는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여 그들이 전하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
4 그러나 그 도시 사람들은 견해가 엇갈려 유대인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두 사도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었다.
5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괴롭히고 돌로 쳐죽이려고 하자
6 그것을 알아차린 사도들은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 가서
7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8 루스드라에는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여서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9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바울은 그를 주시하면서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10 큰 소리로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11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고 외쳤다.
12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 불렀다.
13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몇 마리의 황소와 화환을 성문에 가지고 와서 군중들과 함께 사도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14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이렇게 외쳤다.
15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16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내버려 두셨지만
17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18 두 사도는 이 말로 겨우 군중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다.
19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군중들을 선동하여 자기들 편에 끌어들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다.
20 그러나 신자들이 모여들어 그의 주변에 둘러섰을 때 바울은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옴

21 그들은 그 도시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었다. 그러고서

그들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22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언제나 믿음에서 살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였다.
23 또 그들은 각 교회에 장로들을 뽑아 세우고 금식 기도하며 장로들을 보호해 달라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부탁하였다.
24 그런 다음 그들은 비시디아를 거쳐 밤빌리아 지방으로 가서
25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갔다.
26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 안디옥은 그들이 지금 완성한 그 일을 위해 전에 [1]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사명을 받고 떠난 곳이었다.
27 그들은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고
28 신자들과 함께 거기서 오랫동안 지냈다.

최초의 교회 회의

15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모세의 법대로 [2]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2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심한 논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3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믿게 된 이야기를 해 주어 그 곳 모든 신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4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5 그때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7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8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3]인정하셨으며
9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10 그런데 어째서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

[1]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2]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들의 포피를 자르던 유대인의 의식. [3] 또는 '증거하시고'

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11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12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13 그들의 말이 끝나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14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는가를 [1]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15 이 일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16 [2]'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된 곳을 재건하고 세워서
17 인류의 남은 자들과 나를 섬기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도록 하겠다.
18 오래 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한 나 하나님의 말이다.'
19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20 다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제물과 음란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1 예로부터 각 성에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런 것을 금한 모세의 글을 읽어 왔습니다."
22 사도들과 장로들은 온 교회와 의논한 후 그 말대로 몇 사람의 대표를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였다.
23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과 여러분의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문안합니다.
24 여기서 간 우리 신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은 말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25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을 뽑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26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7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뽑아 보냈으니 그들이 이 편지 내용을 직접 말해 줄 것입니다.
28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며 우리의 결정입니다.
29 여러분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을 멀리하십시오. 이런 몇 가지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0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

[1] 헬 '시므온' [2] 암 9:11, 12

려가 신자들을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 주었다.
31 그러자 사람들은 그 편지에 실린 격려의 말을 읽고 기뻐하였다.
32 예언자 유다와 실라도 많은 말로 신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33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잘 가라는 신자들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34 [1](없음)
35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36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곳으로 다시 가서 신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37 그러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전도하러 가지 않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39 그래서 심한 말다툼 끝에 서로 갈라져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키프러스로 건너가고
40 바울은 따로 실라를 택하여 신자들의 [2]축복을 받고 안디옥을 떠나
41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면서 여러 교회를 격려하였다.

16 바울은 더베에 들렀다가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3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려 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아는 그 지방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먼저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4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하였다.
5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강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바울의 환상

6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므로 그들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7 무시아에 이른 후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3]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8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9 그 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1] 어떤 사본에는 '그러나 실라는 거기에 머물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되어 있음. [2] 또는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3] 또는 '예수의 영'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판단하고 곧 떠날 준비를 하였다.
11 그 길로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다음날 네압볼리를 거쳐
12 빌립보로 갔다. 그 곳은 마케도니아의 [1]첫째 가는 도시로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
13 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14 그 자리에는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도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주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15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2]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갔다.
16 어느 날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 그녀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 주고 있었다.
17 이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오" 하고 외쳤다.
18 그 여종이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외치며 성가시게 따라다니므로 바울은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왔다.
19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시장에 있는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20 행정관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며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투옥과 간수의 회개

22 군중들까지도 그들과 한패가 되어 비난하자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게 하였다.
23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리고 감옥에 가둔 후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24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 쇠고랑을 든든하게 채워 놓았다.
25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26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집터가 흔들리고 감방 문이 모두 열리며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어졌다.

[1]또는 '첫 성' [2]또는 '침례'

27 졸던 간수가 깨어나 감방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28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1]칼을 놓으시오" 하고 외쳤다.
29 간수는 등불을 구해 가지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30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31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였다.
32 그러고서 그들은 그 간수와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었다.
33 그는 바로 그 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어 주고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즉시 [2]세례를 받았다.
34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35 날이 밝자 행정관들이 직원들을 보내 두 사람을 놓아 주라고 하였다.
36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에게 "행정관들이 선생님을 놓아 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였다.
37 그러나 바울은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내보내겠다는 건가요?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38 직원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났다.
39 그래서 그들은 감옥으로 와서 바울과 실라를 달래며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40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신자들을 만나 보고 그들을 격려한 후 그 곳을 떠났다.

데살로니가에서

17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2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세 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3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증거하였다.
4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또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믿었다.
5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장터에

[1] 원문에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2] 또는 '침례'

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 도시를 소란케 하고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을 덮쳤다.
6 그러나 그 사람들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신자 몇 사람을 그 도시의 당국자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을 온통 소란케 하던 사람들이 이 곳에도 왔는데
7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8 그러자 군중들과 그 도시 당국자들은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9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 주었다.

베뢰아에서

10 밤이 되자 신자들은 즉시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11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12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그리스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13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뢰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그 곳까지 와서 군중들을 선동하여 소란을 피웠다.
14 그래서 신자들이 바울을 즉시 내보내 바닷가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15 안내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다 주고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다.

아테네에서

16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였다.
17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 및 경건한 이방인들과 토론하고 또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18 그때 [1]에피쿠로스 학파와 [2]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하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 같다"고도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 그들은 바울을 [3]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 교훈은 무엇이오?
20 당신이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21 (아테네 사람들과 그 곳을 찾는 외국인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1] 쾌락주의자 [2] 금욕주의자 [3] '아레스의 언덕' 이란 뜻.

행

듣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22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23 내가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처를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 온 그 신을 내가 알려 주겠습니다.
24 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서 사시지 않으며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6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27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28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1]자녀입니다.'
29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1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32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또 더 듣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33 연설을 마친 후 바울은 거기서 나왔다.
34 그때 몇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믿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2]법관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이 있었다.

고린도에서

18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2 거기서 그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3 바울은 그들의 직업이 자기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다.
4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1] 또는 '소생' [2] 또는 '의회 의원'

설득시키려고 하였다.
5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와 바울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1]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
6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자 바울은 옷의 먼지를 떨며 이렇게 말하였다. “[2]당신들이 멸망을 당해도 그것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며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소.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소.”
7 그러고서 그는 그들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3]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
8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었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4]세례를 받았다.
9 주님께서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침묵을 지키지 말아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11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12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가
13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하였다.
14 바울이 변명하려고 하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이것이 불미스러운 일이나 흉악한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주어야겠지만
15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말과 명칭과 당신들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16 그러고서 그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었다.
17 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마구 때렸으나 갈리오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안디옥으로 돌아옴

18 바울은 고린도에 좀더 머물다가 신자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그런데 바울은 출항하기에 앞서 전에 서약한 일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19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을 거기에 남겨 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하였다.
20 바울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21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22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예루

[1]곧 ‘메시아’ [2]원문에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3]어떤 사본에는 ‘유스도’라고만 되어 있음. [4]또는 ‘침례’

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갔다.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23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24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1]말 잘하는 성경 박사였다.

25 그는 일찍 주님의 [2]말씀을 배워 열심히 전도하며 예수님에 관해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27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하자 신자들은 그를 격려하고 그 곳 신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라고 하였다. 아볼로는 그 곳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28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대중 앞에서 보기 좋게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에베소에서

19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 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왔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신자들을 만나 물었다.

2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3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3]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4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5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6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내려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8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사람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설득하였다.

9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4]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 날마다 두란노 학원에서 가르쳤다.

10 이렇게 두 해를 계속하는 동안 [5]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11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12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들이 나갔다.

13 이때 몇몇 떠돌이 유대인 무당들도

[1] 또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2] 원문에는 '도' [3] 또는 '침례' [4] 원문에는 '도를' [5] 곧, 소아시아의 서해안 지방

행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들은 악한 귀신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1]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14 유대인의 대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였다.
15 그러자 악한 귀신이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고 대답하였다.
16 그러고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때려 눕히자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17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였다.
18 그리고 많은 신자들도 찾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공적으로 고백하였고
19 많은 마술사들도 그들의 마술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은 무려 [2]50,000드라크마나 되었다.
20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힘 있게 계속 퍼져나갔다.

에베소의 소동

21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에도 가 봐야겠다"고 하였다.
22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다.
23 그 무렵 [3]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24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조 신전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였다.
25 그가 하루는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26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 놓은 것을 여러분도 보고 들었을 줄 압니다.
27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마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28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29 이 일로 그 도시가 온통 소란해졌으며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행

[1] 암시됨. [2] 또는 '은 오만' (1드라크마는 하루의 품삯.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50,000드라크마는 5억 원이 된다.) [3] 원문에는 '이 도로 인하여'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30 그때 바울이 군중들 앞에 나가려고 하자 신자들이 못 가게 말렸고
31 또 아시아 지방의 로마 관리 중 바울의 몇몇 친구들도 사람을 보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다.
32 한편 군중들은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저마다 떠들어대서 연극장 안이 야단 법석이었다.
33 그때 몇몇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군중들 앞에 내세웠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모두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며 변명하려고 하였으나
34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일제히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며 약 두 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다.
35 마침내 [1]서기장이 나와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의 수호자가 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36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37 여러분이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38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또 함께 온 직공 여러분이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에 가서 고소하도록 하고
39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인 [2]모임에서 해결짓도록 하십시오.
40 아무 이유도 없는 오늘의 이 소란 때문에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불법 집회에 대하여 우리는 변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41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돌아오는 길

20 소란이 그친 뒤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그 곳을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다.
2 바울은 그 지방을 다니며 많은 말로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로 갔다.
3 그가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4 그와 동행할 사람들은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5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6 우리는 [3]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가서 그들

[1] 헬라어 원문에는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로 되어 있다. [2] 헬 '에클레시아'(교회) [3] 또는 '무교절'

을 만나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다.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림

7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빵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자들과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8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9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졸다가 바울의 이야기가 오래 계속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그만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급히 가서 일으켜 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10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났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1 그러고서 그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빵을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이 밝자 떠났다.

12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큰 위로를 받았다.

13 바울이 육지로 걸어서 앗소로 가겠다고 하므로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라 배를 타고 먼저 가서 그를 기다렸다.

14 그리고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15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하였다.

16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지나가기로 했는데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였다.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 인사

17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18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 왔습니다.

20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또 대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쳤고

21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22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23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4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1]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

[1] 또는 '섬기는 일'

행

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25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26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 두지만 [1]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27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8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위해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2]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29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30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꾀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31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2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3]하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33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34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35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36 이 말을 하고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37 그러자 그들은 소리내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38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였다.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21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후 우리는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갔고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바다라에 도착하였다.
2 거기서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다.
3 그리고 키프러스 남쪽을 지나 시리아로 항해하다가 짐을 내리려고 두로에 배를 대었다.
4 우리는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7일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였다.
5 일 주일이 지난 후 우리가 떠나자

[1] 원문에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 '주'로 되어 있는 사본도 많다. [3] 또는 '기업'

그 곳 신자들이 부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하였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6 서로 작별하고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7 우리는 두로에서 항해를 계속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렀으며 거기서 신자들을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다가
8 이튿날 그 곳을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일곱 집사 중의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9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네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처녀였다.
10 우리가 여러 날 머무는 동안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11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 이방인들에게 넘겨 줄 것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 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권하였다.
13 그러나 바울은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오? 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4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서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15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후에 우리는 짐을 챙겨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16 가이사랴의 몇몇 신자들이 우리와 동행하여 우리가 머물 나손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나손은 키프러스 사람으로 일찍부터 믿은 신자였다.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18 이튿날 우리가 바울과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을 때 거기에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다.
19 바울은 그들과 인사한 후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설명하였다.
20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모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21 그런데 당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저버리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22 당신이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이 알게 될 것이 뻔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3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네 사람이 있으니
24 그들과 함께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당신이 비용을 들여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

신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당신도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25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을 피하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편지한 바 있습니다."
26 그래서 바울은 이튿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과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을 알려 주었다.

바울의 체포

27 칠 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28 이렇게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성전에 해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29 그들은 전에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였다.
30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다.
31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사실이 로마군의 [1]부대장에게 보고되었다.
32 그가 즉시 부하들을 거느리고 현장에 달려가자 폭도들이 로마군 부대장과 그의 부하들을 보고 바울에게 폭행하던 것을 그쳤다.
33 부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묶게 한 후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물어보았다.
34 그러나 사람들의 대답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그들이 외쳐대는 소란 때문에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대장은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35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들이 너무 난폭해져서 군인들은 그를 메고 가야만 했다.
36 군중들은 계속 뒤따라가며 그를 없애 버리라고 외쳐댔다.
37 군인들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부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자 그가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 말을 압니까?
38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그 이집트인이 아니오?"
39 그때 바울은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며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바울의 해명

40 부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계에

[1] 원문에는 '천부장' (로마군 1,000명의 지휘관)

서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한 후 히브리 말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2 "[1]여러 어른들과 형제 여러분, 내가 변명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 사람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3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자라기는 이 곳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로 우리 조상이 전해 준 율법에 따라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4 그래서 나는 [2]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5 이 일은 대제사장과 온 의회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갈 공문을 받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 곳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다가 처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 정오쯤 되어 내가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나를 비추지 않겠습니까!

7 그래서 나는 그만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8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9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이 빛은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10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묻자 주님께서 '너는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 그러나 나는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12 이때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3]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 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13 그가 내 곁에 와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는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14 그러고서 아나니아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4]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으며 그 의로우신 분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15 이것은 당신이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보고 들은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

[1] 원문에는 '형제들과 아버지들' [2] 원문에는 '이 도를 핍박하여' [3] 또는 '율법에 의하면' [4] 원문에는 '의인을'

16 이제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1]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를 씻어 버리십시오.'

17 "그 후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8 그 환상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 곳 사람들은 네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9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신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린 일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20 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내가 곁에 서서 그 일을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21 그때 주님은 나에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2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다가 "저놈을 죽여라! 저런 놈은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외치면서

23 옷을 던지고 마구 먼지를 날렸다.

24 그러자 부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왜 사람들이 그처럼 바울에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서 채찍질하여 바울을 심문하라고 지시하였다.

25 군인들이 가죽끈으로 바울을 묶자 바울이 곁에 선 [2]장교에게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함부로 채찍질할 수 있소?" 하고 따졌다.

26 장교는 이 말을 듣고 부대장에게 가서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물었다.

27 부대장은 바울에게 와서 "말해 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오?"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자

28 부대장이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29 바울을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가고 부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묶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의회 앞에 선 바울

30 이튿날 부대장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3]의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하였다.

23

바울이 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며 "형제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고 말하자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3 그때 바울이 그에게 "[4]이 위선자야,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거기에

[1] 또는 '침례' [2] 원문에는 '백부장' (로마군 100명의 지휘관) [3] 헬 '수네드리온' (공회) [4] 원문에는 '회칠한 담이여'

앉아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하였다.

4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소?" 하자

5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도 [1]'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 바울은 의회 의원 중 일부는 사두개파이고 일부는 바리새파인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2]순수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심문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7 바울이 이 말을 하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의회는 둘로 갈라졌다.

8 사두개파는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는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였다.

9 의회가 온통 소란해지자 바리새파에서 몇몇 율법학자들이 일어나 "우리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들의 강력한 주장을 내세우니

10 큰 논쟁이 벌어졌다. 부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 부하들에게 내려가서 그를 강제로 빼앗아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11 [3]그 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12–13 날이 밝자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14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15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울에 대한 것을 좀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하여 부대장에게 그를 의회에 데려오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그가 도착하기 전에 죽여 버리겠습니다."

16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부대 안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

17 바울은 한 장교를 불러 "이 청년을 부대장에게 데려다 주시오. 부대장에게 할 말이 있답니다" 하였다.

18 그 장교는 그를 부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을 부대장님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대장님에게 할 말이 있답니다" 하였다.

19 부대장이 그를 한쪽 옆으로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냐고 조용히 묻자

20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좀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하여 내일 의회에

[1] 출 22:28 [2] 원문에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3] 또는 '다음날 밤'

그를 데려오라고 부대장님께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 그러므로 부대장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 있는데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부대장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2 그래서 부대장은 그 일을 자기에게 일러 주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그 청년을 돌려보냈다.
23 그리고서 부대장은 두 [1]장교를 불러 "오늘 밤 [2]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24 그리고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하도록 그를 태울 말도 몇 마리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25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주었다.
26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27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죽게 되었으나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내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구해 냈습니다.
28 나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그를 의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29 그러나 그 고소가 그들의 율법 문제와 관련되었을 뿐 가두거나 죽일 만한 죄는 없었습니다.
30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고 누가 나에게 일러 주어서 내가 즉시 이 사람을 각하께 보냅니다. 나는 또 이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직접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1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로 갔다.
32 그리고 이튿날 마병들에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다른 군인들은 부대로 돌아갔다.
33 마병들은 가이사랴에 이르러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도 넘겨 주었다.
34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다.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대답하자
35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네 변명을 듣도록 하겠다" 하고 바울을 헤롯의 관저에 가둬 두라고 명령하였다.

로마 관리들 앞에 선 바울

24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2 바울을 불러내자 더둘로가 고소의 이유를 총독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 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각하의 선견지명으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1] 원문에는 '백부장' (로마군 100명의 지휘관) [2] 헬 '제3시'

3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 이제 각하를 피곤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 테니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6 이 사람이 우리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1](우리는 그를 모세의 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7 부대장 루시아가 강제로 빼어가면서
8 각하께 직접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각하께서 직접 그를 심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9 그러자 유대인들도 한몫 거들며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10 그때 총독이 고갯짓을 하여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변명하였다.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시는 것을 알고 내가 오늘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11 각하께서도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12 저 사람들은 내가 성전이나 회당이나 시내 어느 곳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13 지금 저들은 나를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14 그러나 내가 이것만은 각하께 시인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2]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15 또 이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나도 가졌는데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부활하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6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 내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18 내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 때는 선동할 군중도 없었고 전혀 소란스럽지도 않았으며
19 다만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 그들이 여기 와서 고발했을 것입니다.
20 또 내가 의회 앞에 섰을 때 내게서 잘못한 것을 발견했다면 이 사람들에게 말해 보라고 하십시오.
21 나는 그들 앞에 서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오늘 심문을 받습니다'라고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행

[1] 어떤 사본에는 괄호 안의 말이 없다. [2] 원문에는 '도를 좇아'

22 벨릭스는 [1]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부대장 루시아가 오면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 재판을 연기했다.
23 그는 장교를 불러 바울을 지키더라도 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돕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24 며칠 후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아내 드루실라를 동반하고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하여 들었다.
25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자 벨릭스는 겁이 나서 "이제 그만 가거라. 기회 있을 때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하고 말하였다.
26 그는 또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으려는 속셈으로 그를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27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바울을 계속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부임해 왔다.

25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갔다.
2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며
3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들은 도중에 사람들을 숨겨 놓았다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4 그때 베스도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나도 곧 그리로 가야 합니다.
5 만일 바울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의 대표자가 나와 함께 가서 그를 고소하도록 하시오."

바울의 재판

6 예루살렘에서 [2]열흘 가까이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간 베스도는 이튿날 법정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7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죄로 그를 고소하였으나 전혀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8 그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변명하였다.
9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고 물었다.
10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11 내가 만일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12 베스도는 배석한 사람들과 의논한 후 "네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

[1] 원문에는 '도' [2] 원문에는 '8일 내지 10일'

에게 갈 것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13 며칠 후에 아그립바왕과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예방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14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내는 중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왕에게 이야기했다. "여기에 벨릭스가 인계한 죄수 하나가 있습니다.
15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16 나는 그들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면하여 그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갖기 전에 그를 넘겨 주는 것은 로마 관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17 그들이 이 곳에 온 다음날 나는 지체하지 않고 법정을 열어 바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18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으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죄는 하나도 들춰내지 못하고
19 자기들의 종교 문제와 또 죽은 예수를 바울이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20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그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21 그러나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기에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22 이 말을 듣고 아그립바가 "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소" 하자 베스도는 "내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3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화려하게 차리고 와서 군 지휘관들과 그 도시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도 끌려나왔다.
24 이때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그립바왕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예루살렘과 이 곳 유대인들이 죽여야 한다고 외치며 내게 고소한 사람입니다.
25 그러나 내가 조사해 보니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었고 또 그가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6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하여 황제께 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하여 보고할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과 특히 아그립바왕 앞에 이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27 죄명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낸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

바울의 변호

26 아그립바왕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자 바울은 손을 들어 인사를 한 후 이렇게 변명하였다.
2 "오늘 아그립바왕 앞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것에 대하여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3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의 풍속과 문

제들을 잘 아시니 내 변명을 끝까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유대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 왔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5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생활해 왔다는 것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지금 내가 여기서 심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7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밤낮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약속입니다. 아그립바왕이시여, 나는 바로 이런 희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8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어째서 여러분은 믿지 못할 일로 여기십니까?
9 나도 전에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10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직접 감행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뒀으며 또 그들을 죽이는 데에도 찬성했습니다.
11 그리고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처벌하고 강제로 [1]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 대하여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나는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가서 신자들을 괴롭혔습니다.
12 "이런 일로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13 왕이시여, 정오쯤 되었을 때 내가 길에서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14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리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2]가시 채찍을 뒷발질해 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15 그래서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16 일어서라. 나는 이제 너를 일꾼으로 삼아 네가 오늘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보여 줄 일을 증거하게 하려고 너에게 나타났다.
17 내가 네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출하여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18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3]하늘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19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래서 나는 하늘의 그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20 먼저 다마스커스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것을 행동

[1] 또는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2] 또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3] 또는 '기업을'

으로 보이라고 외쳤습니다.
21 그러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22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23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24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25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26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만 아그립바왕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27 아그립바왕이시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시는 줄 압니다."
28 그러자 아그립바왕이 바울에게 "네가 [1]이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 같으냐?" 하였다.
29 그래서 바울은 "말이 적든 많든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묶인 일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0 그러자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또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
31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32 그때 아그립바왕은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놓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바울이 로마로 감

27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율리오라는 근위대 [2]대장에게 넘겨 주었다.
2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아시아 해안을 항해하려는 아드라뭇데노 항만 소속의 한 배를 타고 떠났다.
3 이튿날 배가 시돈에 닿자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해 주며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4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떠났으나 바람이 거슬러 불기 때문에 키프러스 섬의 북쪽 해안을 항해하여
5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 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6 거기서 근위대 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옮겨 태웠다.
7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앞 바다에 이르

[1] 또는 '그 짧은 시간에' [2] 원문에는 '백부장' (로마군 100명의 지휘관)

렀는데 바람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고 살모네 앞을 지나 크레테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
8 라새아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겨우 닿았다.
9 거기서 여러 날을 보내는 동안 [1]금식하는 때도 이미 끝난 시기여서 항해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10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번 항해로 하물과 배가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하고 경고하였으나
11 근위대 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12 또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가 적당치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뵈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였다. 뵈닉스는 남서편과 북서편이 트인 크레테섬의 항구였다.

바다의 폭풍

13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사람들은 잘 되었다 생각하고 돛을 올려 크레테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였으나
14 얼마 안 가서 [2]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다.
15 그러자 배는 태풍에 휩쓸려 바람을 뚫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16 그러다가 [3]가우다라는 작은 섬 남쪽까지 밀려왔을 때 겨우 거룻배를 잡아
17 선원들이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둘러 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 돛을 내리고 바람에 밀려 다녔다.
18 이튿날도 우리가 폭풍에 시달리자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19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까지 바다에 던져 버렸다.
20 더욱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이 계속되어 결국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21 그때 바울이 일어나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시달려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테섬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23 어젯밤 나의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25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1] 이것은 대속죄일의 금식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금식 기간은 계절상 지중해 항해가 어려운 9-11월에 들어 있다. [2] 또는 '북동풍' [3] 어떤 사본에는 '글라우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26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가 닿을 것입니다.”
27 14일째 되던 날 밤에도 우리는 아드리아해 부근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었다. 한밤중쯤 되어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28 수심을 재어 보니 약 [1]37미터였고 좀더 가서 다시 재어 보니 약 [2]28미터였다.
29 우리는 암초에 걸릴까 염려되어 배 뒷편에 닻 넷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3]기다렸다.
30 그런데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려는 체하며 바다에 거룻배를 띄웠다.
31 그때 바울이 근위대 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조되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자
32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떠내려 보냈다.
33 날이 밝아 올 무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폭풍에 시달려 왔습니다.
34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35 그러고서 바울은 빵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기 시작하였다.
36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는데
37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다.
38 다 배불리 먹은 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남은 밀을 바다에 던져 버렸다.

파선

39 날이 밝았을 때 선원들은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모래 사장이 있는 항만을 발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배를 대려고 하였다.
40 그들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앞 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안을 향해 들어갔다.
41 그러나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말려들어 모래톱에 좌초되어서 뱃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배 뒷 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지기 시작했다.
42 이렇게 되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한 사람이라도 헤엄쳐서 도망칠까 봐 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43 그러나 근위대 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군인들을 제지시키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에 오르라고 명령하였다.
44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판이나 뱃조각을 타고 가게 하여 모두 무사히 육지에 올라왔다.

28

육지에 무사히 오른 후에야 우리는 그 곳이 [4]몰타섬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2 토인들은 우리를 친절히 대해 주었으며 비를 맞고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불까지 피워 주었다.

[1] 헬 ‘20오르구이아’ (1오르구이아는 1.85미터) [2] 헬 ‘15오르구이아’ [3] 원문에는 ‘기도하였다’ [4] 또는 ‘멜리데’

3 그때 바울이 나무 한 아름을 불에 집어 넣자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워서 기어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다.
4 섬 사람들은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그가 바다에서는 간신히 살아 나왔으나 [1]정의의 신이 절대로 살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5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 버리고 전혀 해를 받지 않았다.
6 그들은 바울이 곧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았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렇지 않자 생각을 돌려 바울을 신이라고 하였다.
7 그 근처에는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다. 그 추장은 우리를 따뜻이 맞아 주고 3일 동안이나 정성껏 대접해 주었다.
8 그때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앓고 있어서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었다.
9 그러자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
10 그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깍듯이 대접해 주고 떠날 때는 필요한 물건까지 배에 실어 주었다.
11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의 [2]디오스구로호를 타고 떠나
12 시라쿠사에 배를 대고 거기서 3일을 머물렀다.
13 우리는 다시 레기온으로 가서 하루를 지낸 후 때마침 불어오는 남풍을 타고 이틀 후에 보디올에 닿았다.
14 우리는 거기서 몇몇 신자들을 만나 그들의 초대를 받고 일 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낸 후 로마에 도착하였다.
15 그 곳 신자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3]아피오 광장과 [4]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오자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함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과 함께 민가에 따로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17 사흘 후 바울은 그 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나 조상의 풍속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체포되어 로마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18 로마인들은 나를 심문해 보고 죽일 만한 죄가 없으므로 놓아 주려고 하였으나
19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하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20 나는 여러분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내가

[1]또는 '공의가' [2]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스톨'과 '폴룩스'를 가리키는 말. [3]로마에서 약 6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광장. [4]로마에서 약 53킬로미터 떨어진 '세 여관'이란 이름을 가진 곳.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21 그러자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여기 온 형제들 중에서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평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2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당신의 종파가 어디서나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23 그러고서 바울과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며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였다.

24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25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다음과 같이 잘 말했습니다.

26 [1]'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은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27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28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29 [2](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유대인들은 서로 격렬한 논쟁을 하다가 돌아갔다.)

30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31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1] 사 6:9, 10 [2] 어떤 사본에는 괄호 안의 구절이 없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 **저자** 바울.
◘ **연대** A. D. 57년경(바울의 에베소 목회 직후) 기록.
◘ **목적** 첫째,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다. 둘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로마 방문과 서바나(스페인) 선교가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한다.
◘ **개요** 1장–3:20 : 구원의 필요성. 3:21–5장 : 칭의. 6–8장 : 성화. 9:1–29 : 이스라엘의 과거(선택). 9:30–10장 : 이스라엘의 현재(배척). 11장 : 이스라엘의 미래(회복). 12–13장 : 성도의 의무. 14장–15:13 : 성도의 자유. 15:14–16장 : 맺는 말.

롬

1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2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3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4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6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7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가 된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생명

8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10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1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13 형제 여러분,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좋은 결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

루지 못했습니다.
14 나는 [1]문화인이건 야만인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15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16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7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2]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3]"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불순종에서 오는 죽음

18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19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 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20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21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22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23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24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6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27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28 사람들이 [4]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29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1] 원문에는 '헬라인' [2] 원문에는 '하나님의 의' [3] 합 2:4 [4] 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30 서로 헐뜯고 [1]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31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32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형벌

2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5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6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7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시고
8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9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환란과 고통을 당할 것이며
10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마찬가지입니다.
11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12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율법에 관계없이 망하고 율법 아래서 죄 짓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3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14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15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

[1] 또는 '하나님의 미움을 사며'

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16 내가 전한 기쁜 소식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17 그러나 유대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18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상의 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19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소경의 길잡이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며

20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지식과 진리의 모든 내용이 율법에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22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간음하며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23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24 그것은 성경에 [1]"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25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의 [2]할례가 가치가 있으나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맙니다.

26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할례받은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27 그래서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여러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28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29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유대인의 유익

3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2 여러 모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3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4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3]"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5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

[1] 사 52:5 [2]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들의 포피를 자르던 유대인의 의식. [3] 시 51:4

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의 논리대로 말합니다.)
6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7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말했다면서 우리를 헐뜯고 다니는데 그들은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9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10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1]"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2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13 [2]"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남을 속인다." [3]"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4]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15 [5]"그들은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니
16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르고
17 그들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다."
18 [6]"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19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20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21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7]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2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4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시 14:1-3, 53:1-3, 전 7:20 [2] 시 5:9 [3] 시 140:3 [4] 시 10:7 [5] 사 59:7, 8 [6] 시 36:1 [7] 원문에는 '하나님의 의'

25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26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27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28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29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30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해 주십니다.
31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욱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4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 성경에는 [1]"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 일해서 받는 삯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5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6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2]"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9 그렇다면 이런 행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0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입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받기 [3]전이

롬

[1] 창 15:6 [2] 시 32:1, 2 [3] 창 17:23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다.

었습니다.

11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2 그는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좇아 사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1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4 만일 세상을 얻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도 무가치합니다.

15 [1]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자연히 어기는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17 이것은 성경에 [2]"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8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3]"네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백 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2 그래서 [4]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23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24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25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

[1]본절 상반절은 '율법은 진노를 초래한다'는 원문을 의역한 것이다. [2]창 17:5 [3]창 15:5 [4]창 15:6

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5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1]화목하게 되었습니다.
2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3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5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6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7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9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2]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11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대조

12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13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그 때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3]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15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16 또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1] 어떤 사본에는 '화평을 누리자' [2] 원문에는 '진노' [3] 또는 '오실 자의 표상'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7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8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1]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9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20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21 그래서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힘이 꺾이다

6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2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3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2]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4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6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7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9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으실 수 없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11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

[1] 또는 '한 의로운 행동' [2] 또는 '침례'

있다고 여기십시오.
12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13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4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15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6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1]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므로
18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19 여러분은 본래 [2]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부정과 불법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20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21 그 결과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생활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22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23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율법에서의 해방

7 형제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2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3 남편이 살아 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게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4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3]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1] 또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2] 원문에는 '육신' [3] 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5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7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1]"탐내지 말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8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9 [2]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10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11 이것은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12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13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인 것은 죄입니다.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죽였으니 죄는 계명으로 철저하게 악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모순

14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15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16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17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18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3]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21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22 나의 [4]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23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1] 출 20:17, 신 5:21 [2] 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3] 원문에는 '육신' [4] 또는 '속 사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4 아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8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2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1]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3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4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5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6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7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8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새 성품의 지배

9 그러나 [2]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11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2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지고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14 [3]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4]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1] 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2] 원문에는 '하나님의 영' [3] 원문에는 '하나님의 영' [4] 원문에는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17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18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9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1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런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22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3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24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 앞에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6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27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8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9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30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31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32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33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34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35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36 이것은 성경에 [1]"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37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38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2]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산

9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3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 하나님은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여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그들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 예배와 받은 약속이 있고
5 훌륭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6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조상을 두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며
7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3]"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4]네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9 그 약속은 [5]"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0 이뿐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과 결혼하여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롬

[1] 시 44:22 [2] 원문에 '높음이나 깊음'으로 되어 있는 이 말은 학자들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 '행복과 불행', '명예와 수치',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것'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3] 창 21:12 [4] 또는 '네 씨라 칭하리라' [5] 창 18:10, 14

11–12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1]"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며

13 또 그것은 성경에 [2]"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14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으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5 하나님은 모세에게 [3]"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 그러므로 [4]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17 하나님은 바로에게 [5]"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십니다.

19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21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22 만일 하나님이 노여우심을 보이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 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3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4 유대인 가운데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불러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5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예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6]"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 이라 부르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 라고 부를 것이다."

26 [7]"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한 바로 그 곳에서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27 그리고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8]"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구원받을 것

[1]창 25:23 [2]말 1:2, 3 [3]출 33:19 [4]또는 '그것은' [5]출 9:16 [6]호 2:23 [7]호 1:10 [8]사 10:21–23

이다.

28 주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속히 이루실 것이다."

29 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1]"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30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31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이스라엘은 그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2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그것을 추구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33 이것은 성경에 [2]"보라!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를 시온에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믿음과 고백

10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3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4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5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마음속으로 [3]'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며

7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4]'누가 [5]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8 이것은 [6]"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9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 성경에서도 [7]"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2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롬

[1] 사 1:9 [2] 사 8:14, 28:16 [3] 신 30:12 [4] 신 30:13 [5] 헬 '아뷔소스' (밑 없는 깊은 구렁) [6] 신 30:14 [7] 사 28:16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3 [1]"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14 그러나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15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2]"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16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3]"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17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18 그러면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4]"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 끝까지 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19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하여 [5]"나도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애정을 주어 너희를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20 그리고 이사야는 더욱 담대하게 [6]"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고 나에게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21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7]"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맞으려고 하루 종일 내 팔을 벌렸다"라고 하신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

11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2 하나님은 [8]처음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걸어 하나님께 고발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3 [9]"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 버렸으며 살아 남은 예언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0]"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5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1] 욜 2:32 [2] 사 52:7 [3] 사 53:1 [4] 시 19:4 [5] 신 32:21 [6] 사 65:1 [7] 사 65:2 [8] 원문에는 '미리 아신' [9] 왕상 19:10, 14 [10] 왕상 19:18

6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7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얻었으며 나머지는 완고해지고 말았습니다.
8 그것은 성경에 [1]"하나님이 그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오늘날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9 다윗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그들의 식탁이 올가미와 덫과 거치적거리는 장애물과 죄값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10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 있게 하소서."
11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영영 패망하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범죄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고 질투하게 하셨습니다.
12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더 큰 축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13 나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니 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14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그 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5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 주실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16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17 참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고 돌감람나무인 여러분이 거기에 접붙여져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양분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18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여러분은 그 꺾인 가지들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랑하여도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19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접붙임을 위해서 가지들이 꺾여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20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꺾여졌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접붙여졌으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21 하나님께서 원 가지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인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2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

롬

[1] 신 29:4, 사 29:10 [2] 시 69:22, 23

로우심과 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23 꺾인 가지와 같은 유대인들도 그들의 불신앙만 버린다면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24 원래 돌감람나무였던 여러분이 거기서 잘려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을 본래의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일이야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25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도 한 가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1]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을 고집하겠지만

26 그 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2]"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할 것이다.

27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그들과 맺을 내 계약이다."

28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이란 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29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30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31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 두시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33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35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 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36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함

12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3]영적

[1] 또는 '이방인의' [2] 사 59:20, 21, 27:9 [3] 또는 '합당한 예배'

예배입니다.

2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3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6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1]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7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8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지도자는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9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10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11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12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13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14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15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17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2]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18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19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3]"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 또 [4]"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네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21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성도는 충성된 시민이 되어야 한다

13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

[1]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2] 원문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3] 신 32:35 [4] 잠 25:21, 22

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3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를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4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5 그러므로 꼭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6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세금도 잘 바쳐야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일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7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쳐야 할 세금은 바치고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며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8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9 [1]"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2]"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10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1 [3]이제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12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4]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13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14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서로 비난하지 말 것

14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 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2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것이

[1] 출 20:13-17, 신 5:17-21 [2] 레 19:18 [3] 또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4] 원문에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4 누가 감히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서든 넘어지든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5 사람에 따라 어느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일입니다.

6 어느 한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가리지 않고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도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8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9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10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1 성경에도 [1]"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자백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14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습니다.

15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형제를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16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18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1] 사 45:23

19 그러므로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20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 놓지 마십시오. 음식은 다 좋은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서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21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꺼림칙하게 하는 것이라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 밖의 일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22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3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15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3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주께 던진 모욕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4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가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희망을 갖도록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 정신을 주셔서
6 여러분이 한마음과 한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도 기뻐할 수 있음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이 맞아들이십시오.
8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 [2]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보이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며
9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3]"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10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4]"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11 [5]"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송하라."
12 또 이사야도 [6]"[7]이새의 후손이 나타나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희망을 걸 것이

[1] 시 69:9 [2] 원문에는 '할례의 수종자' [3] 삼하 22:50, 시 18:49 [4] 신 32:43 [5] 시 117:1 [6] 사 11:10 [7] 원문에는 '이새의 뿌리'

다"라고 하였습니다.

13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14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하고 지혜로워서 충분히 서로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5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점을 상기시키려고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16 그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18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과 행동과

19 놀라운 기적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힘껏 전했습니다.

20 나는 남이 세워 놓은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21 이것은 성경에 [1]"그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것이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22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23 그러나 이제는 이 지방에서 할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를 두고 벼르던 대로

24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먼저 로마에 있는 여러분을 방문하여 얼마 동안 교제를 가진 후에 거기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곤경에 처한 그리스도인을 도움

25-26 그러나 지금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사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정성껏 헌금한 돈을 전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27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축복을 나눠 가졌다면 마땅히 물질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28 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안전하게 전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29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축복을 가져가리라고 믿

[1] 사 52:15

습니다.

30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31 내가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섬기는 일이 그 곳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2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33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문안 인사

16 나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2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그녀를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으며 나도 그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3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1]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4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5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배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2]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성도입니다.

6 여러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7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8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9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친구 스다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아리스도불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깃수의 집안 사람 중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2 주 안에서 수고한 [3]두 자매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한 사랑하는 자매 버시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3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14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 또는 '브리스길라' [2] 곧 '소아시아 서해안 지방' [3] 암시됨.

15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6 여러분은 [1]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7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분열을 일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18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2]이익만을 추구하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19 여러분의 순종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20 평화의 하나님이 곧 사탄을 쳐서 여러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1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2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3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나와 성도들을 접대한 가이오와 이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믿음의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4 [3](없음)
25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만
26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계시되고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27 이처럼 지혜로운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롬

[1] 원문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2] 또는 '배만 섬기나니' [3] 어떤 사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 있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I (고린도전서)

◘ **저자** 바울.
◘ **연대** A.D. 55년경(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기록.
◘ **목적** 첫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좋지 못한 소문과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여러 질문들에 답변한다. 둘째,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타락한 세상 풍조를 좇지 말고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도록 교훈한다.
◘ **개요** 1–4장 : 교회내의 분열상과 분열의 이유. 5–6장 : 교회내의 타락상(근친 상간, 소송 문제, 성적 부도덕). 7–15장 : 교회내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결혼, 우상 제물, 공중 예배, 부활). 16장 : 구제 헌금 요청, 마지막 당부와 인사말.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믿음의 형제 소스데네는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성도가 된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각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의 분쟁

4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5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지식을 포함하여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6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을 굳게 믿고
7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 그분은 [1]재림하시는 날에 여러분이 흠 없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9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0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부디 서로 갈라지지 말고 [2]의견을 모아 한 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십시오.
11 나는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2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말한다니
13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누어졌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3]세례를 받았습니까?
14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4]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5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도 내 이름으

[1] 원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2] 또는 '같은 말을 하고' [3] 또는 '침례' [4] 또는 '침례'

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6 스데바나의 가족에게 세례를 주긴 했지만 그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17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18 십자가의 [1]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9 성경에도 [2]"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쓸모없게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21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22 유대인은 기적을 보기 원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24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25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합니다.

26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27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28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29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0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3]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31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의 [4]"자랑하

고전

[1] 헬 '로고스' [2] 사 29:14 [3] 또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4] 렘 9:24

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2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2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3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4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5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7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8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9 그것은 성경에 [1]"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10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11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2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3 이것을 말하는 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2]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14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15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16 성경에도 [3]"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1] 사 64:4 [2] 또는 '영적인 사람에게' [3] 사 40:13

미숙의 결과

3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듯 말합니다.

2 내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5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여러분을 믿게 한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8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9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건물입니다.

10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11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12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3 그러나 심판 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14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15 그것이 타 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 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16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1]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18 여러분은 아무도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1] 또는 '파괴하면' (원문에는 '더럽힌다'와 '멸망시킨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다.)

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19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1]"하나님이 약삭빠른 자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고

20 또 [2]"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21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22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온 세계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 다 여러분에게 속하였고

23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2 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3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내가 양심에 가책을 받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5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때에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의 교훈

6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나 자신과 아볼로의 경우를 들어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배워서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7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8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얻었고 이미 부요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 하고 있다고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사형장의 죄수들처럼 제일 천한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가

[1] 욥 5:13 [2] 시 94:11

온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10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으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하며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습니다.

11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12 생활비를 위해 수고하며 손수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욕을 얻어먹어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13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달래니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14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15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얼마든지 모실 수 있으나 아버지는 많이 모실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6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17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으니 내가 각처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내 행동 원리를 그가 여러분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18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19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21 여러분은 어느 것을 더 원하십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바울이 출교를 명령함

5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니 그런 짓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2 그러고도 여러분은 잘난 체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비통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3 내가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그 곳에 있는 것처럼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이미 [1]처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내가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5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 주어 육

[1] 또는 '판단하였노라'

체는 파멸되더라도 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받게 하십시오.

6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7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8 그러므로 악의와 죄악의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9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10 이것은 이 세상의 음란한 사람들과 탐욕이 많은 사람들과 사기꾼과 우상 숭배자와 같은 불신자들을 전혀 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 내가 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설을 일삼고 술 취하고 사기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12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아라

6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2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사건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3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일쯤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4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5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자들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6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7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8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형제에게 피해를 주고 형제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9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1]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연애자와
10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1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12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13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십니다.
14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15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창녀의 지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16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2]"두 사람이 한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영이 됩니다.
18 여러분은 음란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19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20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결혼에 대한 질문

7 이제 여러분이 보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러나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게 하십시오.
3 남편은 아내에게 그의 [3]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십시오.
4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5 여러분은 [4]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

[1] 또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2] 창 2:24 [3] 원문에 '빚을 갚고'로 되어 있는 이 말은 부부 생활의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다. [4] 또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마십시오'

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6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1]권면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7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8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9 그러나 스스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10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됩니다.

11 만일 헤어지더라도 혼자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12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경우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13 또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 그가 아내와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14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지 못할 것이지만 이제는 거룩합니다.

15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고 싶어하거든 떠나게 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6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7 다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나는 어느 교회에서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8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받은 표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19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 그러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21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

[1] 또는 '양보'

나 [1]자유의 몸이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 길을 찾으십시오.
22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며 부르심을 받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23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24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25 처녀에 대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 내 의견을 말합니다.
26 [2]임박한 재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7 아내가 있는 사람은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없는 사람은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28 그러나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여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고달프기 마련이므로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29 형제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같이 사십시오.
30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같이 하며 무엇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31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같이 하십시오.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가 버립니다.
32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지만
33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에 신경을 쓰게 되어
34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35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6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느끼고 또 한창 꽃다운 시절이 지나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37 그러나 꼭 결혼을 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마음을 굳히고 자기 딸을 그냥 머물러 있게 하기로 작정하여도 잘하는 일입니다.
38 그러므로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고전

[1] 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더라도 그대로 지내십시오' [2] 또는 '현재의'

일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일입니다.

39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은 그에게 매인 몸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40 하지만 내 판단에는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8 이제 우상 앞에 바친 제물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2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3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 주십니다.

4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5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합니다.

6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7 그러나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져서 더럽혀집니다.

8 그러나 음식은 [1]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9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0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11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12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 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2]제물

[1] 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2] 원문에는 '고기'

고전

을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함

9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 결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2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4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5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1]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습니까?

6 어찌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7 자기 비용으로 군대 생활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먹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양을 기르는 사람 치고 그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8 내가 사람의 견지에서만 이것을 말합니까?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 모세의 율법에는 [2]"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10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 가는 사람이나 타작하는 사람은 제 몫을 받을 희망을 가지고 일합니다.

11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린 우리가 물질적인 수확을 거둔다고 해서 이것을 지나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12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큰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될까 봐 모든 것을 참아 왔습니다.

13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14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5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 달라는 뜻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아무도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6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

[1] 또는 '게바' [2] 신 25:4

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17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겠지만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18 그렇다면 내가 받을 보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는 것과 나의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그것입니다.
19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20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1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2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3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단련하여 승리하여라

24 경기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자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25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26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27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10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 때에 우리 조상들은 모두 [1]구름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2 그들은 모두 모세를 따라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2]세례를 받았고
3 똑같이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며
4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이 물을 신령한 바위에서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들과 함께하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5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6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도 그들처럼 악을 좋아해서는 안

[1] 또는 '구름 아래 있고' [2] 또는 '침례'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7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1]"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맙시다.
9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2]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10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11 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상 끝날을 눈 앞에 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기록되었습니다.
12 그러므로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13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14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15 내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16 우리가 감사하며 받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17 빵이 하나인데 우리가 다 그 빵을 함께 나눠 먹으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한몸이 된 것입니다.
18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19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0 그러나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21 주님의 잔을 마시는 여러분이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으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22 우리가 주님을 [3]노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단 말입니까?
23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24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25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무엇이든 양

[1] 출 32:6 [2] 어떤 사본에는 '그리스도' [3] 또는 '질투나게'

심에 거리낌없이 먹어도 됩니다.
26 이것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7 여러분이 불신자의 초대를 받고 가거든 차려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거리낌없이 먹으십시오.
28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고 하거든 말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29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0 감사하고 먹으면서 왜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남의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32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은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33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여자의 지위

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2 여러분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해 준 [1]교훈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4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2]말씀을 전하면 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5 또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그녀의 머리인 제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여자의 머리는 민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6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아 버리십시오.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면 머리에 무엇을 쓰십시오.
7 남자는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을 지녔기 때문에 머리에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10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표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합니다.
11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1] 또는 '전승' [2] 또는 '예언하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12 그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창조된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13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14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그것이 자기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15 그러나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에게 자랑이 됩니다. 그것은 여자의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16 비록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다 하여도 우리에게와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관습이 없습니다.

성찬에 대한 문제

17 다음의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18 우선 나는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임을 나는 믿습니다.

19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당파가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20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먹는 그것은 진정한 성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1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 버리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입니다.

22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로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23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팔리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24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26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28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살핀 후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29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1]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30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31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32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33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찬을 위해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34 누구든지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 곳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12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선물에 대하여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2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3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4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며
5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6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7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을,
9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10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2]예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11 이 모든 것은 같은 한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한 몸과 많은 지체

12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도 그것이 다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13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성령님으로 [3]세례를 받아 한몸이 되었고 한

[1] 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3] 또는 '침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14 몸은 한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15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6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7 만일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으며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18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한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19 만일 모두 한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입니까?
20 그래서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21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22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23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24 그러나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25 그래서 몸 안에 분열이 없이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합니다.
27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28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런 지체들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이며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다음은 병 고치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9 모든 사람이 다 사도나 예언자나 교사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30 또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통역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31 여러분은 더욱 큰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랑

13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놋쇠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또 내 몸을 [1]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4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5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6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7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8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9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10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습니다.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 있을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예언과 방언

14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며 특별히 [2]예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2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도 그는 영으로 신비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4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5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기를 바라지만 예언하기를 더욱 바랍니다. 방언을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방언하는 사람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6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7 피리나 거문고와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명확하게 구별된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8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까?

[1] 어떤 사본에는 '자랑하기 위해' [2]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9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허공에다 말하는 셈이 됩니다.
10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있으나 뜻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11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처럼 되고 그도 나에게 외국인처럼 될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13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도록 기도하십시오.
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5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면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6 만일 여러분이 영으로만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17 아무리 감사와 찬양을 훌륭하게 드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18 나는 여러분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9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일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을 가르치기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다섯 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20 형제 여러분, 아이들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21 율법에서도 [1]"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지껄여대는 외국 사람을 통해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이며 반면에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한 표입니다.
23 만일 온 교회가 모여서 모두 방언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24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을 때 불신자나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5 그리고 자기 속에 숨은 것까지 드러나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예배 규칙

26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1] 사 28:11, 12, 신 28:49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찬송하든지 가르치든지 계시를 말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그것을 통역하든지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십시오.

27 만일 누가 방언을 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통역하십시오.

28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29 예언도 두세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1]새겨 들으십시오.

30 그러나 자리에 앉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을 때에는 먼저 말하던 사람은 조용히 하십시오.

31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차례로 모두 예언할 수 있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32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34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조용히 하십시오. 율법에도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35 만일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 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36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37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선물을 받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38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39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더라도 방언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40 다만 이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

15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2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3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5 그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열두 제자에게 나타

[1] 또는 '분별하십시오'

나셨으며
6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7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8 맨 나중에는 [1]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9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10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1 일한 사람이 나든 그들이든 우리가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여러분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부활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3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4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15 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16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며
17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18 그리스도 안에서 [2]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19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2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열매가 되셨습니다.
21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22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3]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23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고전

[1] 원문에는 '조산아와 같은' [2] 원문에는 '잠자는' [3]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24 그런 다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1]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 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 드릴 것입니다.
25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26 그리고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27 성경은 [2]"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신 하나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28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신 분에게 복종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29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3]세례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째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습니까?
30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위험을 당해야 합니까?
31 형제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32 내가 만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4]"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33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악한 친구와 사귀면 좋은 버릇마저 그르치게 됩니다.
34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의 몸

35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36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37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형체를 갖춘 식물이 아니라 밀이나 그 밖의 다른 씨앗입니다.
38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 하나하나에 본래의 형체를 주십니다.
39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다릅니다.
40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의 형체도 있으나 그 영광이 각각 다르며
41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릅니다.
42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

[1] 또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2] 시 8:6 [3] 또는 '침례' [4] 사 22:13

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3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44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45 성경에 [1]"첫 사람 아담은 산 [2]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46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왔으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47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48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49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50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으며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51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52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53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54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3]"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5 [4]"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58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

16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2 여러분은 [5]일요일마다 각자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 놓아서 내가 갈 때 헌금을 거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3 내가 그 곳에 가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소개 편지를 주고 그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헌금을 예

고전

[1]창 2:7 [2]헬 '혼' [3]사 25:8 [4]호 13:14 [5]원문에는 '매 주일 첫날에'

루살렘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5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야 하므로 그 곳에 들른 후에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6 나는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겨울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지금은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얼마 동안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8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합니다.
9 이것은 내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0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평안히 보내 내게 돌아오게 하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 그리고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했으나 지금은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될 것입니다.
13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십시오.
14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15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믿었으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 바쳐 일해 왔습니다.
16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17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기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못다 한 것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18 그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1]고맙게 생각하십시오.
19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하고
20 이 곳에 있는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2]주님 안에서 따뜻한 인사를 서로 나누십시오.
21 나 바울은 손수 이 문안의 글을 씁니다.
22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3]마라나다

[1] 또는 '알아 주라' [2] 원문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3] 이 말은 아람어로서 '주님이 오십니다' 또는 '주여, 오소서'라는 뜻이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24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Ⅱ (고린도후서)

저자 바울.
연대 A. D. 55–56년경(바울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머물고 있던 때) 기록.
목적 첫째,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모함을 일소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해소하려 한다. 둘째,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당부한다.
개요 1장–2:11 : 계획의 변경. 2:12–6:10 : 복음 사역의 원리. 6:11–7장 : 사도로서의 권고와 훈계. 8–9장 :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권고. 10–12장 : 고소자에 대한 답변과 사도권 해명. 13장 : 방문 계획.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심

3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생활에 넘치듯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고 있습니다.
6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확고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위로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8 형제 여러분, 우리가 [2]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1] 어떤 사본에는 '아멘'이 없음. [2] 곧 '소아시아'

9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이며 또 건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11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12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13–14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서 보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1]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5 나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두 차례 은혜를 받게 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16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가 거기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

17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데 경솔히 했겠습니까? 내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쉽게 "예, 예" 했다가 같은 입으로 금방 "아니오, 아니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8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예" 했다가 금방 "아니오" 한 것이 아닙니다.

19 나와 [2]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했다가 "아니오" 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20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21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3]구별해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2 또한 그분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23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말하

[1] 원문에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2] 또는 '실라' [3] 원문에는 '기름을 부으신'

지만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입니다.
24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다시는 내가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2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내가 슬프게 했던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3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갈 때 당연히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슬픔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기쁨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4 내가 근심하고 몹시 괴로워하며 많은 눈물로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는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말이 될까 봐 이 정도로 말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한 그 벌로도 그에게는 충분합니다.
7 이제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가 너무 슬퍼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8 그러므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9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가를 알아보려고 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10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11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12 내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13 그러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편치 못한 마음으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6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17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팔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지인 여러분

3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2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3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4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5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6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새 영광

7 모세가 돌에 새긴 율법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는 밝은 광채가 났습니다. 곧 사라지긴 했지만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의 직분도 그처럼 영광스럽다면

8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9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0 이런 점에서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그보다 더 나은 영광 때문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11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12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3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4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둔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옛 계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15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17 주님은 영이시므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없이 생활합니다.
3 만일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가리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어진 것입니다.
4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5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6 [1]"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화를 담은 질그릇

7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8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9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10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살아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3 [2]"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합니다.
14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5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1] 창 1:3 [2] 시 116:10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 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18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5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2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면 벗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있는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어서 [1]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5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집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7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8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입니다.
9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0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11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2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여러분에게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주어서 여러분이 내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13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14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1] 또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15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6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1]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18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19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2]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2 하나님은 [3]"내가 은혜의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3 우리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5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에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6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8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고후

[1] 또는 '피조물' [2] 또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3] 사 49:8

9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 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10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11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 없이 말하였고 여러분을 향해 우리 마음을 넓게 열어 놓았습니다.

12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13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권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 치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불신자와 연합하지 말 것

14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1]연합하지 마십시오.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15 그리스도와 [2]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16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7 [4]"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겠다."

18 [5]"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한 주의 말이다."

7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2 여러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해치거나 속여 뺏은 일도 없습니다.

3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여러분을 늘 생각하며 사나 죽으나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4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자랑하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유익한 고통

5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에도 우리 몸이 편치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해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 또는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 [2] 헬 '벨리알' [3] 레 26:12, 렘 32:38, 겔 37:27 [4] 사 52:11 [5] 삼하 7:14

6 그러나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디도를 보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7 이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깊이 뉘우치며 나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디도에게서 듣고 더욱 기뻤습니다.
8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잠시나마 그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 것을 알고 후회하기도 했으나
9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므로 우리 때문에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10 [1]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11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자신에 대한 해명과 정의의 분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리워함과 열심과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할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12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잘못을 범한 사람과 그 피해자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이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3 이것으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로 외에도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뻤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4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진실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15 디도는 여러분이 모두 순종하여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16 나도 이제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의 후한 헌금

8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알리려고 합니다.
2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4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1] 또는 '경건한 슬픔'

고후

5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6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계속하여 끝내도록 격려했습니다.
7 여러분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헌금하는 이 은혜로운 일에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8 내가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심과 비교하여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아보려는 것뿐입니다.
9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 헌금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지난 해부터 남보다 먼저 시작한 일이니
11 이제 그 일을 끝내십시오. 여러분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12 여러분에게 바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대로 받을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3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지금 넉넉하게 사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그들도 넉넉할 때에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15 성경에도 [1]"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16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과 같은 열심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7 그는 우리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열렬한 마음으로 자진해서 여러분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18 그리고 우리는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냅니다.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19 더구나 그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돕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을 보이려고 이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갈 때 우리와 동행하도록 여러 교회가 뽑은 사람입니다.
20 우리는 이 거액의 헌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무에게도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21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22 그들과 함께 또 다른 한 형제를 보

[1] 출 16:18

냅니다. 우리가 그를 여러 번 시험해 보았지만 모든 일에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23 디도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는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며 동료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24 그러므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9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나는 여러분의 열심을 잘 알기 때문에 [1]여러분이 지난 해부터 이 일을 준비했다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심에 대해서 듣고 자극을 받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내가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만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처럼 믿었던 일에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5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이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축복의 헌금이 되고 탐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6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7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8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9 성경에도 [2]"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후하게 구제해 주었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11 그리하여 여러분은 모든 것에 풍족하여 후한 헌금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 헌금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12 이와 같이 돕는 일은 성도들의 부족

[1] 또는 '아가야에서는' [2] 시 112:9

한 것을 채워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넘치게 합니다.
13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봉사의 직무는 여러분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후한 헌금을 한다는 증거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4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15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자기 권위에 대한 소신

10 여러분을 마주 대하면 비겁하고 떠나 있으면 대담하다는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너그러우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2 우리가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엄하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갈 때 여러분에게는 가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3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5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그리고 우리는 일단 여러분이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 여러분은 사물의 겉만 보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여러분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내가 이것을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9 나는 편지로만 여러분을 놀라게 한다는 인상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10 어떤 사람들이 내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해 보면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말합니다.
11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편지로 쓴 말과 우리의 실제 행동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2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분류하거나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하므로 지혜가 없습니다.
13 그러나 우리는 정도에 지나친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범위 내에서 자랑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일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으므로 우리가 그 곳에 갔다고 해서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손을 뻗친 것은 아닙니다.
15 우리는 남이 수고한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일도 주어진 한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16 그것은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더 멀리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17 그러나 [1]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18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11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참고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2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기하듯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이브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2]진실과 순결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4 그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를 조심하라

5 나는 저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 내가 말재주는 별로 없으나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7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값 없이 전한 것이 죄였단 말입니까?
8 내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교회들이 내 생활비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의 원조로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9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생활이 어려웠지만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0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실을 두고 말하지만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11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12 나는 지금까지 해 온 일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노리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도 우리처럼 보수를 받지

[1] 렘 9:24 [2] 또는 '순진함'

않고 일하는 것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3 그들은 거짓되고 속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4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15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과 고생

16 거듭 말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 그대로 나를 받아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7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18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으로 자랑하므로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19 지혜롭다는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용납하고 있습니다.

20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여러분에게 거만을 떨거나 여러분의 뺨을 쳐도 여러분은 잘 참고 견딥니다.

21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차마 그런 짓은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22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를 정신병자로 보겠지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24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25 또 세 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으며 세 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26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27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주리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28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9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30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내 약한 것이나 자랑하겠습니다.

31 길이길이 찬송을 받으실 주 예수님

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다.

32 다마스커스에서 아레다왕의 장관이 나를 잡으려고 성문을 지킬 때

33 나는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12 자랑해서 이로울 것은 없으나 주님께서 보여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4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5 이런 경험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6 내가 만일 자랑한다고 해도 나는 사실을 말할 것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할 것 같아서 자랑은 그만두겠습니다.

7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8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9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 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11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으나 이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습니다.

12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참고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보여 주는 표인 것입니다.

13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교회에 비해 불공평하게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이것이 잘못이라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울의 세 번째 방문

14 나는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15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6 어쨌든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운 일이 없어도 간교하게 속임수로 여러분을 착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 내가 누구를 보내서 여러분을 착취했습니까?

18 내가 디도를 권해서 다른 형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낸 일이 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했습니까? 그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19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가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1]돕기 위한 것입니다.

20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서로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파 싸움과 비난과 험담과 교만과 소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21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더러움과 음란과 방탕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그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13 나는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말을 들어서 확정될 것입니다.

2 내가 지금 여러분을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에 죄 지은 사람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해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범죄한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다루실 때 약하시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서 강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4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며 여러분의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라

5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1] 또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6 우리가 그 시험에 불합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7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받은 사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8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9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게 되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 이런 이유로 내가 떠나 있으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면 내가 받은 특권을 가지고 너무 가혹하게 여러분을 꾸짖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권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1]기뻐하십시오. 완전해지십시오. 내 권면을 받아들이고 한마음으로 사이 좋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2 여러분은 [2]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13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 **저자** 바울.
- **연대** A. D. 56년경(제3차 전도 여행 도중) 기록.
- **목적** 첫째, 교회내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배척하고 오직 믿음으로써만 구원얻는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준다. 둘째,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의 온전성을 확증한다.
- **개요** 1장 : 바울의 사도권 변증. 2장 : 바울의 권위. 3장 : 율법의 속박. 4장 : 은혜의 자유. 5장–6:10 : 이신 칭의의 적용. 6:11–18 : 훈계와 축복.

1

사람이 보냈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1] 또는 '안녕히 계십시오' [2] 원문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 사도가 된 나 바울과
2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를 바치셨습니다.
5 하나님 아버지께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

6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1]복음을 따르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8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9 우리가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다시 말하지만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기쁜 소식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10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11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합니다만 내가 전한 기쁜 소식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12 이 기쁜 소식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13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일들을 여러분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예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14 나는 같은 나이 또래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15–16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어 이방인들에게 그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2]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으며
17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습니다.
18 그 후 나는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19 나는 거기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1] 또는 '기쁜 소식' [2] 원문에는 '혈육'

20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21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22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내 얼굴을 몰랐습니다.
23 그들은 전에 자기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지금은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말만 듣고
24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

2 그로부터 14년 후에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 갔습니다.
2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기쁜 소식을 [1]공식 석상에서 전하였고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한 일과 현재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을까 염려해서였습니다.
3 나와 동행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4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5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언제나 기쁜 소식의 진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한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6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7 그들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같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보았습니다.
8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어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9 그리고 기둥 같은 지도자로 알려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10 또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부탁했는데 그 일은 내가 전부터 열심히 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11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12 그것은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1] 원문에는 '그들에게'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 버린 일이었습니다.

13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체 하며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14 그래서 나는 그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15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지 소위 말하는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16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판명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18 내가 이미 헐어 버렸던 율법의 체계를 다시 세운다면 나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19 나는 율법에 관한 한 율법 그 자체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1 나에게는 [1]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함

3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 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2 내가 여러분에게서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3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2]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4 기쁜 소식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여러분이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린단 말입니까?

5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6 성경에는 [3]"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

[1] 원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 [2] 또는 '육체로' [3] 창 15:6

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8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1]"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9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10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2]"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3]"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4]"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5]"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과 약속

15 형제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한 번 맺은 계약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16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에게'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6]후손에게'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7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18 만일 [7]우리가 받을 하늘 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19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 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20 그러나 [8]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

갈

[1] 창 12:3 [2] 신 27:26 [3] 합 2:4 [4] 레 18:5 [5] 신 21:23 [6] 헬 '씨' [7] 또는 '유업' [8]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는 한글 개역 성경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긴 하지만 이것은 난해 구절로서 그 해석이 무려 430여 종이 된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지지도가 높은 것을 골라 본문을 의역하였다.

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약속을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율법의 목적

21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3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24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25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26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1]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28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29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4

여러분,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없으며
2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 아래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2]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4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5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3]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7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8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신들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9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약하고 무가치하며 유치한 율법으로 되돌아가 다

[1] 또는 '침례' [2] 또는 '세상 초등 학문' [3] 또는 '자기 아들의 영'

시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10 여러분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하니
11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나 걱정됩니다.

바울의 실망

12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13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14 내 병이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15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16 이제 와서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17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버리고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8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19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20 나는 여러분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으므로 이제라도 직접 만나 보고 여러분에 대한 내 태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21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살기를 원하면서도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22 율법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를 누리는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23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1]보통 방법으로 났고 자유를 누리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났습니다.
24 이것은 비유로서 두 여자는 두 계약을 말합니다. 한 계약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으로 종살이할 아기를 낳은 하갈을 의미합니다.
25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그 자녀들과 함께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27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

[1] 원문에는 '육체를 따라' [2] 사 54:1

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28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29 그때 보통 방법으로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괴롭힌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0 그러나 성경에는 [1]“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여종의 아들은 자유를 누리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1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심

5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2 나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 내가 다시 말하지만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5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2]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6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7 전에는 여러분이 [3]신앙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8 그런 설득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9 [4]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10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케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1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2 할례를 주장하면서 혼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은 할례의 대상이 되는 그 지체를 아주 잘라 버리기를 바랍니다.

13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14 모든 율법은 [5]“네 이웃을 네 몸과 같

[1] 창 21:10 [2] 또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3] 원문에는 ‘달음질을 잘하더니’ [4] 원문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5] 레 19:18

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5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령님과 육체의 욕망

16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17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18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19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20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21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22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23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24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25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26 그러므로 우리는 [1]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서로 짐을 져라

6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3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4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6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7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8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갈

[1] 또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9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와 작별 인사

11 내가 손수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십시오.
12 겉치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13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할례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4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1]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15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자비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7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18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엡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 **저자** 바울.
- **연대** A. D. 61–63년경(바울의 제1차 로마 투옥 당시) 기록.
- **목적** 첫째, 제3차 전도 여행 중 세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인근 교회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 준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를 통한 바른 교회상을 일깨워 준다.
- **개요** 1장 : 교회의 기원. 2장–3:13 : 성도의 본질. 3:14–21 : 교회를 위한 기도. 4:1–16 : 성도의 교회 생활. 4:17–5:21 : 성도의 새 생활. 5:22–6:9 : 성도의 가정 생활. 6:10–24 : 성도의 영적 싸움.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1] 또는 '예수 그리스도'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4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5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6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7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8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9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는데
10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1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1]백성이 되었습니다.
12 이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3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4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감사와 기도

15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16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7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 주시고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 주시고
19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또는 '기업'

20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21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2 여러분은 [1]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2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2]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3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5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7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8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10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11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은 손으로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12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

[1] 또는 '허물' [2]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았습니다.

13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14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 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15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16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7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18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21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22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3 그래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2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1]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3 전에 내가 간단히 편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계시로 나에게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

4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5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6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7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1] 또는 '경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 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0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1]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11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12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

14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15 하늘과 땅에 있는 대 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16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17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를 박고 기반을 다져
18–19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21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4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갇힌 나 바울이 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2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3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 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4 몸도 하나이며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한 희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 그리고 주님도 믿음도 [2]세례도 하나이며
6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7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눠 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8 그래서 성경에는 [3]"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이끌고 가시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

[1] 또는 '정사와 권세들' (이것은 천사들의 이름이다.) [2] 또는 '침례' [3] 시 68:18

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 그가 올라가셨다고 하였으니 [1]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 내려오신 그분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기 위해 다시 [2]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11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12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3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14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 다닐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15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16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17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18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19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22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 가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이 되십시오.

25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26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27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28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

[1] 또는 '땅의 아랫 부분' [2] 원문에는 '모든 하늘 위'

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9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1]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31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32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엡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5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3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4 추잡한 짓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유치한 농담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십시오.
5 여러분도 아는 일이지만 음란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6 여러분은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7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9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11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12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몰래 하는 짓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13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14 그래서 성경에는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5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1] 또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람처럼
16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17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19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20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21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행복한 가정 생활의 규칙

22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23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24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5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27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의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9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듯이 모두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살핍니다.
30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31 그래서 성경에는 [1]"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몸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32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33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6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2 [2]"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3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4 [3]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1] 창 2:24 [2] 출 20:12, 신 5:16 [3] 원문에는 '아버지'

5 종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6 아첨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7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8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9 마찬가지로 주인들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종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분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의 근원

10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11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12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1]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13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14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가슴받이를 붙이고
15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16 이 모든 것 외에 마귀의 불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17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을 가지십시오.
18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9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0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1 내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말하여 내가 어떻게 지내며 무엇을 하는지 내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22 우리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23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 또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모두 마귀의 명칭이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저자 바울.
연대 A. D. 61－63년경(바울의 제1차 로마 투옥 당시) 기록.
목적 첫째, 빌립보 교인들이 투옥된 바울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한 감사와 자신의 근황을 알린다. 둘째, 비록 감옥 생활 중이지만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피력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안겨 준다. 셋째, 율법주의 등의 미혹을 막고 교회의 일치를 도모한다.
개요 1장 : 그리스도와의 동행. 2장 : 그리스도의 겸손. 3장 : 그리스도의 지식. 4장 : 그리스도의 평강.

1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와 기도

3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5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협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6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7 내가 갇혔을 때나 기쁜 소식을 변호하고 증거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생해 온 여러분을 내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9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하여
10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 없이 살며
1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2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3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14 내가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15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16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기 위해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17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 있는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18 그러나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

19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구원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21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22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3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24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25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26 그래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게 되면 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27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1]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28 무슨 일에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가 되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표가 됩니다.

29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0 여러분도 내가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에 보았고 지금도 듣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2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2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

[1] 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3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4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5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6 그분은 원래 [1]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7 오히려 [2]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10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12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 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13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14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15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16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17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3]내 생명의 피를 제사 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19 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20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 밖에 없습니다.
21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2 여러분이 디모데의 [4]훌륭한 인품을 알고 있겠지만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를 도와 수고하였습니다.
23 그러므로 형편되는 대로 그를 곧

[1]또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2]또는 '자기를 비어' [3]또는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4]또는 '연단'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24 그리고 나도 곧 여러분에게 가게 되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25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이며 나의 필수품을 공급해 주라고 여러분이 보낸 사자입니다.

26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병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27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슬픔이 더 겹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28 그래서 내가 서둘러 그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며 내 근심도 덜게 될 것입니다.

29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30 그는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도우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

3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2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3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4 사실 나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5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6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8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0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라

12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1]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13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5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6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17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 보십시오.

18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19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2]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1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과 부탁

4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2 유오디아와 순두게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 좋게 지내십시오.

3 그리고 나의 신실한 동역자인 여러분도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5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1] 원문에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2] 원문에는 '배'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줄 것입니다.

8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9 또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10 여러분이 나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11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4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를 도와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15 빌립보 사람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16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두 차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17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8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20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1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2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며 특히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합니다.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 **저자** 바울.
◘ **연대** A. D. 61–63년경(바울의 제1차 로마 투옥 당시) 기록.
◘ **목적** 첫째,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에게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각종 이단 사상의 폐해를 전해 듣고 바른 신앙을 가르쳐 준다. 둘째, 온전한 기독론의 터 위에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한다.
◘ **개요** 1:1–12 : 머리말. 1:13–29 :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 2장 : 그리스도인의 자유. 3:1–17 : 성도의 새로운 신분. 3:18–4:6 : 성도의 새로운 삶. 4:7–18 : 맺는 말.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와 기도

3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4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5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전에 진리의 말씀인 기쁜 소식을 들어서 확신하고 있는 하늘 나라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7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8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생활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준 사람입니다.

9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1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12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13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14 우리는 [1]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

15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2]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16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3]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17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18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19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0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21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22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23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기쁜 소식의 희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나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헌신적 사역

24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4]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25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26 이 말씀은 오랜 세대 동안 숨겨졌던 비밀인데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27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입니다.
28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29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 있

[1] 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2] 또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3] 또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4] 또는 '모자라는 것을'

골

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2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의 성도들과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기 바랍니다.

2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며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4 나는 아무도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5 내가 몸은 여러분을 떠나 있으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보니 기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6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7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1]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8 여러분은 [2]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9 그리스도 안에는 [3]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10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4]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11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12 여러분은 [5]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13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14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박아 없애 버리셨습니다.

15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

[1] 또는 '세움을 입어' [2] 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3] 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4] 또는 '정사와 권세' (천사들의 명칭) [5] 또는 '침례'

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7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18 일부러 겸손한 체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본 환상을 과장하며 헛된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19 그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이 머리를 통해 각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결되어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20–21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는 율법적 규정에 복종합니까?

22 이런 것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음식물은 먹는 대로 부패하게 됩니다.

23 이런 규정들은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이나 자기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늘 나라 일만 생각하라

3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2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3 이것은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6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사게 됩니다.

7 여러분도 전에 이런 욕망으로 살 때에는 그런 짓을 하였으나

8 이제는 분한 생각과 화내는 것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9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의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10 이제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11 여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1]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1] 헬 '스구디아인'

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12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13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14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 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 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17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름다운 가정 생활

18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19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십시오.
20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21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22 종들은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십시오.
23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24 여러분은 주님에게 [1]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25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골

4 주인 된 사람들은 하늘에도 자기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종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하십시오.
2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3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4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1] 또는 '유업의 상'

기도해 주십시오.

5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6 그리고 말은 언제나 [1]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

7 두기고가 나에 관한 모든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요 나와 함께 주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8 내가 특별히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 사정을 알게 하여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9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 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10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문안합니다. 여러분이 마가에 대한 지시를 이미 받았겠지만 그가 가거든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11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2 또 여러분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하게 해 달라고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3 그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14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하며 데마도 문안합니다.

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2]그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6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17 그리고 아킵보에게는 주님에게 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18 나 바울은 손수 이 인사말을 써서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 또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2] 어떤 사본에는 '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I (데살로니가전서)

◘ **저자** 바울.
◘ **연대** A. D. 51년경(제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한 시기) 기록.
◘ **목적** 첫째, 미성숙한 신앙 상태로 고난에 직면하게 된 성도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 준다. 둘째, 재림과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극단적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도록 한다.
◘ **개요** 1장 : 칭찬. 2–3장 : 교회의 설립과 부흥으로 인한 기쁨. 4장–5:11 : 올바른 신앙적 교훈. 5:12–28 : 권면과 인사.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1]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생활

2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3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4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6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7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8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9–10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주었으며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

2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1]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라는 말이 없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1]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3 우리의 권면은 어떤 잘못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4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5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욕심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6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우리는 여러분이든 여러분이 아니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7 오히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8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9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0 또 믿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없이 살았는가를 여러분이 보았으며 하나님도 이것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11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여
12 여러분을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13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점입니다.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14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15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어
16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일도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언제나 죄

[1] 또는 '많은 싸움 중에'

를 가득 쌓아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17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얼마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게 된 것은 몸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 보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18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 바울이 한두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습니다.

19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20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디모데의 환영 소식

3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2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위해 일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먼저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격려하여

3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4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5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혹시 사탄이 여러분을 꾀어 우리가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까 염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6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이전처럼 확고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는 사실도 그가 말해 주었습니다.

7 형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8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9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모든 기쁨에 대하여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0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1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12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여러분도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13 또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

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한 순결

4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쳤는데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더욱 힘써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2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한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음란한 짓을 버리고

4 [1]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색욕에 빠지지 말고

6 [2]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7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8 그러므로 이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9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10 사실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 그렇게 할 것을 권합니다.

11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12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13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14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15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는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16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1] 원문에는 '거룩하고' [2] 또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5 형제 여러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주님의 날이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3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고통이 닥치듯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며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4 형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닥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여러분은 모두 빛의 [1]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7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8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2]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희망으로 완전 무장합시다.
9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 예수님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11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해 온 그대로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명령과 부탁

12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13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14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15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선을 추구하십시오.
16 항상 기뻐하십시오.
17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19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20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21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은 붙잡고

[1] 원문에는 '아들들' [2] 또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22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23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4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5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6 [1]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27 나는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꼭 읽어 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Ⅱ (데살로니가후서)

- **저자** 바울.
- **연대** A. D. 51–52년경(첫번째 서신 후 몇 달 뒤) 기록.
- **목적** 첫째, 첫번째 서신으로 인한 신앙적 오해(재림 임박, 시한부 종말론, 현실 도피 등)를 바로잡고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르쳐 준다. 둘째, 박해 속에 있는 어린 신자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 준다.
- **개요** 1장 : 박해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 2장 : 재림에 대한 교훈. 3장 : 기도 부탁, 규모 있는 생활을 권면.

1

나 바울과 [2]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고통도 목적이 있음

3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크게 자라고 여러분이 서로 극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온갖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합니다.
5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6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고

[1] 원문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2] 또는 '실라'

통으로 갚아 주시고
7 고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평안히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8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9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쫓겨나 그의 능력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10 그 날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성도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11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2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2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2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거나 우리가 보냈다는 위조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인 무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4 그는 소위 말하는 신들과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5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6 그가 제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그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7 이미 불법의 힘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자는 자기가 옮겨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8 그런 다음에 무법자가 나타날 것이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입김과 영광의 광채로 그 무법자를 죽여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9 그 무법자는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온갖 거짓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며
10 멸망할 사람들에게 갖은 속임수를 다 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11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유혹을 보내 거짓을 믿게 하실 것

입니다.

12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3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14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5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우리가 말로나 편지로 가르쳐 준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 형제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급속히 퍼져나가 사람들이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또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사람에게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4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5 [1]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7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제멋대로 살지 않았으며

8 아무에게도 공밥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수고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9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몸소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10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고 가르쳤습니다.

11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

[1] 또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을 들었습니다.
12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며 권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살도록 하십시오.
13 형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14 이 편지에서 우리가 지시한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은 특별히 그런 사람을 주의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5 그러나 그런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충고하십시오.
16 평화의 주님이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17 나 바울은 손수 이 인사말을 써서 문안합니다. 이것은 내 모든 편지에 서명과 같은 것이므로 내가 이렇게 씁니다.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I (디모데전서)

- **저자** 바울.
- **연대** A. D. 63–67년경(제1차 로마 투옥 상태에서 풀린 후 재수감되기 전) 기록.
- **목적** 첫째, 디모데를 격려하고 바른 목회 방향을 제시해 준다. 둘째,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교회를 더욱 규모 있고 성숙하게 관리토록 한다.
- **개요** 1장 : 바른 교리 사수. 2장 : 공중 예배. 3장 : 교회의 지도자. 4장 :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5장 : 교회의 질서. 6장 : 목회자의 자격.

딤전

1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2 나의 참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거짓 선생을 물리쳐라

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4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은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킬 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5 그러나 나의 부탁은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6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활에

서 떠나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고 있습니다.

7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하지만 자기들이 말하며 주장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8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9 그러나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사람, 거역하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죄인, 거룩하지 않은 사람, [1]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부모를 죽이는 사람, 살인자,

10 음행하는 사람, 동성 연애하는 사람, 유괴범, 거짓말쟁이, 거짓 증언자,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11 이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에 근거한 것이며 나는 이것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12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13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짓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14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15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16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이심으로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17 영원한 왕이시며 죽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길이길이 존귀와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18 믿음의 아들 디모데여, 내가 전에 그대에 관해 말한 예언에 따라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20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 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기도의 향기

2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2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1] 또는 '망령된 자'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4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5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6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약속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7 나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전도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으며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 사실입니다.
8 그러므로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고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9 여자들도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거나 귀금속과 비싼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하십시오.
10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는 마땅히 선한 행실로 자기를 꾸며야 합니다.
11 여자는 일체 순종하며 조용히 배우도록 하십시오.
12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13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된 다음에 이브가 창조되었으며
14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15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절제함으로 계속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면 [1]아이를 낳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3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남을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또 감독은 술을 좋아하거나 구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말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4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깍듯이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5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6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은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또는 '해산함으로'

7 그리고 감독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9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10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시오.
11 [1]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남을 헐뜯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13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고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4 내가 그대에게 속히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15 나의 방문이 혹시 늦어지더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알려 주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16 경건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영으로는 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셨으며 온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

4 그러나 성령님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3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4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5 그것은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6 그대가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그대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7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8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1] 또는 '여집사' [2] 후대 사본에는 '하나님'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9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10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11 그대는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시오.

12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시오.

13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기 바랍니다.

14 그대가 간직한 은혜의 선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5 그대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오.

16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펴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과 젊은이와 과부에 대한 교훈

5 노인들을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권면하며 젊은이들을 형제처럼 대하시오.

2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시오.

3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여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5 홀로 사는 진짜 과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밤낮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6 그러나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는 과부는 살아 있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7 그대는 이런 것을 가르쳐 그들이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

8 누구든지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불신자보다 더 나쁩니다.

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으며

10 선한 행실로 잘 알려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며 온갖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1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마시오. 이것은 그들이 정욕에 못 이겨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될 때 재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12 그렇게 해서 그들은 첫 서약을 어

기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3 게다가 그들은 언제나 게으름을 피우며 이집 저집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험담이나 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14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해서 자녀를 낳고 집안 일을 돌보게 하여 우리 원수에게 비난의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시오.
15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간 과부들도 있습니다.
16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직접 도와주고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게 하시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장로를 존경하라

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기 바랍니다.
18 성경에도 [1]"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2]"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19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시오.
20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오.
21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올바로 지키고 어떤 일에나 치우치지 마시오.
22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며 자신을 지켜 깨끗한 생활을 하시오.
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앓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시오.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나 먼저 심판을 받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도 곧 드러나게 됩니다.
25 이와 같이 선한 행실도 드러나기 마련이며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일과 돈

6 모든 종들은 당연히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이 비웃음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2 믿는 주인을 모신 종은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3]그들의 봉사로 유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사랑을 받는 믿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시오.
3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4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깁니다.
5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4]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1]신 25:4 [2]눅 10:7 [3]암시됨. [4]또는 '경건'

딤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6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7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8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9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10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11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추구하시오.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13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는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시오.
15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1]복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모든 왕과 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16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시다. 아멘.
17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18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나눠 주기를 좋아하고 [2]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오.
19 이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 디모데여, 그대는 맡은 일을 잘 실천하시오.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모독적인 무가치한 잡담과 변론을 피하시오.
21 이런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 또는 '복되시고' [2] 또는 '교제하는 사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II (디모데후서)

◘ **저자** 바울.
◘ **연대** A. D. 66–67년경(로마 대화재 이후 네로황제의 기독교 핍박시 로마 옥중에 재수감되어 있을 때) 기록.
◘ **목적** 첫째, 네로의 기독교 핍박 정책으로 로마 전역에 시련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교회와 디모데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둘째,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방문을 요청한다.
◘ **개요** 1장 : 복음을 지키라. 2장 : 인내하며 복음을 가르치라. 3장 : 말세에 복음 안에 거하라. 4장 : 복음을 전파하라.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2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사랑

3 나는 밤낮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 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대를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5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그대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6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불일듯 되살아나게 하시오.
7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1]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8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내가 주님을 위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처럼 기쁜 소식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오.
9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10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없애 버리시고 기쁜 소식으로써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11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위해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12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1] 또는 '건전한 마음'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14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선한 일을 잘 지키시오.
15 그대도 알고 있겠지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으며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16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내가 갇혀 있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17 로마에 있을 때에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습니다.
18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나를 도왔는지 그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하여라

2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2 그리고 내게 들은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오.
3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4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5 운동 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6 수고하는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먼저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7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8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전한 기쁜 소식대로 다윗의 후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대는 그분을 기억하시오.
9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10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모든 고난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11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12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그분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13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

14 그대는 이 위대한 사실을 성도들에

게 일깨워 주시오. 그리고 무가치한 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시오.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15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16 그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을 피하시오. 이런 것을 일삼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17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18 그들은 진리를 떠났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9 그러나 하나님의 터전은 굳게 서 있고 그 위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20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입니다.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시오.
23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그대도 알겠지만 이런 것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24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25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26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에 종노릇 하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있을 위험

3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2 그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3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4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5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딤후

[1] 70인역 민 16:5을 보라.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6 남의 집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무거운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7 항상 배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8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항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진리를 대항하니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9 그러나 그들이 멀리 가지 못할 것은 그 두 사람의 경우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11 나의 교훈과 생활과 목적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참고 견디는 것과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또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그대는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겠지만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12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13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고 속일 것입니다.
14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15 그대가 어릴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17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바울의 진지한 조언

4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2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3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4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5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시오.
6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1]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1] 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8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

9 그대는 되도록 속히 나에게 오시오.
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는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12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13 그대는 올 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나의 외투와 책들,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지고 오시오.
14 구리세공업을 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15 그는 우리가 전한 기쁜 소식을 몹시 반대한 사람이니 그를 경계하시오.
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벌이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17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18 주님은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하늘 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19 그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도 문안해 주시오.
20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 두고 왔습니다.
21 겨울이 오기 전에 그대는 속히 이곳으로 오도록 하시오.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그 밖의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22 주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

저자 비울.
연대 A. D. 65–66년경(제1차 로마 투옥 상태에서 풀려나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기록.
목적 첫째, 도덕적으로 문란한 지중해의 크레테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이단 사상(영지주의, 율법주의)을 배격하게 하고 교인들로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한다. 둘째, 교회를 더욱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목회하도록 한다.
개요 1장 : 교회 행정에 관한 교훈. 2장 : 교회 각 계층을 향한 교훈. 3장 : 성도의 순결한 생활.

1 1–4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진정한 아들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1]오래 전에 약속하신 것인데 정해진 때에 전도의 말씀으로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전도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장로 선출

5 그대를 크레테섬에 남겨 둔 것은 내가 끝내지 못한 일을 그대가 정리하고 또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도시마다 장로들을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7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성급하게 화내지 않고 술을 좋아하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8 오히려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자제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알고
9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복종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므로
11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수입을 위해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신자들의 가정을 온통 뒤엎고 있습니다.
12 바로 그들 가운데 한 [2]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테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먹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다."

[1] 또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2] 크레테의 철학자 '에피메니데스'를 가리킨다.

13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정없이 책망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14 유대인의 신화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시오.
15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지만 더러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더러워져 있습니다.
16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밉살스럽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선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조언함

2 그러나 그대는 바른 교훈과 일치하는 것을 가르치시오.
2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오.
3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며 남을 헐뜯거나 술을 좋아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시오.
4 그러면 그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5 절제하며 순결하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교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6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절제하라고 권면하시오.
7 그대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고 가르칠 때 순수함과 진지함과
8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하시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이 없음을 알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9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며
10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선한 충성을 다하라고 가르치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1]빛낼 것입니다.
11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2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13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1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5 그대는 이 모든 것을 권위 있게 가르치고 권면하며 책망하여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시오.

[1] 원문에는 '장식하다'

부탁과 경고

3 그대는 신자들을 깨우쳐 통치자들과 정부 당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오.
2 또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관대하며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게 하시오.
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속았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4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자비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5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6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7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8 이것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좋은 것이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9 그러나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시오.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10 [1]분열을 일삼는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물리치시오.
11 그대도 알겠지만 이런 사람은 이미 타락하여 스스로 악한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12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거든 그대는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로 속히 오시오. 나는 거기서 겨울을 보낼 작정입니다.
13 아볼로와 율법학자 세나를 나에게 속히 보내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시오.
14 우리 성도들은 [2]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보람된 생활이 될 것입니다.
15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대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하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 또는 '이단에 속한 사람' [2] 또는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

◘ **저자** 바울.
◘ **연대** A. D. 61–63년경(제1차 로마 투옥 당시) 기록.
◘ **목적** 첫째, 도망친 노예 출신 신자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해와 관용을 촉구한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근간이 되는 윤리(용서, 사랑)를 가르쳐 준다.
◘ **개요** 1:1–7 : 문안 인사와 칭찬. 1:8–21 :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 1:22–25 : 맺는 말.

1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갇힌 바울과 디모데는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2 자매 압비아와 또 함께 그리스도의 군인이 된 아킵보와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부탁

4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5 그것은 그대가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6 그대는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7 형제여, 나는 그대가 베푼 사랑으로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8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9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 많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죄수가 된
10 나 바울은 갇힌 중에 얻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11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2 그래서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13 나는 기쁜 소식을 위해 내가 갇혀 있는 동안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대를 대신해서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14 그러나 나는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5 그가 잠시 그대를 떠나게 된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영원히 그대를 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16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 주시오.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그는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그대에게 더욱더 소중할 것입니다.

17 만일 그대가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나를 대하듯 그를 반갑게 맞아 주시오.
18 그가 그대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청구하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19 내가 직접 이 글을 써서 말하지만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대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오.
20 형제여, 내가 주님 안에서 그대를 통해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 주시오.
21 나는 그대가 내 말에 순종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기대 이상으로 해 줄 것을 알고 이 글을 씁니다.
22 그리고 내가 머물 방도 하나 마련해 주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그 곳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24 또 함께 일하는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25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히브리서)

- **저자** 미상.
- **연대** A. D. 60년대 후반(네로의 박해 이후, 예루살렘 멸망 직전) 기록.
- **목적** 첫째, 구약의 내용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재해석함으로써 기독교 복음의 완전성과 절대성을 일깨워 준다. 둘째, 핍박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전함으로써 믿음을 북돋워 준다.
- **개요** 1장–4:13 :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 4:14–7장 :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8장–10:18 :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10:19–13장 : 성도의 능력과 의무.

히

하나님이 말씀하심

1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3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1]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4 그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

[1] 또는 '위엄의 우편에'

을 받으시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5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1]"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또 [2]"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6 그러나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3]"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셨습니다.

7 또 천사들에 대해서는 [4]"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종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8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하나님이시여, [6]주는 영원히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를 정의의 지팡이로 다스리십니다.

9 왕이 옳은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였으므로 왕의 하나님은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다른 왕들보다 높이셨습니다."

10 [7]"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11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주는 영원히 살아 계실 것이며 그것들은 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12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옷처럼 말아 버리시면 그것들이 의복처럼 변할 것이나 주는 변함없이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13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8]"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14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심

2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2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치 않았을 때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3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4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일들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들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5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이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6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

[1] 시 2:7 [2] 삼하 7:14 [3] 사해 사본과 70인역에서 신 32:43을 참조하라. [4] 시 104:4 [5] 시 45:6, 7 [6] 또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7] 시 102:25-27 [8] 시 110:1 [9] 시 8:4-6

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7 [1]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으며
8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9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죽음을 당하시므로 이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습니다.
10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2]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1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12 하나님께 [3]"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군중 앞에 서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셨고
13 또 주님께서는 [4]"내가 그분을 신뢰하겠다" 하셨으며 또 [5]"나와 및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14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니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15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16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17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8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

3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2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3 집을 세운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만합니다.

[1] 어떤 사본에는 7절 끝에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저를 세우시고'가 더 있음. [2] 원문에는 '아들' [3] 시 22:22 [4] 사 8:17 [5] 사 8:18

4 어느 집이든 그 집을 세운 사람이 있듯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실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으나
6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희망으로 인한 용기와 자랑스러운 기쁨을 끝까지 굳게 지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7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9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보고 시험하였으며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10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11 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고집 센 마음

12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3 여러분은 '오늘' 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14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15 성경에서는 [2]"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16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17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18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엄숙한 선언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19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안식처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 곳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2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이제 믿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

[1] 시 95:7–11 [2] 시 95:7, 8

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1]"그래서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4 일곱째 날에 대하여는 성경에 [2]"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5 그리고 다시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6 그렇다면 그 안식처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7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 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8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은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9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쉽니다.

11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13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 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14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15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5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2 그가 무식하고 잘못에 빠진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1] 시 95:11 [2] 창 2:2 [3] 시 95:7, 8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3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4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5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스스로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1]"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6 또 다른 곳에서 [2]"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예수님은 [3]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4]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8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9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10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11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2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13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지 못합니다.

14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6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5]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데로 나아갑시다.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반의 결과

4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5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6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7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1] 시 2:7 [2] 시 110:4 [3] 원문에는 '육체에' [4] 또는 '경외하심을 인하여' [5] 또는 '침례'

농부들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8 그러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아무 쓸모가 없어 곧 저주를 받고 마침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9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보다 나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10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성도를 도왔고 지금도 계속 도우면서 보여 주는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11 우리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열심으로 희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12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예

13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며
14 [1]"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16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보다 큰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맹세는 말한 것을 확정하여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합니다.
17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18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을 붙들려고 피난처를 향해 가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19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의 닻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20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

7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축복해 주었습니다.
2 아브라함도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3 그는 부모도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과 죽은 날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언제나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4 여러분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자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

히

[1] 창 22:17

아브라함까지도 모든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5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10분의 1을 받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사람의 족보에 들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7 일반적으로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8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제사장들은 죽을 사람이고 멜기세덱은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9 그리고 십일조를 받았던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자기 조상의 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1 하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무가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어째서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12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13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지파에서는 하나도 제사장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14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이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5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 우리가 말한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16 그분은 인간의 법이나 규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것입니다.

17 성경은 그분에 대하여 [1]"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8 옛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어서 폐지되었습니다.

19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20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약속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약속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21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2]"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22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1] 시 110:4 [2] 시 110:4

23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24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므로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25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6 이런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죄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계시므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27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드리는 일을 날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바쳐서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지만 율법 후에 온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

8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의 주된 요점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2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참성소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3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드릴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4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 이들이 섬기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게서 [1]"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양식대로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6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더 위대한 제사장의 직무를 맡으셨으며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7 첫번째 계약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또 다른 계약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9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와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10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히

[1] 출 25:40 [2] 렘 31:31-34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1 그 때에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옛 계약

13 하나님께서는 새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번째 계약을 낡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낡고 [1]시대에 뒤진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9 첫번째 계약에도 예배 규칙과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2 먼저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은 간막이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바깥쪽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등대와 빵을 차려 놓은 상이 있었습니다.
3 그리고 간막이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4 거기에는 금향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2]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계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5 또 그 궤의 뚜껑을 [3]속죄소라고 불렀는데 그룹이라는 영광의 천사들이 날개로 그 위를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6 이 모든 것이 성막 안에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바깥 성소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하고
7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피는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8 이것으로 성령님은 바깥쪽의 성소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9 이 성막은 현 시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10 그것들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새 계약

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4]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12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

[1] 또는 '쇠한' [2] 또는 '언약궤' [3] 또는 '자비의 자리' [4] 어떤 사본에는 '장래 좋은 일'

도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15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첫 계약 아래서 범한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6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유언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17 그것은 유언한 사람이 살아 있으면 아무 효력도 없고 죽어야만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8 따라서 첫 계약도 피로써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19 모세는 율법에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함께 가지고 와서 붉은 양털과 [1]우슬초에 적셔 율법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면서
20 [2]"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계약의 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1 그리고 그는 성막과 제사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와 같이 피를 뿌렸습니다.
22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피로써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23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방한 지상의 모형들은 이런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제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24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25 대제사장은 자기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자기를 드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26 만일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려고 역사의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
27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의 대조

10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 그 자체

[1]또는 '히솝' [2]출 24:8

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4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6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죄를 씻는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7 그때 내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보십시오. 나에 관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8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이런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임)

9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새 제도를 세우시려고 옛 것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10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11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12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13 그 후부터 그분은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14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15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16 [2]"그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17 그러고서 성령님은 [3]"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18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으므로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19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21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

[1] 시 40:6-8 [2] 렘 31:33 [3] 렘 31:34

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22 우리가 이미 마음에 피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23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할 것

24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25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26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27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28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30 [1]"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 주겠다" 하시고 또 [2]"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1 [3]살아 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32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33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34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35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36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37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38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39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위력

11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1] 신 32:35 [2] 신 32:36 [3] 원문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2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3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 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는 옮겨 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 때에 가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9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10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1]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 그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2 이리하여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3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14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15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6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1] 원문에는 '터가 있는 성'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18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네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20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장래에 대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고 또한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22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갈 것을 말하고 또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23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 두었으며 이집트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4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25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26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7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28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맏아들을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29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걷듯이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건너려다 모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30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둘레를 7일 동안 돌자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어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32 그 밖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33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약속된

[1] 창 21:12

것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34 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칼날도 피했으며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외국 군대를 무찌르기도 하였습니다.

35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36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37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38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39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40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12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2 그리고 우리 믿음의 [1]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3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4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에게 유익함

5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타이르듯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2]"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6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하신다."

7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8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9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

[1] 또는 '창시자이시며' [2] 잠 3:11, 12

야 하지 않겠습니까?
10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11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맥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13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14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15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쓴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16 또 음란한 사람이나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 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17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18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던 시내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 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검은 구름과 짙은 어두움에 싸인 채 폭풍이 일고
19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20 그들은 [1]"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로 쳐죽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두려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21 그 광경을 본 모세도 무서워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22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23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24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25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

[1] 출 19:12, 13

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26 그 때에는 그분의 음성으로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1]"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어 놓겠다."
27 그런데 '한 번 더'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모두 없애 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28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립시다.
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교훈과 인사

13 여러분은 서로 형제처럼 꾸준히 사랑하고
2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3 여러분은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갇힌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4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2]"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3]"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7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최후를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은 분이십니다.
9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은 은혜로 강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규정에 얽매인 사람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10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는데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 제단의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11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기 위한 제물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12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3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14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서 우리는 앞으로 올 성

[1] 학 2:6 [2] 수 1:5 [3] 시 118:6

을 찾고 있습니다.

15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16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눠 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7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18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에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19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20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주 예수님을 영원한 계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21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2 형제 여러분, 몇 마디의 짧은 편지를 써서 보내지만 내가 권면한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3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아십시오. 그가 곧 오게 되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24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5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의 편지 (야고보서)

◘ **저자** 주의 형제 야고보.
◘ **연대** A. D. 62년경(저자 야고보의 순교 이전) 기록.
◘ **목적** 첫째,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행위의 관계성을 가르쳐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핍박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공동체내의 질서, 형제간의 사랑, 믿음의 열매 등 실제적인 신앙 지침서를 전해 준다.
◘ **개요** 1–2장 : 원론적 교훈. 3–4장 : 실제적 교훈. 5장 : 맺는 말.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1]유대인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고난은 인격을 형성한다

2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3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4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5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6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7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8 그는 이중 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9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때 자랑하고
10 부요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기뻐하십시오.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부요한 사람도 재물을 추구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12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14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15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16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

[1] 원문에는 '열두 지파'

약

시오.

17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18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

19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20 인간적인 분노는 [1]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21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2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23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24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25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26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 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2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2 교회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 만일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 앞에 앉으시오" 하고 푸대접한다면

4 사람을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5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6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며 법정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7 그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습니까?

[1] 또는 '하나님의 의'

8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9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선언할 것입니다.
10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11 [2]"간음하지 말아라"고 하신 분이 [3]"살인하지 말아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셈이 됩니다.
12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13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믿음과 행위

14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5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16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18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19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20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22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그의 믿음에는 행동이 따랐으며 그것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23 그래서 [4]"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24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행동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5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정찰병을 숨겼다가 안전하게 보낸 그 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26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1] 레 19:18 [2] 출 20:14, 신 5:18 [3] 출 20:13, 신 5:17 [4] 창 15:6

혀를 조심하여라

3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3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립니다.
4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풍에 밀려 다녀도 항해사는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5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1]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6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 불에 타고 맙니다.
7 온갖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 생물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고 또 길들여졌습니다.
8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9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10 한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1 한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12 형제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덩굴이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짠샘이 단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두 종류의 지혜

13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14 그러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15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의 것입니다.
16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17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18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평화의 씨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싸움의 원인

4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

[1] 또는 '큰 것을 자랑하도다'

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2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4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5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1]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합니까?
6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2]"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7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8 하나님을 가까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9 슬퍼하고 울며 통곡하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10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11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12 입법자와 재판장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군데 이웃을 판단합니까?
13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14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15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할 여러분이
16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17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부자에 대한 경고

5 부요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닥쳐올 불행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십시오.

[1] 또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2] 잠 3:34

2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벌써 좀먹었습니다.
3 그리고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그 녹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 두었습니다.
4 여러분이 일꾼들에게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치고 있으며 추수한 일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1]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5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2]잡혀 죽을 날을 눈 앞에 두고도 욕심만을 채워 왔습니다.
6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항하지도 않은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였습니다.
7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귀중한 추수를 바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8 여러분도 인내하며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9 형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10 여러분은 고난을 참고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11 우리는 끈기 있게 참아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12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

13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14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게 하십시오.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17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18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에서 곡식이 자랐습니다.
19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누가 그 죄인을 하나님께

[1]또는 '만군의 주' [2]또는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돌아오게 한다면
20 그는 죽을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 I (베드로전서)

◘ **저자** 베드로.
◘ **연대** A. D. 64–66년경(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 네로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점증되던 시점) 기록.
◘ **목적** 첫째,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뿐 아니라 장차 임할 불시험을 예견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한다. 둘째, 구약의 말씀을 복음의 빛으로 재조명한다.
◘ **개요** 1:1–12 : 성도의 구원. 1:13–2:12 : 성도의 성결한 삶. 2:13–3:12 : 성도의 의무. 3:13–5:11 :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할 올바른 자세. 5:12–14 : 맺는 말.

1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1]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2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쁨과 시련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4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5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6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7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니다.
8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

[1] 원문에는 '나그네'

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9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10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려 주실 은혜에 대하여 말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하던 것입니다.

11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속에 계신 [1]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 주신 대로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2 예언자들의 이런 사역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14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15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16 성경에도 [2]"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17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죄값을 지불하다

18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해 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20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21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영광스럽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22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23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24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3]"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25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1] 또는 '그리스도의 영' [2] 레 11:45 [3] 사 40:6-8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2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1]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4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선택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5 여러분도 산 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6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7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3]"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과
8 그리고 [4]"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며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9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11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12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5]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13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14 관리들은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라고 통치자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15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

[1]또는 '신령한 젖' [2]사 28:16 [3]시 118:22 [4]사 8:14 [5]또는 '권고하시는 날에'

님의 뜻입니다.

16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17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18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19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1]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20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21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22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23 그분은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24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25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였으나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

3 아내 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2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3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4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5 옛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꾸몄습니다.

6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그녀의 딸이 됩니다.

7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2]은혜로 주시

[1] 또는 '하나님께 대한 양심 때문에' [2] 또는 '생명의 은혜'

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8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11 그는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12 주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적하신다."

13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누가 해치겠습니까?

14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15 마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16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7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18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영으로 살아나신

19 예수님은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20 그들은 옛날 노아가 배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영들입니다. 그때 배에 들어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명뿐이었습니다.

21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2]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22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모든 천사들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4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 벌써 죄와 관계를

[1] 시 34:12-16 [2] 또는 '침례'

끊은 것입니다.

2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3 여러분도 전에는 이방인들이 즐기던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진탕 마시고 흥청망청 떠드는 것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에 불과합니다.

4 그래서 그들은 방탕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난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자기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쳐야 할 것입니다.

6 그래서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잘못을 덮는다

7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8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 줍니다.

9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10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 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11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12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13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14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6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17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18 의로운 사람도 구원을 받기가 이처럼 어렵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과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

니까?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부치는 말

5 나는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장차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2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3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4 그러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5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6 그러므로 여러분은 [1]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7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8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9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10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11 능력이 하나님께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2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2]실루아노를 통해 나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편지를 써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3]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13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에 있는 여러분의 자매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4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 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2] 또는 '실라' [3] 원문에는 그냥 '이것' 으로만 되어 있다.

베드로의 편지Ⅱ (베드로후서)

저자 베드로.
연대 A. D. 66-68년경(네로황제의 핍박이 고조되던 때로부터 베드로의 순교 직전까지) 기록.
목적 첫째, 당시 발흥하던 이단 사설을 경계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준다. 둘째, 재림의 소망을 비웃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도록 한다.
개요 1장 : 성도의 신앙 성숙. 2장 :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와 정죄. 3장 : 재림에 대한 약속과 확신.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2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자

3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4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5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선을, 선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7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8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9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 못 보는 소경이며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10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1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2 여러분이 이런 일을 잘 알고 또 여러분이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13 나는 이 육체의 천막 속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4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 주신 대로 내가 이 육체의 천막을 벗어 버릴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5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일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17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18 우리도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19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움을 밝혀 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20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1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과 그 대책

2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들입니다.

2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가 훼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또 그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4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1]깊은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5 또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 버리셨으나 의의 전도자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구원하셨습니다.

6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가 되게 하셔서 훗날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7 그러나 악한 자들의 방탕으로 큰 고통을 받던 의로운 롯은 구원하셨습니다.

8 (롯은 그들의 악한 짓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9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사람은 심판 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10 특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2]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여 두려움

[1] 헬 '탈타로스' [2] 또는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없이 하늘의 존재들을 욕합니다.
11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12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욕하니 그들도 짐승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13 결국 그들은 악한 짓을 한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여러분과 함께 앉은 잔치 자리에서까지 속이고 쾌락을 즐기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14 그들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꾀어 욕심을 채우는 데 단련된 저주받은 자식들인 것입니다.
15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람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16 그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17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으며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두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18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꾀어 죄를 짓게 합니다.
19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1]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20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하면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합니다.
21 바른 교훈인 줄 알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습니다.
22 [2]"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도 다시 진탕에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

3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편지로 여러분에게
2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3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비웃으며
4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하고 말할 것입니다.

[1] 또는 '부패의 종' [2] 잠 26:11

5-6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으며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7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심판 날에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8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9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 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10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 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11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 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12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 버릴 것입니다.
13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15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냈습니다.
16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말이 더러 있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도 억지로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17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늘 조심하여 악한 사람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18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님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의 편지 I (요한일서)

- **저자**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 **연대** A. D. 85–95년경(70–95년경 요한이 기록한 기쁜 소식을 기록한 이후에서 95–96년경 요한이 받은 계시를 기록하기 이전 사이) 기록.
- **목적** 첫째, 영지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단에 의해 심각한 위기를 맞은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세운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토록 한다.
- **개요** 1:1–4 : 머리말. 1:5–2:17 : 하나님과의 교제. 2:18–29 : 이단 경계. 3–4장 : 사랑의 실천. 5장 : 마지막 권면.

하나님은 빛 되심

1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 보았습니다.

2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4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 보냅니다.

5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7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8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9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10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2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2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1]화해의 제

[1] 또는 '화목제물'

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

3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4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5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7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8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으므로 그 계명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참된 것입니다.
9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10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거리낄 만한 것이 없습니다.
11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고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12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13 [1]부모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4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2]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맨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15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17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1] 원문에는 '아버지들' [2] 원문에는 14절 이하의 '쓰다'는 말이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18 자녀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원수가 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많은 원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압니다.
19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나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감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20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1]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21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2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23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고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24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25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26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썼습니다.
27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28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29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

3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1] 또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3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4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5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6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7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8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9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11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1]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13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15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16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17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18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19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1] 또는 '악한 자'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 우리 마음도 우리를 책망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더욱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21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22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23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24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4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2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3 그러나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원수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겠지만 그가 벌써 세상에 와 있습니다.
4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5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일을 말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6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들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8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10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

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13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4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15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16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17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21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김

5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4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5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6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7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령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8 여기에는 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훨씬 더 강력한 증거는 더욱더 인정해야 합니다.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12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13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14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16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7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이 죄이지만 죽지 않을 죄도 있습니다.

18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19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20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21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요한의 편지 II (요한이서)

◘ **저자** 사도 요한.
◘ **연대** A. D. 85–95년경(요한의 편지 I 과 비슷한 시기) 기록.
◘ **목적** 영지주의로 무장한 거짓된 순회 전도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한다.
◘ **개요** 1:1–6 :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을 행하라. 1:7–13 :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

1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1]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2 이것은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3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 선생을 조심하여라

4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기쁩니다.
5 부인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써 보내는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것입니다.
6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사랑이며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7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2]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혹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8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말고 넘치는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9 지나치게 앞질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게 됩니다.
10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를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11 그런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그의 악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12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지만 그것을 편지에 다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직접 만나 서로 이야기하며 기쁨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13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인 자매의 자녀들이 부인에게 문안합니다.

[1] 본서의 '부인'은 교회를 가리키고 그 '자녀들'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2] 또는 '육체로'

요한의 편지 Ⅲ (요한삼서)

- **저자** 사도 요한.
- **연대** A. D. 85–95년경(요한의 편지 Ⅰ · Ⅱ와 비슷한 시기) 기록.
- **목적** 겸손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선히 접대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음을 일깨워 준다.
- **개요** 1:1–2 : 인사말. 1:3–8 : 가이오에 대한 칭찬. 1:9–12 : 악한 일꾼과 선한 일꾼. 1:13–15 : 맺는 말.

1 장로인 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2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3 나는 성도들로부터 그대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4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선을 추구하여라

5 사랑하는 가이오여, 그대는 [1]순회 전도자들을 위해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6 그들이 교회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들을 잘 대접해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7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8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9 나는 이 일에 대하여 그 교회에 편지를 몇 자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도 부족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으며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11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이런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12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진리의 선한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칭찬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거가 진실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13 나는 그대에게 할 말이 많지만 그것을 편지에 다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14 속히 그대를 만나 대면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1]또는 '나그네 된 자들'

15 하나님의 평안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곳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일일이 문안해 주시오.

유다의 편지 (유다서)

◘ **저자** 유다.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아우.
◘ **연대** A. D. 70–80년경(영지주의가 극에 달했던 1세기 후반) 기록.
◘ **목적** 영과 육을 분리한 이원론적 사상에 따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동시에 육체의 타락에 무관심한 도덕폐기론자들인 영지주의의 준동을 책망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대한 참 믿음을 가지도록 한다.
◘ **개요** 1:1–4 : 머리말. 1:5–16 :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1:17–23 : 성도를 위한 권면. 1:24–25 : 송영.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1]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에 대한 변호

3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에 대하여 벌써부터 여러분에게 편지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4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끼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치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받을 심판을 이미 오래 전에 예언하였습니다.
5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지만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시키셨습니다.
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어 심판 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7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도시들도 온갖 음란한 짓을 일삼다가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8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2]몰래 끼어든 사람들도 이성을 잃고 육체를

[1]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2] 원문에는 '꿈꾸는 사람들'

더럽히며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존재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9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툴 때에도 모욕하는 말로 심판하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한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10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욕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11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악한 길을 따르고 돈을 위해 발람의 잘못된 길로 달려갔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2 이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여러분과 함께 먹으니 여러분이 사랑으로 나누는 잔치 자리에 [1]더러운 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하는 목자요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에 밀려 다니는 구름이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13 또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거품처럼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며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궤도를 잃은 별입니다.

14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15 심판하실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지껄인 말을 낱낱이 들추어내실 것이다."

16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며 유익이 될 때는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터 위에 세워라

17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18 그들은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살며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 이들은 분열을 일삼는 육적인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21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22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23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또 육신의 정욕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의 옷까지 증오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24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셔서 자기의 영광 앞에 흠 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1] 또는 '암초'

25 곧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과거의 모든 시대로부터 현재와 또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이 받은 계시 (요한계시록)

- **저자** 사도 요한.
- **연대** A. D. 95-96년경(로마의 도미티아누스황제 통치 말기,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었던 때) 기록.
- **목적** 첫째, 심각한 박해를 당하던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질 최후 승리를 확신시켜 준다. 둘째, 사탄의 집요한 미혹에 맞서야 할 종말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신천 신지의 영광을 확신시켜 줌으로 신앙을 지키도록 한다.
- **개요** 1장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2-3장 : 일곱 교회에 대한 평가와 권면. 4-18장 : 심판과 환난. 19장 :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날의 승리. 20장 : 천 년 왕국. 21-22장 : 새 하늘과 새 땅.

1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자기 종 요한에게 보내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4-5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6 우리를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7 보십시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8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1]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한 자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9 같은 형제이며 하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견뎌 온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밧모섬에 추방되었습니다.
10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11 그것은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2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나는 일곱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13 그 촛대 사이에는 [2]예수님 같은 분이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눈은 불꽃 같고
15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한 주석 같았으며 그분의 음성은 [3]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16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17 나는 그분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18 살아 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 있으며 죽음과 [4]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19 그러므로 너는 이미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20 네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렇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5]지도자들이며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이다."

에베소 교회

2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말한다:
2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네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3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5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1] 헬 '알파와 오메가' [2] 원문에는 '인자'(사람의 아들) [3] 또는 '많은 물소리' [4] 헬 '하데스' [5] 또는 '수호 천사'

자리에서 옮겨 버리겠다.
6 '그러나 네가 한 가지 잘한 점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한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

8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한다:
9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한 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네가 모욕을 당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10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 가둘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11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

12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말한다:
13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그 곳에서 죽음을 당하던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14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가르쳤다.
15 그런데 너희 가운데도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17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하늘에 감추어 둔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두아디라 교회

18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19 나는 네가 한 일과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20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그녀는 자기 교훈으로 내 종들을 꾀어 음란한 짓

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21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기의 음란한 짓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22 이제 내가 그녀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23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 살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 주겠다.
24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25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26 신앙의 승리자와 끝까지 내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7 그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처럼 그들을 던져 부숴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받은 권세도 그와 같은 것이다.
28 내가 또 그에게 샛별을 주겠다.
29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데 교회

3 "사데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2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3 그러니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나 사데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5 신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6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필라델피아 교회

7 "필라델피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한다:
8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9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라

고 주장하며 거짓말하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10 네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겠다.

11 내가 속히 가겠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신앙의 승리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13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아멘이요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이가 말한다:

15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16 이와 같이 네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17 너는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18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는 내게서 불에 정련된 금을 사서 부요해지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20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21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22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늘 문이 열림

4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이 일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 주겠다."

2 내가 즉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바라보니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3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고 보좌에는 비취 같은 모양의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4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좌석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 보좌에서는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울려 나오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습니다.

6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중앙의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7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9 또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10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1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과 두루마리

5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씌어 있었고 일곱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2 내가 보니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봉한 것을 떼고 책을 펼 수 있겠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3 그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그 책을 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4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크게 울자

5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1]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일곱 군데의 봉한 것을 떼고 그 책을 펼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6 그때 나는 전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네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습니다.

7 어린 양은 나아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8 그러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각자 거문고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9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1] 원문에는 '다윗의 뿌리'

불렀습니다. "주님은 책을 받아 봉한 것을 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11 나는 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12 그들이 큰 소리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3 나는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4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일곱 봉인

6 나는 어린 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2 내가 보는 순간 내 앞에는 흰 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졌으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3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으며 또 큰 칼 하나를 받았습니다.
5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6 그리고 나는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1]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2]1리터나 보리 3리터밖에 살 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7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8 그래서 내가 보니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으며 [3]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9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1헬 '한 데나리온' 2헬 '코이닉스' 3헬 '하데스'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 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11 그러자 그들에게는 저마다 흰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12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천처럼 새까맣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13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14 하늘은 종잇장이 말리듯이 사라져 버리고 산과 섬도 모두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15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16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숨겨 다오.

17 그분들이 노여워하시는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디어 내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144,000명

7 그 후에 나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2 또 내가 보니 다른 한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3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4 그리고 나는 도장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44,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5 이것을 각 지파별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6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7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잇사갈 지파에서 12,000명
8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
이었습니다.

9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보

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11 그러자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던 천사들이 모두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12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13 그때 장로 한 사람이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14 내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성전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천막을 펴실 것이며
16 그들은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에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17 이것은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봉인과 나팔

8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2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그들은 각각 나팔을 받았습니다.
3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4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5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지자 천둥과 번개가 치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6 드디어 일곱 천사가 나팔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과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풀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도 파괴되었습니다.
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졌습니다.
11 이 별의 이름은 쑥이었으며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 쓴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빛이 없고 밤도 그러했습니다.
13 나는 또 지켜 보다가 공중에 날아

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재난이다! 재난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난이다! 아직도 세 천사가 불 나팔이 남아 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저갱

9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에게 [1]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2 그 별이 무저갱을 열자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와 같은 것이 솟아올라 해와 하늘이 그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3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전갈처럼 쏘는 권세를 받은 메뚜기떼가 나와 온 땅에 퍼졌습니다.

4 메뚜기떼는 땅의 모든 풀과 나무는 해치지 말고 다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5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메뚜기떼가 주는 아픔은 전갈이 쏠 때와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6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7 그 메뚜기떼의 모양은 전쟁 준비를 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8 또 여자처럼 긴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9 가슴에는 철가슴받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떼의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10 또 그것들은 전갈처럼 꼬리와 가시가 있었으며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11 그 메뚜기떼에게는 무저갱의 천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2]아바돈이며 그리스어로는 아볼루온이었습니다.

12 이제 첫째 재난은 지나갔으나 아직도 두 가지 재난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의 네 천사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4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 강가에 매인 네 천사를 풀어 놓아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15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정해진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16 그 천사들이 거느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17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그 말들과 기병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기병들은 불빛과 자주색과 유황빛 가슴받이를 달았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

1 '아뷔소스' (밑 없는 깊은 구렁) 2 아바돈과 아볼루온은 둘 다 '파괴자' 라는 뜻이다.

자의 머리와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18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19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그 꼬리는 뱀과 같았으며 거기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20 이 재난에 죽지 않고 살아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됨

10 나는 또 힘 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싸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2 그 천사는 작은 책을 펴 들고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3 그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자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4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5 내가 본 그 천사는 바다와 육지를 밟고 서서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6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전해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 하늘에서 들리던 그 음성이 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져라."
9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가서 조그마한 그 책을 달라고 했더니 그는 "가져다가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입 안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조그마한 그 책을 가져다가 먹어 보니 입 안에서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은 후 뱃속에서는 썼습니다.
11 그때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증인

11 그리고 나는 잣대 같은 갈대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2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3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그들은 굵은 삼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4 이 두 증인은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5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6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8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성의 길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성은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며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합니다.
9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버려진 두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도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0 이 두 예언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11 사흘 반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시체 속에 불어넣으시자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 보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12 그 두 예언자는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말하는 하늘의 큰 음성을 듣고 원수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3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으며 살아 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4 둘째 재난은 지나갔으나 이제 곧 셋째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1]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길이길이 다스리실 것이다."
16 그러자 하나님 앞의 좌석에 앉아 있던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17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18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자 주님의 노여우심이 내렸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1] 원문에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

주시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19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약의 궤가 보였으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여자와 아이

12 그리고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처럼 입고 발로 달을 밟고 머리에는 열두 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2 임신중인 이 여자는 곧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었습니다.

3 하늘에는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붉은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며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4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으며 또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5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놀라운 권세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아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6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에는 1,260일 동안 그녀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7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도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습니다.

8 그러나 용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9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어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10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11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12 그러므로 너희 하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재난이 닥칠 것이다.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13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괴롭혔습니다.

14 그러나 그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하여 [1]3년 반 동안 보살핌을 받을 광야의 자기 처소로 날아가도록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1] 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5 그러자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 내어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16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 낸 강물을 삼켜 그 여자를 도왔습니다.
17 그러자 용은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충실히 따르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18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두 짐승

13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열 개의 뿔과 일곱 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 뿔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용은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왕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3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더니 곧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4 그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5 그 짐승은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6 그래서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7 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언어와 종족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8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9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10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음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에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1 나는 또 다른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했습니다.
12 이 짐승은 첫번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강요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나은 그 첫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13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했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까지 했습니다.
14 그 짐승은 첫번째 짐승이 하던 기적을 그대로 행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고 부상을 당했다가 살

아난 짐승을 위해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15 이 둘째 짐승은 능력을 받아 첫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습니다.
16 그 짐승은 신분이 높건 낮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모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그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8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이며 666입니다.

새 노래

14 나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4,000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2 나는 또 폭포 소리와 큰 천둥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는 거문고를 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3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4,000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4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5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6 나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라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외쳤습니다.
8 또 둘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모든 나라에 음란의 독한 술을 마시게 한 바빌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쳤습니다.
9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10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11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

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12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하다."

13 그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추수

14 그 후 나는 흰 구름 위에 [1]그리스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15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16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18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의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19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20 포도가 성 밖 포도주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 나와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약 [2]300킬로미터까지 흘러 나갔습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15 나는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인 일곱 가지 재난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노여우심은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이 주신 거문고를 타며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3]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4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드러났으므로 모든 나라가 와서 주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1] 원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2] 헬 '1,600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85미터) [3] 어떤 사본에는 '만대의'

5 그 후에 나는 계약의 궤가 들어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6 그리고 일곱 가지 재난을 내릴 준비를 한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7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개의 금대접을 주었습니다.
8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16 나는 또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큰 소리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몹시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3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4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에 쏟으니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5 나는 또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6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피로 갚아 주셨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대가입니다."
7 나는 또 제단에서 "옳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십니다" 하고 응답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8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9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에 화상을 입자 이런 재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10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으며 사람들은 고통을 못 이겨 혀까지 깨물었습니다.
11 그들은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2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프라테스강에 쏟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13 나는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4 그것들은 기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갔습니다.

15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숭이로 다니지 않으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16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17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보좌에서 “다 마쳤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18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는데 그 지진은 땅에 사람이 생긴 이래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19 그리고 큰 성은 세 조각이 나고 온 세계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빌론성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분의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20 그러자 모든 섬은 사라져 버리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21 또 무게가 약 [1]50킬로그램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사람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의 재난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창녀

17 대접을 들고 있던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 주겠다.

2 세상의 왕들이 그 창녀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3 그러고서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쓰여 있고 머리 일곱 개와 뿔 열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4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였으며 손에는 흉측한 것들과 음란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5 그녀의 이마에는 “큰 바빌론, 곧 땅의 창녀들과 흉측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비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6 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증거한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7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비밀과 그녀가 타고 있는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

8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1] 헬 ‘한 달란트’ (이것을 미터법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작게는 20킬로그램에서부터 크게는 70킬로그램까지 보기 때문이다.)

상이 창조된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영영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몹시 놀랄 것이다.
9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일곱 개의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과 일곱 왕이다.
10 다섯 왕은 벌써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또 다른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면 잠시 동안 다스릴 것이다.
11 전에 있다가 사라진 짐승은 바로 여덟째 왕이며 일곱 왕들과 같은 무리인데 그도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12 네가 본 열 개의 뿔은 열 왕을 가리키며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권을 받을 것이다.
13 그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며
14 어린 양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주들의 주이시며 왕들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것이며 또 부름을 받고 선택된 진실한 신자들은 그와 함께 이길 것이다."
15 천사는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물, 곧 창녀가 앉아 있는 그 물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가리킨다.
16 네가 본 그 열 뿔과 짐승이 창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숭이가 되게 할 것이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그녀를 태워 버릴 것이다.
17 하나님은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바쳐 그분의 뜻을 성취할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18 그리고 네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이다."

바빌론의 멸망

18 그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2 그 천사가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귀신들과 온갖 더러운 영들과 불결하고 흉측한 새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구나.
3 모든 나라가 그 음란의 독한 술을 마셨고 세상 왕들이 그녀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으며 온 세계의 상인들이 그녀의 말할 수 없는 사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4 나는 하늘에서 나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5 그 여자의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녀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6 너희는 그 여자가 준 것만큼 되돌려 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것에 갑절로 갚아 주고 그녀가 부어 준 잔에도 갑절로 부어 주어라.
7 그녀가 마음껏 사치와 영화를 누렸

으니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 주어라. 그녀는 속으로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다. 과부가 아니므로 슬퍼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죽음과 슬픔과 기근의 재난이 그녀에게 닥칠 것이며 그녀는 불에 완전히 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9 그 여자와 함께 음란과 사치를 일삼던 세상 왕들은 그녀가 불에 탈 때의 연기를 보고 울고 슬퍼할 것이다.

10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멀리 서서 '비참하다! 비참하다! 거대한 도시 바빌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11 땅의 상인들도 이제 그들의 상품을 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그 여자를 보고 울며 슬퍼할 것이다.

12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모시, 자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여러 가지 향나무, 상아로 만든 각종 물건, 값진 목재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물건,

13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기름,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과 사람의 영혼이다.

14 상인들이 그 여자에게 '네가 그렇게도 탐내던 과일이 없어지고 너의 모든 부와 영화가 다 사라졌으니 네가 다시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15 이런 물건을 바빌론에 팔아서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녀가 받는 고통을 보고 무서워 멀리 서서 슬피 울며

16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비참하다. 재난을 당한 큰 도시여, 온갖 값진 옷과 귀금속으로 꾸미더니

17 그런 부가 순식간에 사라졌구나!' 또 모든 선장과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 서서

18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이다.

19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슬피 통곡하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비참하다! 그 큰 도시가 정말 비참하게 되었구나!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부요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그녀가 순식간에 망하였구나!'

20 하늘이여, 기뻐하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기뻐하라. 하나님이 그 여자를 심판하여 너희 원수를 갚아 주셨다."

21 그때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짝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도시 바빌론이 이처럼 무참하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22 또 거문고 타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퉁소 부는 사람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네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고 그 어떤 기능공도 네 가운데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 소리가 네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23 그리고 등불 빛이 네 가운데서 다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네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상대하는 상인들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였고 너의 마술에 온 세계가 미혹되었으며
24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너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많은 군중이 기뻐함

19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군중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2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음란으로 온 세상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을 죽인 원수를 갚아 주셨다."
3 그들은 또 "할렐루야, 그 창녀가 받는 심판의 연기가 끝없이 계속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쳤습니다.
4 그러자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5 그때 보좌에서 "하나님의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 또 나는 많은 군중이 떠드는 소리와 큰 폭포 소리, 그리고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7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 날이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마치고
8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9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 기록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0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네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니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여라."

모든 왕들을 통치하는 왕

11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 흰 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 위에는 '신실' 과 '진실' 이라고 부르는 분이 앉아서 정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몸에 쓰여 있었습니다.
13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었으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4 그리고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으며
15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쇠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입니다.

16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17 나는 또 해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자유인과 종과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19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 그러나 짐승과 그를 따르던 거짓 예언자는 함께 잡혀서 산 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대신해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유혹하던 자였습니다.

21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흰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시체로 배를 채웠습니다.

천 년 왕국

20 나는 또 천사가 [1]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천 년 동안

3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천 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4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5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7 천 년이 끝나면 사탄은 풀려나와

8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1] 헬 '아뷔소스'(밑 없는 깊은 구렁)

9 그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10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11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서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2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13 바다와 죽음과 [1]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 냈으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4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21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3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시고 이어서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너는 이것을 기록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쳤다. 나는 [2]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 없이 주겠다.
7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

[1] 또는 '음부' (헬 '하데스') [2] 헬 '알파와 오메가'

음이다.”

새 예루살렘

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든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오너라. 내가 네게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부를 보여 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 그 빛이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12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문이 있었으며 그 문에는 열두 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13 그 문은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씩 있었습니다.
14 또 성벽에는 열두 개의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15 내게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려고 금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잣대로 성을 재어 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다 같이 약 [1]2,200킬로미터였습니다.
17 그리고 성벽 [2]두께를 재어 보니 약 [3]65미터였는데 이것은 천사의 측량이지만 사람의 측량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18 성벽은 전체가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리고 성벽의 주춧돌은 모두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비취옥,
20 다섯째는 호마노,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히아신드,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1 또 열두 개의 성문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었으며 성의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2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23 또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24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4]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이 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25 그 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성문이 닫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 헬 ‘12,000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약 185미터) [2] 또는 ‘높이’ [3] 헬 ‘144페쿠스’ (1페쿠스는 45센티미터) [4] 또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26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27 그러나 더러운 짓과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쟁이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생명 강

22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 나와
2 그 성의 거리 중앙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 나무가 있어서 일 년에 [1]열두 번 열매를 맺어서 달마다 과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3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4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5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2]왕처럼 살 것입니다.
6 그 천사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3]성령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곧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7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8 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후에 이런 것을 나에게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9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네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여라" 하였습니다.
10 그러고서 천사는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11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하라."
12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겠다.
13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

[1]또는 '열두 가지' [2]또는 '왕노릇 하리로다' [3]또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람이다. 그래야 생명 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5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과 마술사와 음란한 사람과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6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17 성령님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소서!" 하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의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와서 마음껏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쓰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